

2001년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교재(Ⅲ)

농촌자녀 교육과 가족



농림부행정자료실



0007900

농 립 부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001년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교재(Ⅲ)

농촌자녀 교육과 가족

2001-128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1900
등록일: 2002년 1월 14일
기증:

농 립 부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이 책(Ⅲ. 농촌자녀 교육과 가족)을 “농업·농촌발전과 여성 전문인력육성
교재개발”의 최종 연구교재로 제출합니다.

2001. 12.

주 관 연 구 기 관 명 :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총 팔 책 임 자 : 경북대학교 교수 이호철
연 구 원 : 경북대학교 교수 김병수
경북대학교 Post-Doc. 박재홍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유병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정일선
안동대학교 강사 이영구
경북대학교 강사 조정봉
연 구 보 조 원 : 경북대학교 조교 최수영

집필진 소개

I .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이름	제 목	소속/직책	연락처/전자우편
박재홍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018-740-2065 agecon@lycos.co.kr
유병규	농업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017-509-5860 yubg@ddi.re.kr
석태문	돈되는 유통, 돈안되는 유통	경상북도 정책기획팀 전문위원, 경제학 박사	019-548-9900 stm21@naver.com
이영만	알기쉬운 농장회계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 교수, 농학 박사	055-751-5453 leeman@nongae.gsnu.ac.kr
강효순	컴퓨터로 농가경영장부 쓰기	주식회사 골드팜 이사	011-703-6692 glsol@hanmail.net
최수영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는 농업 정보이용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016-540-8149 kfood@hanmail.net
유소이	여성농업인의 가계경영 관리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 소비자학과 소비자학 박사	018-741-2065 syyou86@hanmail.net
석태문	농촌현장에서 본 선진 농업경영	경상북도 정책기획팀 전문위원, 경제학 박사	019-548-9900 stm21@naver.com

Ⅱ . 리더십 개발 어떻게 할까?

이름	제 목	소속/직책	연락처/전자우편
이호철	리더십과 여성농업인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박사	016-262-3716 Hclee@knu.ac.kr
정기환	여성농업인의 현실 극복을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011-214-1602 kwchung@krei.re.kr
정금주	농촌조직과 여성농업인의 역할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소장	031-299-0440 junggj@rda.go.kr
유병규	여성농업인 정책 어떻게 반영 되고있나?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017-509-5860 yubg@ddi.re.kr
이경숙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법1 : 자아실현	칠곡군 복지회관 계장, 여성학 석사	054-975-2271 019-540-4282 KSLee@chilgok.kyoung.kr
이호철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법2 : 회의진행법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박사	016-262-3716 Hclee@knu.ac.kr
김문형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법3 : 법률상식	농협중앙회 고객만족부 팀장	02-397-5556 k-hyung@nonghyup.com
최수영	농촌을 움직여온 여성농업인 개척자들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016-540-8149 kfood@hanmail.net

Ⅲ. 농촌자녀 교육과 가족

이 름	제 목	소속/직책	연락처/전자우편
조정봉	우리 가족, 그리고 자녀교육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교육학 박사	011-9582-6729 jbcho@knu.ac.kr
김진화	농촌자녀 학습지도 방법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강사, 농학 박사	031-290-2538 011- 9609-8798 kjh5038@hanmail.net
윤순덕	농촌지역에서 자녀교육의 새로운 지평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연구사	031-299-0508 ysd@rda.go.kr
한경혜	부담스런 가사노동, 질곡의 여성농업인	서울대 소비자이동학과 교수, 가정학 박사	02-880-8748 ghhan@snu.ac.kr
유가효	자녀상담과 성교육, 어떻게 할까?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가정학 박사	053-580-5861 ykhldj@kmu.ac.kr
최윤지	농가생활설계와 소비생활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연구사	031-299-0509 choeyg@rda.go.kr
최규련	가족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수원대학교 아동가족과 교수	031-220-2242 krchoi@mail.suwon.ac.kr
정일선	좋은 부모, 행복한 부부 만들기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사회학 석사	019-277-4044 sunny@forwoman.or.kr

IV. 여성문화와 건강

이름	제 목	소속/직책	연락처/전자우편
조옥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문화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박사	02-705-8369 oaklaa@ccs.sogang.ac.kr
임재해	농촌 전통문화의 자연친화적 계승과 발전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민속학 박사	054-823-8481 limjh@andong.ac.kr
이경숙	여성농업인을 위한 취미 및 교양 생활	칠곡군 복지회관 계장 여성학 석사	054-979-6569 KSLee@chilgok.kyoung.kr
정일선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1 : 스트레스 해소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사회학 석사	019-277-4044 sunny@forwoman.or.kr
양진향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2 : 건강관리	경북과학대학 간호과 교수, 영양학 박사	054-972-9567 011-803-1203 JHYang@kbcs.ac.kr
윤진숙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3 : 식생활 관리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영양학 박사	053-580-5873 jsook@kmu.ac.kr
강소영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4 : 자기연출	주식회사 태평양, 미용연구실 대리	02-709-5656 sykang@tacifrc.co.kr
김종숙	교양과 품위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 화훼학과 교수, 농학 박사	031-229-5071 jskim@kn.ac.kr

차 례

우리 가족, 그리고 자녀교육	조정봉	1
농촌자녀 학습지도 방법	김진화	29
농촌지역 자녀교육의 새로운 지평	윤순덕	69
부담스런 가사노동, 질곡의 여성농업인	한경혜	101
자녀상담과 성교육, 어떻게 할까?	유가효	127
농가 생활설계와 소비생활	최윤지	155
가족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최규련	193
좋은 부모, 행복한 부부 만들기	정일선	217

각 권 차례

I.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박재홍	1
농업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	유병규	39
돈 되는 유통, 안 되는 유통	석태문	73
알기쉬운 농장회계	이영만	103
컴퓨터로 농가경영 장부 쓰기	강효순	131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는 농업정보 이용	최수영	159
여성농업인의 가계경영 관리	유소이	189
농촌 현장에서 본 선진농업 경영	석태문	217

II. 리더십개발 어떻게 할까?

리더십과 여성농업인	이호철	1
여성농업인의 현실 극복을 위한 과제	정기환	35
농촌조직과 여성농업인의 역할	정금주	63
여성농업인 정책,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	유병규	95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 법1 : 자아실현	이경숙	127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 법2 : 회의진행법	이호철	157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 법3 : 법률상식	김문형	189
농촌을 움직여온 여성농업인 개척자들	최수영	225

IV. 여성문화와 건강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문화	조옥라	1
농촌 전통문화의 자연친화적 계승과 발전	임재해	23
여성농업인을 위한 취미·교양생활	이경숙	57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1 : 스트레스 해소	정일선	83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2 : 건강관리	양진향	119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3 : 식생활 관리	윤진숙	149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4 : 자기연출	강소영	179
교양과 품위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김종숙	205

우리 가족, 그리고 자녀교육

조 정 봉

경북대학교

I. 가족에 대한 이해

1. 가족의 정의
2. 가족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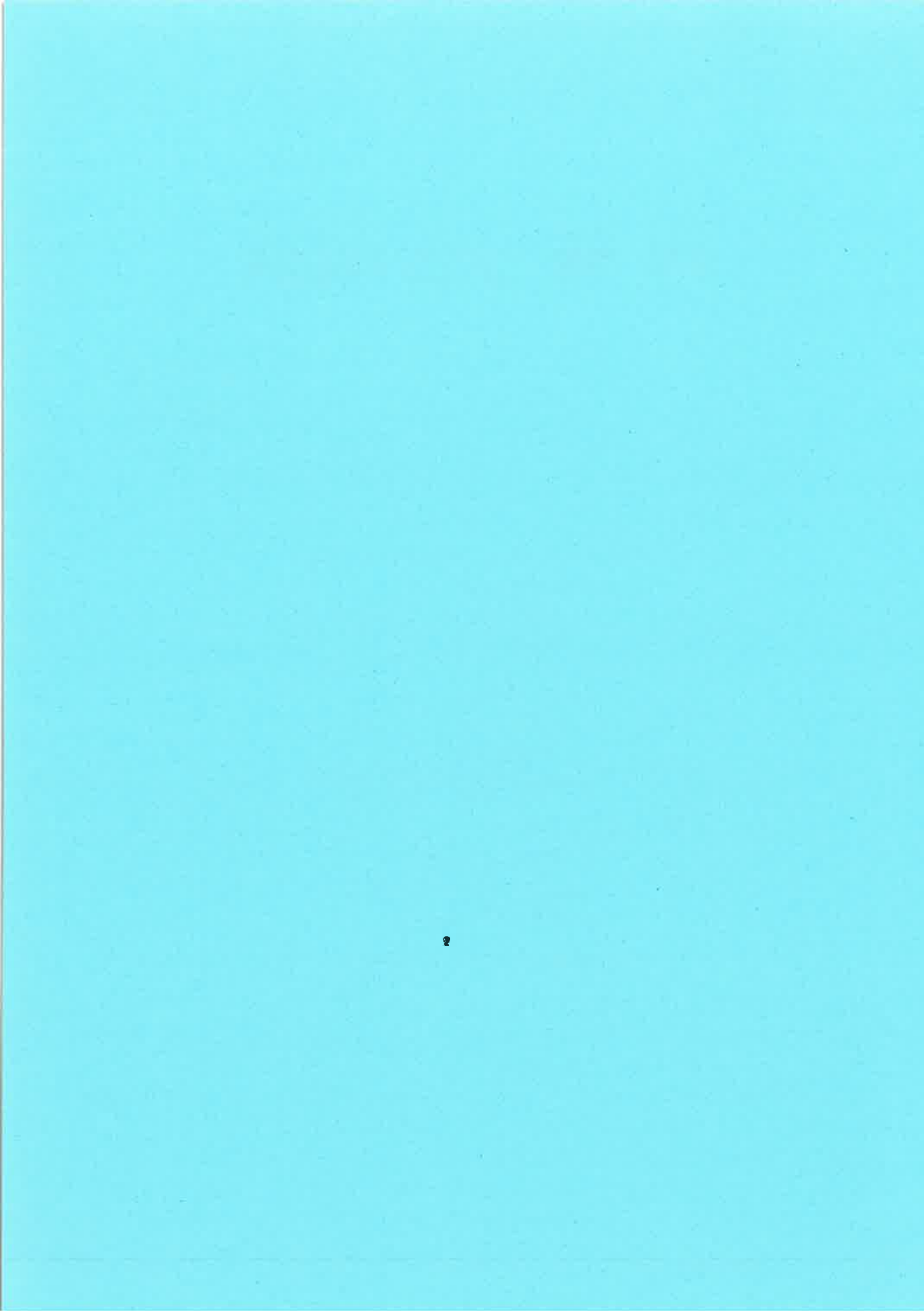
II. 가족에 대한 이론

1. 가족의 형성
2. 가족생활 주기
3.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

III. 자녀교육

1. 가족과 자녀교육
2. 발달단계별 자녀의 특성
3. 농촌에서의 자녀교육

IV. 현대 사회의 가족 및 교육문제



우리 가족, 그리고 자녀교육

원시시대의 수렵채취 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족은 산업혁명을 분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가족은 그 구성과 기능 및 관계가 모두 크게 바뀌었다. 이른바 가족의 구성이 과거에는 두 세대 이상의 결혼한 성인들이 함께 생활하던 직계가족이 함께 하는 대가족적인 형태이던 것이 현대에는 결혼한 성인들이 세대마다 따로 생활하는 소위 핵가족적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는 자녀들을 도시로 떠나 보낸 노인들이 혼자사는 노인단독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가족 구성원의 변화와 함께 가족관계도 변화하여, 가족의 대를 이어가는 부자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던 전통적인 가부장제 관계가 근대사회에는 민주적인 관계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즉, 서구의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핵가족제도를 이념적인 모형으로 삼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날 과거 전통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가정에서의 폭력, 혼외관계, 배우자의 유기, 이혼, 자녀의 가출과 탈선, 친족살해 등의 병폐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은 가족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가족의 정의와 기능 및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가족구성원의 역할 파악을 통해 가족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논하고자 한다.

I. 가족에 대한 이해

1. 가족의 정의

가족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회 공통의 행동특징과 문화규범을 습득시키는 사회화 과정을 담당하는 사회의 가장 기본 집단이 되며, 사회를 존속시키는 기본 단위이다. 가족에 대한 정의는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마다 강조하는 점이 약간씩 다르다. 그러나 사전적으로는 “가족은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혈연에 의해 맺어지고 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 또는 성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알려진 정의로는 머독의 핵가족적 정의와 레비-스트라우스의 확대가족적 정의를 들 수 있다.

머독에 따르면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고, 주거와 경제적인 협력을 같이 하며 자녀의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부부와 자녀를 가족의 핵으로 파악하고 있어 핵가족적 정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가족을 너무 좁은 의미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을 보편적으로 정의하는데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레비-스트라우스는 “가족은 결혼으로 시작되며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구성되지만 이들 외에 가까운 친척이 포함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은 법적 유대 및 경제적, 종교적인 것 등의 권리와 의무, 성적 권리와 금기, 애정, 존경 등의 다양한 심리적 정감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는 머독의 정의보다 확대된 범위를 가족으로 보고, 가족원의 유대, 관계, 결합의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그의 가족에 대한 정의는 확대가족을 정의하는데 보다 적합하다.

결국 가족이란 외형적인 구성면에서 혼인과 혈연 또는 양자관계를 통하여 결합된 집단으로서, 기능면에서 사회 전체의 맥락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정서적인 표현을 위한 심리적인 집단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2. 가족의 기능

가족의 기능이란 사회를 존속시키고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가족이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를 뜻한다. 가족내 기능은 성 및 자녀 출산기능, 자녀양육 및 교육기능, 소비경제, 휴식, 오락, 종교의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대사회적인 기능은 성을 통제하는 기능, 사회구성원을 충원시켜 주는 기능,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 사회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기능, 사회를 안정시키는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1) 가족내 기능

(1) 성, 자녀출산의 기능

가족은 남녀의 사랑을 기초로 하여 이룩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중심이 되는 부부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부부간의 성생활의 필연적인 결과로 자녀를 출산하는 생식의 기능은 사회의 다른 집단에서 대신할 수 없는 가족만의 고유한 기능인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자녀양육과 사회화 기능

아이들은 출생하면서부터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가족생활을 통해 교육을 받게 된다. 가정에서는 그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자녀의 인격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는 기능을 한다.

(3) 경제적 기능

가족의 경제적 기능은 생산기능과 소비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가족은 생산과 소비의 기능을 함께 수행했지만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화, 상품화의 대량생산으로 생산단위로서의 가족의 기능은 축소되었다. 그에 따라 가족원은 산업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이것으

로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 산업사회의 가족은 상품선택과 구매에 대한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능력이 요구되며, 한정된 수입으로 온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요구된다.

(4) 보호기능

질병과 위협으로부터 가족구성원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

(5) 휴식기능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심신의 긴장이나 피로를 회복시켜 주는 휴식의 기능을 갖는다.

(6) 오락기능

가족이 단위가 되어 여가를 즐길 때 부모와 자녀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므로 교육적인 의미를 수반하고, 가족구성원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그 자체로써 대화를 하게 된다.

2) 대사회적 기능

(1) 성을 통제하는 기능

사회의 승인을 받고 공인된 결혼이라는 체도가 어느 정도 전체 사회의 성관계를 질서있게 통제해 주며, 대외적으로는 성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2) 사회구성원을 충원하는 기능

자녀, 출산의 기능은 사회를 존속,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며, 나아가 인간이라는 종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3)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

가족의 소비기능은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대사회적으로 개개인의 생활보장을 뜻하며, 가족의 소비적 기능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는 바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직결되므로 국민경제 순환에 있어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4) 사회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기능

가정에서의 양육과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녀의 사회화를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자녀양육을 통하여 자녀가 그 사회에 적합하게 기능하도록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가정은 자녀로 하여금 교육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지식, 규범, 도덕을 익히게 한다. 그러므로 가정은 그 사회가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과 문화의 계승을 돕는다.

(5) 사회안정화 기능

가족이 인간을 보호하고 휴식하도록 할 때, 개인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심신안정은 재생산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은 다시 사회 안정을 도모해 준다. 즉 가족이 개인에게 심신의 보호와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이 사회의 안정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된다.

3) 현대 한국 가족의 바람직한 기능

한국 가족은 그 형태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한국 가족의 유형 변화는 부부가족의 증가와 직계가족의 감소를 가장 특징적인 변화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현대 한국 가족의 가치관의 변화는 전통에서 현대 혹은 부계적인 특징에서 양계적인 특징을 잇는 연속선의 개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 유형 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 가치관 변화에서도 편의주의적 성향이 나타나 부인의 취업에 따른 경제적 기여

는 받아들이면서 가사에의 공동참여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가족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현대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전망이다. 미래 사회에 증가하리라고 보는 가족의 형태로는 핵가족외에 독신가족, 자발적 무자녀 가족, 편부모가족, 재결합 가족, 계약결혼, 개방결혼과 집단혼, 동성애 집단, 공동체 가족, 수정 확대가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형태는 가족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사회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므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수행해야할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간의 애정 도모, 안정감 부여와 수용, 만족감과 목적의식 부여, 지속적인 동료감 유지, 사회적 지위 부여와 사회화, 통제력과 정의감 확립 등은 어떠한 가족형태를 막론하고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II. 가족에 대한 이론

1. 가족의 형성

가족을 형성하는 주체는 남성과 여성이며, 이들은 이성교제를 통하여 성숙한 성인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배우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적절한 단계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형성한다.

농경사회의 출현이후 인간은 좀 더 복잡한 사회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식량획득을 토지에 의존하는 안정된 생활로의 변화는 농업생산의 단위로서의 가족과 대가족을 위한 경제권행사의 가부장권을 출현시켰다. 또한 자식들은 혼인을 하더라도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한 울타리내에서 생활하며 부모의 대를 계승하여 물려 내려온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결혼의 가치를 개인

보다 가족에 두고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의 출산에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혼인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가 결정하였고 성역할에 대한 태도 역시 남아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이 가족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결혼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삼아 결혼의 가치를 가족집단 보다는 개인의 행복이나 만족감의 성취에 두고 있다. 그리하여 남녀 모두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 자아개발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혼 가치관의 변화는 자유연애혼의 증가를 가져왔고, 사랑을 결혼의 가장 으뜸가는 전제 조건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한편, 가족생활과 결혼에 대한 변화는 사회변화와 더불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가족생활에 위협이 되고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자본주의 산업혁명과 근대화의 과정은 현대 모든 사회구조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가족생활의 의식과 형태도 많은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산업구조는 노동인구의 대이동과 도시화를 촉진시키며, 가족생활 단위는 이에 따라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또한 좋은 일거리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찾아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이동성 있는 핵가족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사회의 이러한 성격은 부모 및 친족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가족의 형태를 더욱 단순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현대사회의 발전적인 가족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핵가족화는 특정한 경제생활 조건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형태로써 다른 형태의 가족과 공존하는 주거단위의 하나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가족농의 형태를 취하는데, 가족농이란 가족구성원에 의해 농업의 경영의사가 결정되고 경영주와 가족구성원이 제공하는 가족노동력을 주축으로 하는 전통적 또는 전문적 농업경영체이다. 특히, 가족농은 소득의 상당부분을 농업생산이나 가공, 유통으로부터 얻는다는 점에서 부업농과 차이가 있다. 가족농은 가족노동력의 자기고용이 가능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경영교육과 경영승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가족농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성격이 변모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력의 비중 증가, 자본집약적 농업생산, 자작농 감소 및 대규모 농가 비중 증가 등에 의해 가족농의 겸업농가 전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가족이 일반 가족과는 다른 활동형태를 가질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농촌가족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을 설명해야 한다.

2. 가족생활 주기

가족은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함으로써 형성되고, 이어서 자녀의 출산, 성장과 더불어 발전, 확대되며, 또한 자녀가 독립하거나 출가함으로써 축소되고, 최후에는 부부의 사망으로 소멸된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가족이나 거치게 되는 경로로 가족의 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가족주기’ 또는 ‘가족생활주기’라고 한다. 즉 가족생활주기는 가족생활을 단계별로, 장기적으로 고찰해서 각 단계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족생활의 기틀과 생활의 조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족생활의 유형을 분류해 놓은 것이다. 이는 가족이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동안의 가족간의 생활을 강조하므로 가족의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하여 가족생활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갖게 한다.

가족생활주기 이론은 글릭과 파커의 연구를 본격적인 시발점으로 하여, 결혼으로부터 부부 모두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겪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을 구분지음으로써 가족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유력한 이론적 도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가족이 겪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은 첫 자녀의 출산, 막내자녀의 출산, 첫 자녀 및 막내자녀의 결혼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구성되는데, 각 단계별로 가족의 구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있어 서로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가족생활주기의 단계 구분은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가족의 크기와 구성변화를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자녀없는 부부만의 단계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이들을 양육시키기 위해 재정적 어려움이 증대되는 단계, 다음은

자녀가 독립하거나 자녀의 생계보조 역할로 인해 재정적 문제가 거의 없는 단계, 마지막으로 노년기 가족의 경우 수입원이 없어 재정적 곤란이 다시 문제가 되는 단계로 구분된다. 그러나 가족발달은 결혼한 부부의 출산, 양육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가족생활주기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데, 한국의 대가족제도에 따른 분류, 가족수 변화에 의한 분류, 자녀출산에 의한 분류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 자녀출산에 따른 가족생활주기 분류는 크게 6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부부가 결혼하여 첫자녀를 출생할때까지인 형성기이며, 두 번째 단계는 첫 자녀 출생부터 막내자녀 출생까지인 확대기, 세 번째 단계는 막내자녀 출생부터 자녀 결혼시기까지인 확대완료기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자녀결혼 시작부터 자녀결혼 완료까지의 가족축소기이며, 다섯 번째는 자녀결혼 완료부터 남편 사망까지에 이르는 가족축소기의 단계이며 마지막으로 남편 사망으로부터 본인사망에 이르는 가족해체기의 단계로 구분된다.

가족생활주기별 단계에 적합한 과업이 적절히 수행되어야 가족들이 안정되고 충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발달과업은 특정한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결정적인 때가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각 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은 신중히 계획되어야 한다.

3.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

일반적으로 농촌사회에서는 전통사회나 현대사회 모두 가족주의 가치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가족이라는 개념자체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 기능이나 구성원의 범위의 차이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가족주의란 일체의 가치가 가족 집단의 유지, 지속, 기능과 관련을 맺어 결정되는 가족집단의 단결과 영속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족 구성원들의 꾸준한 집단적인 노력을 말한다. 그러나 근대와 현대에 들어서면서 물질적 생활의 측면은 산업사회의 영향을 받아 서구화에 접근하면서도 인간관계의 규범으로는 여전히 가족주의 가치가 우리의 문화적 특성으로 강조되고 있다.

가족주의를 핵가족단위의 가족을 생활의 중심으로 보아 부모와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견해는 다섯가지의 측면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모든 가족구성원은 그들이 가족집단에 속해 있다고 두드러지게 느끼고, 둘째, 가족의 목표성취를 위하여 개인활동을 완전히 통합하며, 셋째, 토지, 금전, 물질 재화가 가족자산이라고 가정하여 개별 구성원에게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포함한다. 넷째, 만일 가족 구성원이 타인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경우 모든 다른 구성원은 기꺼이 그를 집중 지원하고, 다섯째, 성인자녀의 경제활동 시작 및 지속, 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는 가족의 영구화에 대한 관심 등을 가족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밖에 부모와 결혼한 자녀 및 그들의 형제자매간의 친밀한 관계의 교환으로 구성되는 상호 조력을 추가하여 가족주의를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란 인간의 출생과 더불어 하나의 가족에 속하게 되며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더욱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성이 유년기에 형성되며, 유년기의 생활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짐을 생각할 때 가정은 실로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회집단이라 하겠다. 가족간의 인간관계는 비단 가족 구성원 수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고, 가족의 구조, 가족 개개인의 성격, 감정, 지능, 교육수준 등에 따른 가족간의 상호작용, 그 가족만이 갖는 가족문화, 즉, 가풍, 습관 등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결혼하여 부부가 된 남녀는 배우자와 삶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부모자녀관계를 가지게 되며, 자녀들은 서로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와 성인자녀간에는 노부모-성인자녀, 특히 고부관계라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된다. 이와 같이 가족관계망이 확대되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다.

1)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가족관계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관계이다. 행복한 가족 및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부부관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부부간의 역할 분담으로서 여성이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남성이 가족의 부양자로서 직업에 종사하는 기본적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전근대적인 역할분담이 부분적으로 변화되었거나 부부 역할에 대한 가치관에도 변화가 초래되었다.

지난날에 있어서는 남자의 가장권은 절대적이었고 부녀자는 물심양면으로 그에게 예속된 생활을 하여왔으나, 이 점은 이미 많이 변해 왔고 또 앞으로도 발전할 여지가 많은 듯하다. 즉, 부부는 종속적 관계를 벗어나서 상호협동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의 부부관계는 의무나 권리 또는 특권과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오히려 정서적인 만족, 성격적 충족, 또는 일반적 행복과 관련지어 생각되어야 한다. 서로의 완성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양보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교양과 경제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여성도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가족의 소비를 담당하며 기회가 있으면 자신이 벌 수도 있고 남성과 같이 사회적 권리를 가질 수도 있게 됨에 따라 부부간의 역할이나 지위는 보다 평등한 관계로 되었다.

부부의 역할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부부관계를 유형화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부관계의 유형이란 결혼생활을 통하여 전개되는 생활방법이나 생활태도가 장시간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습관화되면, 어떤 형태의 질서가 발생하게 되고 부부의 상호인간관계나 서로의 인격 수행에 있어서의 역학적 상호작용으로부터 그들만의 고유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부부관계의 유형을 크게 권위형과 민주형으로 분류할수 있는데, 권위형은 부부간의 문제결정이 주로 남편 또는 아내 일방에 의하여 좌우되며 명령적이고 지배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민주형은 가사에 대한 절충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며 주종관계가 아닌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역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브츠는 호주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부부간의 역할분담의 정도에 따라 부부관계를 보다 분류하였는데, 권위적/민주적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분류라 할 수 있다.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결정권과 행동형으로 분류한 결과 결정권은 남편단독권, 부인단독권 및 부부공동권 등의 3가지이며 이러한 유형의 행동형과 결정권을 고려하여 9개의 상호작용의 유형을 배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1) 부부자주형 : 부부각자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제각기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의 부부관계
- (2) 남편지배형 : 남편이 혼자 결정하여 남편과 부인이 다 같이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남편이 지배하는 부부관계
- (3) 부인지배형 : 부인의 결정에 따라 남편과 부인이 행동하는 부부관계
- (4) 부부공동형 :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한 것에 따라 남편과 부인이 행동하는 경우로 협조적인 부부관계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는 남편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역할 영역을 융통성 있게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부생활이 친밀하고 동료적인 관계가 되려면 각자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자신의 가치와 우선 순위를 검토하여 융통성 있는 부부관계를 이룩해야 한다.

2) 부모와 자녀관계

부부의 결혼생활은 자녀가 있음으로써 완성되며 부모 자녀관계가 성립됨으로써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자녀가 사회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부모의 사회적/인격적 활동이 자녀의 인격자체가 부모의 영향하에서 형성되고 그들의 중요한 성장기를 부모의 지배하에서 보내게 된다.

자녀의 신체적 발육, 심리적 성장, 지식의 습득, 직업훈련 및 사회적 적응을 위한 능력의 토대가 가족의 제약하에서 구축된다. 그러므로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사회화의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관계

이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가족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애정적인 관계로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며, 바람직한 인간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부모 자녀관계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 자녀관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지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던 시대는 지나갔다. 대신 자녀를 하나의 인권을 지니고 태어난 귀중한 존재로 대우를 해야 할 것이다. 자녀의 모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자녀가 자람에 따라 그들의 욕구 또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들의 욕구를 가능한 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어릴 때 욕구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커서도 독립할 용기나 의지가 결여된 자녀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어렸을 때 조화적이고 협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생활도 평화롭고 협력적인 생활이 된다.

한편 현대에서는 부모 자녀간의 세대차이와 갈등의 요인으로,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부모 자녀간의 세대차가 점점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과 현대사회의 특징인 인권존중을 강조하고 사회의 이질적인 사조와 가치관은 가족 내의 부모 자녀간의 본질적인 불평등성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치관에 있어서 부모는 현실적인데 비하여 자녀는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부모 자녀간의 갈등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상류계층의 부모 자녀관계가 하류층보다 더욱 민주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사춘기 자녀와의 문제가 거의 없다고 한다.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정신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조건적인 비판과 배타보다는 이해와 수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유소년기까지는 보호와 격려로 지도하고 인도함에 따라 때로는 권위적으로 대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청년기부터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권위적 태도를 버리고 친구와 같은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 내면적으로는 보호와 지도의 태도를 지니면서 대화를 통한 일상생활의 관계로써 사고와 지식의 범위를 존중하는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부모 자신의 이러

한 사고와 태도는 자녀에게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관계에 대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또한 사춘기의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겉으로 부모를 거부하고 있는 듯 하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들 역시 부모의 세계를 인정하고 부모의 능력을 알고 신뢰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 계속 배우는 입장에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3) 고부관계

전통사회에서 가부장의 권위는 다른 어떤 가족 구성원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관도 변하여 세대와 세대간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전통적인 확대가족에서는 가족이 노인에게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고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제공했기 때문에 노인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으나 산업화의 전개는 직업을 얻기 위해 자녀들이 지리적으로 이동하여 노부모와 동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자녀들이 노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낮아짐으로써 노인들의 지위는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무능력한 노인들은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가족내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기회의 확산으로 교육은 점차 대중화되어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교육도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격차는 사회적 지위를 전도시키고 지적, 도덕적 분리를 촉진시켜 결국 노인의 지위를 낮게 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확대가족적인 형태에서는 결혼의 성패가 며느리로서의 역할수행의 성공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왜 예나 지금이나 고부간의 마찰이나 갈등이 있게 되는 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역할관계의 경쟁, ② 애정적인 경쟁, ③ 관습적인 인식 및 ④ 세대차의 문제 등이다. 그러나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고부간의 관계가 잘 적응되고 조화

되어야만 부부관계도 원만하게 적응·유지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고부간의 적응문제에 대한 여러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부간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여건은 다음과 같다.

- (1) 결혼 당사자의 양가부모가 사회적/문화적으로 비슷한 배경을 가지는 것으로 같은 종교나 비슷한 교육정도의 사회계층인 것이다.
- (2) 결혼당사자들이 부모의 원만한 승낙하에 성사된 결혼인 경우 도움이 된다.
- (3) 부모와 성인 자녀관계가 애정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이 아닐 때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고부간의 적응에 대한 문제는 적정한 배우자의 선택과도 관련되지만 갈등이 될 만한 것은 피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적응하려는 노력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성격과 입장을 이해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관계를 잘 익혀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자녀교육

1. 가족과 자녀교육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자라서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안정된 나날을 보내기 바란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인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이 과하다 보니 지나친 요구도 하게 되고 바라는 것이 많아지고 해서, 오늘날 흔히 말하는 과잉보호니, 지나친 간섭이니 하는 말이 흔히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평소 자녀들의 생활태도를 보고 그 부모가 자녀지도를 어떻게 해왔는가, 가정교육을 운운하면서 교육을 잘 받았다, 못 받았다 하게 된다. 가정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의 장입은 물론이고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활장소이며, 생활의 모

든 것, 즉 놀이에서부터 학습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의 태도, 행동이 전개된다. 그래서 모든 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므로 자녀를 누구보다도 바르게 키우기 위해 가정에서는 생활규범으로 상부상조하고, 협동하고, 협력하는 생활습관을 익혀 나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성의를 다한다지만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어려서 말을 잘 들었고 해서 커서도 같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이 오늘날에 와서는 수험경쟁의 심화에 따라 기본적인 일상적인 생활 교육은 많은 바람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특히 지적 학습만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 가정교육의 당사자인 부모교육,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교육방향이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점이 많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는 부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머니의 교육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어머니의 양육정도에 따라 자녀들이 받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며 또한 핵가족화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고 그 역할이 불명확해짐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자녀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그의 개성이 결정되고 그것이 또 개인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며, 따라서 결혼의 행복과 불행까지도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결국 그들의 장차의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인류평등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자녀를 잘 기르려면 우선 자녀의 기본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성장과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욕구가 충족되고 따라서 행복하고 충만한 개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이루는 가정이나 사회는 평화롭

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자녀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뢰성, 자율감, 창조감, 성취감, 동일시감, 친밀감, 부모감, 안전감이 그것이며, 사람은 이 여덟가지 단계 중 각 단계에 있을 때 마다 자기가 처한 단계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함으로써 건전한 개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물론 자녀교육의 적절한 방법과 적당한 내용은 개인의 성향, 자질, 적성, 기호 등 개인적 속성 뿐 아니라 부모의 직업, 주위의 환경, 지역의 문화 등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녀교육에 대한 일반론은 개인이 처한 처지를 고려하여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전체 구성원들의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이다.

더 나아가서 농촌지역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은 도시지역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교육에 관련된 부대시설과 지원기관이 양적, 질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것이 농촌지역이다. 농촌의 자녀교육, 그 어려움을 크게 두 측면에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들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가 낮다. 농촌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은 꼭 공부를 통해서 직장이 보장된다거나 생계가 해결된다는 인식을 약하게 만들고 비교를 통한 선의의 경쟁을 시도할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지역의 사회·환경적 측면을 보면,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체제가 미약한 실정이다. 과외지도나 방과후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시설투자가 부족하다. 또한 정보, 시간 등의 제약, 자원의 한정 등으로 인해 부모의 의욕이 왕성하다 하더라도 자녀교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에서 생활함으로써 겪게 되는 자녀교육에 대한 불리한 측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과 아울러 사회적 운동이 절실하다. 먼저 개인적 노력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있고 사회적 운동은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 전체의 교육적 이해 증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발달단계별 자녀의 특성

1) 아동기

아동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 태도, 지적능력 등의 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인간의 의식은 계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이는 후천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개인의 가정, 연령, 교육, 직업, 계층, 지역 등에 따라 의식 및 태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무엇보다도 아동기에 받은 훈련의 차이나 경험, 사회적 학습과정의 차이는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형성은 태어난지 5~6세에 고정된다고 하여 아동기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피아제는 아동기의 경험이 성격형성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지적 능력을 결정하는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아동기는 일생에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지적 욕구가 왕성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환경과 양육자, 특히 부모의 지도방법이나 태도는 한 인간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의 교육의 주요 목표는 아동이 좀 더 자기 자신과 주위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데 있다. 아동이 좋은 부모와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목표에 더욱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주위 환경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연령에 있기 때문에 아동의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위 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는 경우도 많다.

2) 초등교육기

이 시기의 자녀들은 성취감의 단계로 집안을 넘나들면서 분주하게 놀고, 공부하고, 만들어 보고, 또래 집단과 협동하기도 하는 활동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부모와 가족은 그들을 위하여 환경을 폭넓게 만들어 주고 아울러 균형있는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시기에 자녀들은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가정생활과는 다른 학교생활에 접어들게 된다. 학교생활은 일정한 규율 밑에서 교사의 지도를 받아 조직적인 학

습활동과 여러 친구들과 공동생활을 하는 장인 것이다. 학교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아동의 행동을 제한한다. 또한 학교에는 지켜야 할 일정한 제약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친구들과 생활해 본 경험이 없으므로 강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또한 서로 힘을 다투어 우월감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학교생활은 아동의 행동 발달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아동은 가정과 학교라는 두 개의 집단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초등교육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 형성 뿐만 아니라 장래의 모든 행동의 기초를 이룩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이 같은 일은 공부를 게을리 한 후에 생기는 일시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고민이 지속되면 학업에 흥미를 잃고 심지어는 공부를 중단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 같은 학습문제는 다른 생활과 분리시켜 가능한 한 빨리 또 효과적으로 명백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문제는 대체로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자기 패배유형”과 “성공적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부모들은 “자기 패배유형”을 “성공적인 유형”으로 바꾸는 것이 학습문제의 주요 목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들이 비효과적인 과거의 학습방법을 바꿀 때에는 거북해하고 부자연스럽게 느끼는데 이것은 짐작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습관화되고 자연스럽게 된다. 또한 자기 패배적인 악순환을 타파하는 노력은 학습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걸쳐 변화를 가져온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습문제는 학습계획 및 태도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분위기, 학생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 학습능력의 수준 및 학습에 대한 욕구 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중고등교육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들은 발달단계에 있어서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문제와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기는 신체적인 발달, 동료 및 이성관계, 학업, 진학,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어 닥치는 격동기이다. 또한 정신적·신체적으로 불안정과 불균형이 심하여 불안과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년기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생리적으로 여러 기능이 완성되며 에너지가 왕성해 진다.
- (2) 성의 성숙으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 (3) 자아의식의 발달이 높아진다.
- (4) 주관이 발달하여 이성, 친구, 기호 등의 선택이 뚜렷해지고 사고는 추상적, 관념적이며 또한 비판적, 합리적이다.
- (5) 개성이 뚜렷해져서 독립된 사회인이 된다.
- (6) 권위에 대하여 반항심에 강하며, 고독을 즐기며, 갈등으로 깊이 고민하고, 자기 감정에 도취된다.
- (7) 과도기적 현상으로 부적응과 비행이 많다.

이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청년기는 심신의 모든 면이 아동에서 청년으로 옮겨지는 과도기이며 또한 모든 행동이 순탄하지 못하고 불안정하여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중고교 학생들은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 가정문제보다는 학업이나 진학, 취직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열망과 기대, 부모의 과잉된 교육열, 그 밖에 일류 학교에 진학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압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지도는 학업과 관련된 개인의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학업성취만을 요

구하는 한국의 교육풍토는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할 뿐이라고 하겠다.

중고교생 학생의 약 40 퍼센트는 자신의 문제를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그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서는 의논상대가 없이 해결될 수도 있겠으나, 학생들의 일차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학업이나 진학, 졸업후 취직문제 등 전문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학생 개인에게 맡기기 보다는 주변에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책임있는 성인으로서 부모들은 학생들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먼저 학생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참된 경청은 학생들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기초이다. 사람에 따라 현실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학생들 자신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말이 오고 간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된 것은 아니다.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의사소통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학생들에게 갖게 하려면 부모는 학생들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4) 대학교육기

대학생은 연령적으로 청년기에 속하며, 이 시기는 발달과정에서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어떤 사람의 일생과 그 사람의 사회에 대한 공헌을 평가하려 할 때에는 그 공과의 기초가 마련되는 시기가 청년기이다. 유년기나 소년기의 경험은 청년기의 경험과 통합되어 개인의 성격으로 정립된다. 그리고 청년기에서 정립된 이 개인적 성격이 장년기의 결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육은 더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는 요건이 되며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졸업이 좋은 직장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불경기 때문에 예측했던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대학과 정부간의 가치관이 달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대학내에서 문제를 가져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신입생은 갑자기 다양한 환경에 접하게 된다. 개개인의 소양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기회가 많아지며 종교, 가치관, 인생관, 정치적 견해 및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대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자극들이 대학생에게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다양성들은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다가오므로, 미처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도 전에 혼란과 좌절감 및 심한 불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대학생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학업면에서나 운동, 음악감상과 같은 여러 가지 취미 활동에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른 학생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한다.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이 당면하는 문제들로는 학업에 관한 문제, 이성교제, 교우관계, 부모로부터의 독립, 진로문제 등이며 주로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농촌에서의 자녀교육

특히, 관심이 되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구체적으로 자녀교육은 자녀의 생활지도, 교과지도 및 진로지도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자녀의 생활지도는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수행하던 자녀교육의 분야이다. 이러한 기본예절과 더불어 놀이문화와 이성교제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농촌의 아이들은 도시의 생활문화를 어른들 못지 않게 모방하고 싶어한다. 특히, 농사일이 일정한 수입을 매달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기에 목돈이 장만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충동적 소비를 부채질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자녀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자녀의 교과지도는 주로 숙제돕기와 성적향상을 위한 과외비 지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과 수업방식이 부모의 도움없이 준비물이나 과제물을 챙기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방과후 교육

활동을 활용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이 참가하여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지역민과 그 자녀들이 자기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셋째, 농촌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해 부모의 새로운 인식이 아쉽다. 농촌자녀들은 이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면에서 도시 자녀들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자녀의 진로지도는 한 인간의 사회적 진출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써 장차의 직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중심으로 어려서부터 깨우쳐 가야 하는 인간성장의 중요한 과정이다. 자녀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진로를 지도하는데 있어 먼저 진로지도 방법과 중요성을 인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단 부모가 자녀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 자녀들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녀 스스로 자신의 흥미, 성격, 적성, 가치관 등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성격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성, 즉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일관성 있게 애정을 가지고 지도함으로써 소유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에도 합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성격을 소유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 직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거시적으로 보는 시야가 좁게 되는데, 부모가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5년간 직업전망을 파악하는 것은 자녀 진로지도에 효과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발맞춰서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진학 및 교육훈련 기회, 필요한 자격증에 관한 내용 또한 부모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진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인터넷 세대임을 감안하여 사이버 상담 등을 통하여 또래 친

구들의 상담사례를 참고하거나 직접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업관련 정보를 찾는 방법 등을 익히게 하여 본인이 원하는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도과정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더 나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농촌자녀들은 도시 아이들과 비교하여 성장할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상실해 가는 경향이 있다.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들의 일상적 생활과 학교의 교과내용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도시 중심의 중산층 가정의 시각에서 쓰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매체도 농촌자녀들의 기를 죽이는 데 한 몫하고 있다. 드라마의 내용이나 배우들의 의상과 태도, 대화내용이 모두 농촌지역의 실정과 거리가 멀다. 더 나아가서 다르다는 인식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것은 열등하고 대중 매체 속의 것은 우등하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교정시켜 주는 것은 어른의 몫이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도 대다수가 도시에서 자랐거나 학교를 마쳤기 때문에 농촌의 것을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한 편이고 부모들 역시 대중매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오히려 모방에 앞장서는 경우마저 있다.

이러한 상황이 농촌 자녀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녀교육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자녀가 하는 일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자녀로 하여금 자신감을 다소 회복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학부모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부모 자신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역할을 찾거나 자녀의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학부모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IV. 현대 사회의 가족 및 교육문제

날로 급변해가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가족 자체의 제도나 기능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으로 가족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뚜렷하게 설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집중 현상은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붕괴와 핵가족화를 초래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족에 가족계획은 가족의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 가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자녀의 노후의 생계 수단으로써 역할의 중요성이 컸으나 오늘날에는 가족의 계승 개념과 함께 점차 퇴색해지고 있다.

이와같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여건, 개인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형태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전통적인 삼대 직계가족의 구성은 핵가족으로의 변화와 함께 가족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와 같이 현대의 가족은 가족의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문제,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가족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교육 문제, 핵가족화에 따른 노후문제 및 고부갈등 등 여러 가지 가족적·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회가 건전하지 못할 때 여기에 속하는 가정이 건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이 건전하지 못할 때 사회가 건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가족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좋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어떻게 제대로 교육받을 것이며, 또한 결혼하여 바람직한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그들이 이룩할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한 가

족의 문제는 장기적이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결국 인간은 개인, 가족, 사회로 연결된 관계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회정책을 실시하여 현대의 농촌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을 둘러싼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족구성원들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규원, “농촌의 자녀교육, 어떻게 할까?”, 「여성농민과 복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pp.100-109, 2001.
- 김보경, “농촌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여성농민과 복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pp.110-115, 2001.
- 농촌진흥청, 「화목한 가족관계」, 1997.
- 송해균, “농촌자녀의 교육방법”, 「농업 경영인과 교양(2)」, 공주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pp.211-227, 2000.
- 옥선화, 「농촌가족에서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1990.
- 유영주 외 2인, 『가족관계학』, 교문사, 1975.
- 이현송, 「가족의 생애주기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학』, 30, pp.759-777, 1996.
- 주정일, 「가족관계와 아동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 pp.493-500.

농촌자녀 학습지도 방법

김진화

서울대학교

-
- I. 농촌의 자녀 교육
 - II. 자녀 학습지도 환경 조성
 - III. 자녀의 학습 계획 수립 방법
 - IV. 자녀의 독서지도
 - V. 자녀의 공책정리 방법 지도
 - 1. 자녀의 공책 정리 방법 점검
 - 2. 공책 정리의 원칙
 - 3. 공책 정리의 구체적인 방법 3단계
 - VI.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자녀에게 알려주기
 - 1. 학교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
 - 2.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찾아라
 - 3. 목표의식을 갖고 학습하자
 - 4. 적절한 학습계획을 세우자
 - 5. 수면 관리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 6. 두뇌회전을 빨리 하는 요령
 - 7.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자
 - 8. 학습시 나쁜 습관을 버리자
 - 9.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 VII. 자녀의 학습지도를 위한 상담 사례
 - 1. 학습을 잘하고 싶어요
 - 2. 학습방법에 대해 (기억력과 이해력)
 - 3. 학습이 지겨워요
 - 4. 학습계획서 작성 및 실천이 어려울 때
 - 5. 이해력은 좋은데 암기력이 부족합니다
 - 6.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 7.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 8.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져요
 - 9. 집중이 안될 때
 - 10. 공부하고 싶지만 기초가 부족해요
 - 11. 싫은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
 - 12. 공부하는 방법 습득하기
 - 13. 잠이 너무 많은데 이길 방법 없나요?
 - 14. 야동기 공부하는 습관 키우기
 - 15. 성적이 떨어집니다
 - 16. 시험이 다가와서 마음이 불안해요
 - 17. 성적이 나쁜 과목을 포기하는 문제
 - 18. 시험을 두고 컨디션을 조절하지 못하는 청소년
 - 19.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습관
-

농촌자녀 학습지도 방법

I. 농촌의 자녀 교육

농촌에서의 자녀교육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자녀의 학습지도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녀의 학습지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에서 자녀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거리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렇다고 자녀의 학습지도를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 최근 부모가 학교교육을 전적으로 대신하고 학교교육을 보조하는 교육시스템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홈스쿨링 제도가 등장할 정도로 이러한 경향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제 농촌지역에서도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바쁜 농사일로 어려움이 많지만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자녀학습지도에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내 자식의 교육은 전적으로 학교에 떠넘기는 시대는 지나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하는 파트너십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이 장은 농촌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다.

Ⅱ. 자녀 학습지도 환경 조성

자녀 학습지도를 위해 부모가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자녀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①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조용한 학습장소를 고른다.
- ② 장시간 이용하기 좋은 조명이나 의자를 마련하라.
- ③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준비하라.
- ④ 공부에 불필요한 잡지나 서적은 치워라.
- ⑤ 공부를 도와줄 선생님이나 친구를 찾아라.
- ⑥ TV 라디오를 멀리하라.

Ⅲ. 자녀의 학습 계획 수립 방법

자녀의 학습 계획 수립에 학부모의 적절한 개입과 도움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는 “그릇된 공부 방법과 습관으로 학습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녀의 학습지도의 출발은 자녀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와주는 것이다.

학습계획은 자녀와 함께 일년 계획, 한달 계획, 일주일 계획, 일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와 함께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일년계획

- ① 1년 달력을 준비한다.
- ② 학교 행사, 시험기간, 방학 등을 표시한다.

- ③ 중간고사, 기말고사 2주 앞에 표시한다.
- ④ 모의고사 1주 앞에 표시를 한다.
- ⑤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학습할 과목과 학습량을 설정한다.

2. 한달계획

- ① 달마다 학습, 혼자만의 시간, 노는 시간 등의 종류, 강도, 시간 등을 다르게 계획한다.
- ② 1달 계획은 각 주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한다.

3. 일주일계획

- 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한다.
- ② 그 시간 안에 할 학습 분량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③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 ④ 토막시간을 활용한다 - 쉬는 시간, 점심시간, 화장실에 있는 시간, 차 기다리는 시간 등.
- ⑤ 매일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 안에 학습하도록 한다.
- ⑥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 ⑦ 실제학습한 분량을 매일,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⑧ 부모님께 쉬는 시간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시간표 제시).
- ⑨ 일주일에 하루나 반나절 정도는 쉬도록 한다.

4. 일일계획

- ① 일주일 계획표를 참고하여 정해져있는 시간을 확인한다.
- ② 하루 일과 중 꼭 해야할 중요 내용을 정한다.
(학교 수업, 학습, 과외, 학원, 휴식, TV 시청, 친구와 놀기, 오락, 세면, 잠 등)

- ③ 학습할 분량을 적절히 배분한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한다.
- ④ 그 날 학습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여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정한다.
- ⑤ 가능하면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평가를 하도록 한다(잠자기 전 10분 정도).

IV. 자녀의 독서지도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의 비유를 풀어보면 자식에게 결과를 주지 말고,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된다. 이 말을 다시 요즘의 교육 현상에다 대입시켜 보면, 머리 속에다 지식을 넣어 주지 말고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자식에 관계된 이미지 중에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는 아마 책을 읽고 있는 자녀의 모습일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책을 읽고 있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 희망적인 생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독서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이미 부모들이 경험하여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독서는 모든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는 자녀가 독서에 열중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V. 자녀의 공책정리 방법 지도

자녀의 학습과정을 진단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가를 진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최소한 학교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공책을 정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공책을 잘 정리하는 학생의 경우가 시험성적도 좋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여기에서 자녀

들이 자신의 공책 정리 방법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지침들을 살펴보자.

1. 자녀의 공책 정리 방법 점검

- 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적는다. (예, 아니오)
- ②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함께 적는다. (예, 아니오)
- ③ 공책을 깨끗하게 쓰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예, 아니오)
- ④ 경청하면서 동시에 필기를 한다. (예, 아니오)
- ⑤ 공책 정리를 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 ⑥ 친구가 만들어 놓은 질문을 베껴온다. (예, 아니오)
- ⑦ 공책 정리를 할 때는 약자, 짧은 구 등을 활용한다. (예, 아니오)
- ⑧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공책을 복습하고, 요약내용을 적어둔다. (예, 아니오)

2. 공책 정리의 원칙

공책정리를 할 때 다음의 세 가지 활동을 거의 동시에 해야 한다.

- ① 들으면서 동시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머릿속으로 등록시키고 받아들이기
- ② 받아들인 정보를 머릿속에서 처리하여 핵심 요점, 관련된 세부 내용을 찾아내기
- ③ 핵심 요점 및 관련된 세부 내용을 나중에 다시 읽을 때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책에 적기

3. 공책 정리의 구체적인 방법 3단계

1) 수업 시작 전의 준비

- ① 공책을 준비한다.
- ② 수업을 듣기 전에 배울 부분을 미리 예습한다.

시간이 없으면 훑어보기만이라도 꼭 하기

2) 수업 중의 필기

① 공책 정리해야 할 내용 (무엇을 정리해야 할 것인가?)

⇒ 중요한 내용만을 선택하여 의미가 통하는데 꼭 필요한 정도로만 공책 정리한다.

ㄱ. 먼저 경청하라. 핵심 요점이 무엇인지를 경청한 다음, 쓰기 시작하라.

ㄴ. 요점을 찾아내는데 단서가 되는 것에는 다음의 4가지가 있다.

-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목소리의 높낮이, 평소의 습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 일반적 진술(세부적 내용 없이 진술한 것)
- 번호를 매겨놓은 항목
- ‘이유’, ‘결과적으로’, ‘그러하므로’ 등의 단어가 있는 내용

ㄷ. 칠판에 적어놓은 것은 모두 적는다. 설명과 예도 기록

ㄹ. 정의는 모두 기록하고 밑줄 긋기

ㅁ. 공책의 오른쪽 윗 부분에 연월일, 강의명 적기

② 공책정리 방법

ㄱ. 수업 중에 빠르게 쓰되, 체계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

ㄴ. 깨끗하게 적어서 다시 읽을 수 있도록 하되, 너무 예쁘게 쓰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 것

ㄷ.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쓰려하지 말고, 중요한 메시지 중심으로 자신이 이해한 말로 쉽게 바꾸어 요약

ㄹ. 가능하면 약자를 사용, ~, ※, →, ∴, ∵, ☆, ×, ±, —, ÷, ?, ! 등

ㅁ. 자신의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을 구분해서 적어두기

예) (), 나의 의견, 선생님 왈 등

ㅂ. 요약 정리의 전략에서 배운 것처럼 짜임새 있게 번호를 매기고 요점과

세부내용 정리

- ㅅ. 주제 및 주제의 핵심내용을 적기 위해 오른쪽, 왼쪽에 여백 남기기
- ㅇ. 한가지 제목에 관련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따라올 때는 일련번호 붙이기

3) 수업 후의 공책 정리

수업을 마치고 공책필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지 말 것
수업 끝난 직후에 짧은 시간만이라도 복습하면 매우 효과적임

- ① 분명하지 못한 내용 :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확인하든지 선생님께 질문하여 교정, 보충 잊어버리기 전에 빠져있는 정보들을 적어 넣을 것
- ②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해가면서 해당부분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주제)를 오른쪽 여백에 간단히 적고, 왼쪽 여백에는 주제의 기본 내용(핵심 요점)을 찾아서 적는다.
- ③ 복습하면서 재정리할 때 : 여백에 적혀있는 주제만 보고 핵심요점을 떠올리고, 핵심 요점을 보고 전체 내용을 떠올리도록 한다.

VI.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자녀에게 알려주기

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자녀에게 알려주자.

1. 학교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학습은 학교수업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평상시 학교수업이 있을 때는 학습을 학교수업 내용 중심으로 자습서나 참고서를 활용하자. 토요일, 휴일, 방학에는 별도의 자기 계획을 세울 수는 있다.

2.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찾아라

사람마다 자신이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1) 밤에 집중적인 스타일 : 밤늦게까지는 잘 견디지만 새벽에는 못 일어나는 학생

2) 새벽에 집중적인 스타일 : 초저녁에는 잠이 많지만 비교적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는 학생

3) 일반적인 스타일 : 보통 고교생은 12시경에 수면을 취해서 6시 전후에 일어나

4) 새벽 또는 아침 식사 전에는 어문계열과 사회계열학습이 효과적이다.

예) 국어, 외국어, 사회 등 암기과목

5) 밤늦은 시간 학습에는 수리탐구계열이 효과적이다.

예)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3. 목표의식을 갖고 학습하자

1)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책상에 앉았으면 반드시 목표의식을 갖고 학습한다.

2) 목표의식을 갖고 학습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4. 적절한 학습계획을 세우자

1) 계획 없는 행동은 무모하고, 계획만 짜고 실천을 못하면 탁상공론이 된다.

2) 비교적 적절한 계획과 결단력 있는 행동의 조화만이 학습의 승리자가 된다.

3) 월간계획, 주간계획을 세우는 것도 유익하다.

4) 계획이 없이 무모하게 벼락치기 학습하면 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진다.

5. 수면 관리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 1) 수면 관리는 입시에 필수적인 성공요인이다.
- 2) 잘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숙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 3) 다리는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잠자리를 마련하자.

6. 두뇌 회전을 빨리 하는 요령

- 1)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주의 집중 및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된다.
- 2) 집에서 학습할 때 가끔 차가운 물로 세수해서 머리를 식혀주자.
- 3) 식사는 약간 모자랄 정도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식사시간이 아니더라도 위에서 소리가 나거나 출출할 때 약간의 간식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배가 너무 부르거나 너무 고프면 신경이 그쪽에 쓰여, 제대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없다.

7.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자

- 1) 비록 학기초에는 이러한 것이 쉬워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쉽지 않다.
- 2) 특히 예습과정에서 이해되지 않은 것을 학교수업을 통해서 이해되었을 때 반드시 복습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개념적인 이해를 얻도록 하자
- 3) 모든 일에 처음과 끝이 중요하듯 학습도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

8. 학습시 나쁜 습관을 버리자

- 1) 학습시 주의를 분산시키는 습관 예를 들어, 볼펜 돌리기, 음악듣기, 다리 흔들기, 다른 일 참견하기, 왔다갔다 하기, 책을 들고 다른 생각하기 등 이러한 습관을 가급적 자기만의 방식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책5권 읽는 효과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

9.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 1) 수업시작 2~3분전에 교과서와 공책을 꺼내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훑어보고, 지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 2) 수업 시간에는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설명을 듣는다.
- 3) 모르는 사항은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질문한다.
- 4) 수업이 끝나면 약 2~3분 동안 그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머리 속으로 대략 정리해본다.

VII. 자녀의 학습지도를 위한 상담 사례

실제로 농촌지역에서 자녀의 학습에 대한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당황하게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 많은 상담 코너가 있다. 이러한 상담 코너를 활용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세계, 그리고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다. 그리고 각 시·군의 청소년상담실이 개설되어 있으니 그곳을 찾아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자녀의 학습과 관련하여 상담사례를 몇 가지 제시함으로써 자녀의 학습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1. 학습을 잘하고 싶어요

학습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아주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 것도 당연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목표를 위해 자신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평상시 예습 복습을 팽개쳐 두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오락실, 만화, 잡지보기 등 순간의 즐거움에만 신경을 쓴다면 당연히 성적은 낮게 평가되어 나올 것

입니다. 물론 자신의 생활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요. 그래도 노력은 해보아야지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좋아하는 과목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학습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관심이 없었던 예를 들어 수학, 과학, 사회도 한번쯤은 더 봐지지 않겠어요. 요즘 거의 보급되어있는 그리고 컴퓨터와 매우 친하다는 것도 장점일수 있으니 시간조절을 잘못하거나 정서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단순히 오락 같은 것만 하면 컴퓨터는 백해무익한 존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마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너무 조급해 하지 말란 것입니다. 비록 내가 고3이든 중3이든 늦지 않았다는 점이며 자신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어질 수 있는 것이 학습예요. 학습을 잘하는 길은 무척 단순합니다. 보다 열심히 주어진 과목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무리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완수하지 못해 자신의 실력을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군요.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꼭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단지 성적만 좋게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의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는 학습을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시기에 학습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보충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더 학습을 해 뒤야 합니다.

모든 학습을 완전하게 해내려는 마음, 아무 뜻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려는 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의 양이 많아지는데 대한 부담감, 복잡한 주위 환경, 떨어지는 집중력... 이런 것들이 학습을 못하게 하고 성적도 뒤떨어지게 합니다.

2. 학습방법에 대해(기억력과 이해력)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기억력과 이해력에 대해서 비교적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인지기능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추정됩니다.

먼저 기억력을 향상시키려면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심리적 안정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집중하여 기억하려는 분야에 대해 ‘왜 이렇게 ○○○분야는 잘 안되는지 몰라’라는 식의 인식을 가급적 하지말고 그 분야에 대해서 반듯이 암기해야겠다는 식으로 덤벼서도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억력을 향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 큰 흐름(맥락)에 따라 그 분야를 보는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암기해야겠다 라는 생각보다 그저 이해해야겠다 혹은 단순히 흐름을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정보가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는 그 날 학교나 학원에서 학습한 것을 반드시 복습합니다. 그 중에는 암기할 것도 있을 겁니다. 학습은 보통 50분 동안하고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학습을 한 후, 10분 동안 복습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그 학습에 대한 기억력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경과 뒤 다시 그 학습 내용을 5분간 복습을 한다면 일 주일 정도는 거뜬히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 주일 뒤 다시 10분 정도 한다면 한 달 동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부터는 가끔 씩 슬쩍 훑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방학중에는 한 학기간 학습한 것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변하여 영원히 잊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3. 학습이 지겨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비교적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때로는 학교 가기도 싫어지지요. 특히 학습을 지겨워하면서 아주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예전에는 성실한 학생이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에 흥미와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흔히 나타났다가 사라

지는 현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학교 생활이 지겹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학습하는 것보다 다른 영역이 오히려 더 흥미를 느끼는데, 미래를 위해 학습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학습은 하기 싫어지고 그 결과 성적이 떨어지며 주위의 걱정과 핀잔을 듣게 되고 급기야는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어른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한 느낌을 전혀 알아주지 않으며 다만 그 상황을 참고 견뎌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지요. 그러나 어른들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학습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학습하는 것이니까요. 학습이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당장은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보낸 사람은 독립심이 강하고 자유롭습니다. 향후 직업을 고를 때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지도자도 될 수 있습니다. 참된 교육을 통하여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다 확고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금 학습이 지겨워서 피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겠지요. 학습이 지겨운 것은 이해가 가나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어떨까요. 겨울에 심한 독감이 유행할 때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아프다고 안 맞는다면 그만큼 심한 독감에 걸릴 확률이 높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당장 괴롭고 힘들지만 학습을 지겨워하고 포기하는 것은 아프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거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처음에는 의욕이 생겼다가도 새로운 상황에 조금 익숙해지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청소년기에는 적응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매일 매일 많은 것들에 적응해나가야 하니 까요. 요즘 학생들은 매우 바쁩니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때로는 개인지도 까지 받아야 하고 한가한 시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놀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영화도 보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학습계획서 작성 및 실천이 어려울 때

학습계획 작성과 그 계획에 따른 실천이 어려운 경우는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합니다.

첫 번째는 학습계획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먼저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두는 것, 즉 학습에 대한 의지입니다. 내가 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야겠다. 성적을 어느 정도 내가 정한만큼 올려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것이 흔히 50 퍼센트 정도는 성공했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말이 설사 관례적으로 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단지 계획만 세우고 학습해야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는 다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학습은 대부분 의지의 설정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의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계획해서 목표를 이루고 말겠다는 중기 혹은 장기전략에서 출발한다고 봐야되죠.

두 번째는 실천이 어려운 경우인데 이때도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수행해야겠다는 의지가 90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을 경우에 중도에 포기하게 되며, 나중에는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힘들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악순환이 되면서 '나는 안돼'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들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설정한 학습계획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차 자신을 비하시키고 무능한 존재로 인식시키게 되는 위험요소가 있다는 점

이 위험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목표의 성공을 위해서는 계획은 너무 거대하고 포괄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비교적 일주단위로 세분화하여 역량에 맞는 학습 분량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심리적으로 항상 자신을 긍정적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마도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 거야’ 혹은 ‘나는 이번에 할당된 분량을 아마도 마스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도 은연중에 스스로에게 큰 정신적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계획 짜는 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단해야 하며 복잡하면 안됩니다. 하루 중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만 계획하세요.

둘째,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밥 먹고 학습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학습하고 잠깐 운동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쉴 새 없이 학습에만 중점을 두는 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셋째, 즉시 실천합니다. 내일부터 하도록 하는 계획은 곤란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일 년 365일 하루도 빠짐 없이 실천하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변명을 해가며 실천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내가 통제하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계획은 내가 세웠으니 실천을 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합니다.

여섯째, 나와 확실히 약속합니다. 불안하다면 부모님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습하는 시간이라고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 반대는 패배자겠지요.

5. 이해력은 좋은데 암기력이 부족합니다

암기력이란 말보다 기억력이란 말이 더 바람직 할 것 같네요. 기억력은 누구나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유난히 뛰어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암기 위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창의성을 묻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창의성을 객관식 문제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응용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용력을 물어지라도, 무엇인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억량을 늘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복습입니다.

- ① 한 번의 복습이 아니라 반복적인 복습입니다.
- ② 그 날 배운 것을 그 날 복습해야 합니다.
- ③ 그 다음에는 일주일 배운 것을 주말에 한 번 전체적으로 복습합니다.
- ④ 그리고 방학 때는 지난 학기 중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합니다.
- ⑤ 이 것을 더 세분해서 중간에 월별로 한 번쯤 더 복습하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 ⑥ 인간은 한 번 배우면 잊게 되어 있습니다.
- ⑦ 반복된 학습 없이는 누구도 영원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학습으로 오래 남는 기억을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장기 기억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걱정하는 마음들은 성적을 오르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간 일들은 접어두세요.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이 자신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을 억울해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자꾸 옛날 생각을 하다보면 억울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면 공부도 효과적으로 되어지지 않거든요. 필요한 것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

다. 같은 시간을 앉아서 공부하더라도 안정되고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면 능률이 오르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부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그 사람의 성격, 습관 등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거든요. 성격은 어떤지요. 남이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자신의 성격과 취향에 맞게 알맞은 공부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습관은 어떤지요? 바람직한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면 낮에 학교에서 하는 공부나 또 학교에서 보는 시험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수면 습관을 조절하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12시 이전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바꾸어보세요. 아침에 좋은 기분으로 학교에 가면 수업의 효과도 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다 보면 걱정하는 마음만 앞서게 되어서 공부에 능률이 오르지 않으니깐요. 시간을 멀리 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것입니다.

7.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성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에게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학년에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군요.

국어와 암기과목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국어와 암기과목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영어와 수학은 사실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영어 참고서적이거나 수학 참고서적 같은 책들은 물론 빨리 보면 좋지만 지금은 봐도 무슨 애긴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먼저 충분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 거의 책을 외울 정도로 읽고 또 읽고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의 고사는 몰라도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게 될 것이고 점차 영어에 자신감도 붙을 것입니다.

수학은 교과서를 택하는 것이 좋겠지만 때로는 문제집도 좋겠습니다. 문제집은 여러 권보다는 딱 한 권만 사서 그곳에 나오는 문제들을 거의 외울 정도로 여러 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수학이나 영어는 보통 암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만 처음에는 외우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단어나 공식 같은 것은 암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영어 참고교재나 수학 참고교재 같은 책들은 고등학교 1학년 방학이 끝날 때까지 개인적으로 한 두 번 정도 봐두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서두르거나 급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평시에는 학교 일정에 맞게 예-복습을 하고 방학이 되면 나름대로의 시간을 할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영어나 수학 중에 좀더 자신 있는 것을 택해서 다른 과목보다 2배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범위 안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반복 학습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다른 암기과목을 소홀히 하지는 마십시오.

8.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져요

일부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보다 2학년 때가 그리고 3학년에 올라오면 더 성적이 떨어지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고1 때는 다소 황당한 마음이 들 정도로 성적이 떨어지며 고2 때는 그보다 더 낮은 성적으로 받게 되면서 점차 성적과 학교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학교성적을 걱정하는 마음 이해되어요. 나름대로 자신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마음도 느껴지고요. 성적에 대하여 숨기고 싶고 심지어 부모님께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심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두번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그 후 아주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더 많

이 떨어지면 점차 무력해지는 수순을 밟을 수도 혹은 자신에게 화를 낼 수도 혹은 아예 포기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떨어졌다는 사실에 중심을 두지 말고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그때부터 분발하여야 합니다. 공부 시간, 공부 방법, 공부 패턴 등을 검토하고 비효율적이고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조사해서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 선배, 언니, 형들에게 물어 볼 수도 있으며 자신의 상황과 공부 방법 등에 대하여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자세히 말씀드린 후 상담하고 새롭게 방향을 잡는다면, 당장은 성적이 바로 향상되지 않을지라도 노력한 만큼 결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거나 지치는 경우가 있다면, 친구들과 도서관을 같이 다니거나 공부방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며 서로 힘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같이 공부하는 경우 공부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지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마음의 정리가 잘 안될 경우 계속 임상심리전문가나 상담심리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그들은 언제나 개방적이며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9. 집중이 안될 때

일을 할 때 집중을 하면 오랜 시간동안 그냥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을 기르는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에요.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한 번에 한 가지만 해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세요. 자신에 대해 실망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신감을 쌓아가는게 필요해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을 잘 정리, 정돈하고 또 잡음이

나 조명등에도 신경을 써서 집중에 도움이 되도록 변경하세요. 학교, 독서실, 혹은 자기 방 등 어느 곳에서 더 집중이 잘 되는지를 잘 관찰해보고, 집중이 잘 되는 시간도 찾아보기 바래요. 가장 효율적인 시간에 공부를 한다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클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되는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가벼운 체조도 바람직 한 것 같아요.

계획은 많이 세워놓았는데, 실제로 공부한 양은 얼마 되지 않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허탈하고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답답하며 때로 자기에 대한 실망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해낸다는 원칙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계획을 많이 세우는 그만큼 많이 실패하고 자신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계획이 거창한 만큼 오히려 더 부담스럽기도 하구요. 그러니, 계획을 좀 줄여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중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집중을 하면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기술을 기르는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집중은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예요. 집중하면 적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집중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

- ① 집중하려면 딱딱한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앉는다.
- ②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서두르지 말고 차분한 마음을 갖는다.
- ③ 집중이 안될 때는 감정을 발산하라. 운동을 통해 발산해도 효과적이다.
- ④ 심호흡도 심신의 안정을 가져온다.
- ⑤ 아무리 집중하려 해도 안될 때는 즉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다.
- ⑥ 매일 잠자리에서 특정한 분야를 개략적으로 헤아려 본다.
- ⑦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쉬운 과제부터 해보거나 주변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한다.
- ⑧ 집중이 안되어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경우를 상상해 본다.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기에 자신이 직접 고르시고 자신에게 잘 맞는 다른 집중 방법들도 찾아보세요. 집중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10. 공부하고 싶지만 기초가 부족해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것 같아도 정규 학교수업의 양은 매우 많은 것이며, 과목도 많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학교수업이 있는 등 보충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이나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쫓아가서 다시 어느 정도의 실력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어렵고 힘들고 때로 고민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적극적이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족한 부분뿐 아니라 교과서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게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① 포기하지 마시다.
- ② 자신감을 갖고 나는 기초가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채우고 말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 ③ 내가 부족한 기초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과목의 어느 부분이 내가 잘 못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자신이 할 수 있는 공부의 양을 토대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⑤ 그리고 공부할 내용을 전반적으로 대충 검토하기(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음).
- ⑥ 다시 공부할 내용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모르는 부분, 처음 같은 느낌이 드

는 부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 ⑦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연필로 궁금증을 적어 놔둘 것.
- ⑧ 책의 저자가 쓴 심화 문제, 탐구 문제 등을 풀어볼 것.
- ⑨ 지금까지 체크한 부분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영역으로 이제 체크한 부분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하나씩 그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 ⑩ 해결된 부분은 ‘완료’ 혹은 ‘해결’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표시를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 ⑪ 이렇게 해결된 후 다시 그 책을 전반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체크한 것은 해결이 되었으나, 그래도 모호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전과 다른 체크(예를 들어 Q)라는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 ⑫ 책을 다 읽은 후에 내가 체크한 Q라는 표시에 대해서 답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찾은 다음 책을 읽어보세요.
- ⑬ 이번에는 비교적 읽어 내려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초가 부족한 부분의 책 내용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방법 말고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 싫은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학원을 가서 수업보충을 하면 된다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싫어하는 과목을 좋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싫어하는 과목을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단계적으로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 나는 그 과목을 싫어하는가? 처음부터 싫

어렸는가 아니면 어떤 원인으로 인해 싫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싫은 것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선뜻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처음부터가 아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싫어진 과목은 그 원인을 캐어내어 그것을 제거하면 훨씬 상태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구분이 내부요인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이 우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가정에서의 학습태도 및 학습에 대한 결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많고 단지 개인적 자질이나 역량 때문에 특정과목을 싫어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비록 어떤 과목에 대해서 무조건 싫다 혹은 이유 없이 싫다는 것도 조사해 보면 그 원인이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싫은 과목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원인으로 그 과목이 싫어졌을 때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변 친구 부모 선생님 혹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설사 그런 지도를 받지 않더라도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생각 이상으로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싫어하는 과목이 있으면 자신감 및 의욕 상실로 이어지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열심히 공부해도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여야 합니다. 어렵고 싫어하는 과목일수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성적이 향상됩니다.

② 장래의 목적과 그 과목간의 관계를 이해해 둘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해 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 혹은 관심분야에 진출이라는 목표가 분명할 때는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③ 학습 방법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싫어하는 과목의 공부 패턴을 적절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공부할 때의 방법 여하에 따라서 흥미가 변할 수 있습니다.

④ 목표를 세워서 학습하라. 단순하게 맹목적인 방식으로 수동적 학습은 오히려 싫어하는 과목을 더 싫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⑤ 틀린 답은 꼭 기억해 두어라. 특정과목에 틀리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틀린 답을 꼭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틀린 것을 자꾸 반복해서 틀리게 되는 것은 틀린 것을 그냥 두기 때문입니다.

⑥ 싫어하는 과목에 대한 꾸준한 노력으로 실력이 향상을 부분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적이 올랐다면 점차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12. 공부하는 방법 습득하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지능, 학습 환경, 동기 유발 등의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효율적인 공부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다. 특히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는 공부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터득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너무 늦게 터득하는 사람들은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이것은 상급학교의 진학 후 매우 큰 문제가 되어서 청소년에게 압력요인이 될 수 있다.

다음은 공부 방법입니다.

첫째 자신의 학습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둘째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아무 때나 공부하면 공부를 하는 행위가 습관처럼 몸에 배지를 않습니다. 공부는 습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하겠다는 계획표를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부하는 시간에 해야 될 것을 과목별로 구체적인 양을 정해야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라기 보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과목 ○○페이지 에서 ○○페이지까지’라고 정해 놓으면 시간만 때우는 좋지 않은 습관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계획표의 단위는 일주일이 적당합니다.

첫째 공부는 하고자 하는 순간에 곧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효과적인 책읽기 전략은 ‘자세하게 한 번’ 보다는 ‘대충 여러 번’이 좋습니다.

셋째 시험 준비도 요령 있게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험 준비를 할 때, 공부할 과목의 순서는 어렵고 싫어하는 과목부터 해야 합니다. 다음에 쉽고 재미있는 과목을 공부할 것이라는 기대가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루에 두 과목씩 공부할 것이라면, 중요하고 부담되는 과목과 가볍고 재미있는 과목을 짝 지워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잘 듣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과외나 학원에서 진도를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배우면서 주의집중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좋지 않은 수업 태도가 습관화되면 여느 버릇과 마찬가지로 상급 학교에서도 그대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13. 잠이 너무 많은데 이길 방법 없나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잠이 많고 어떤 이는 잠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또한 연령별 특색이 있어요. 다들 아는 것처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등은 잠이 적을 수 있으며 어린아이 특히 신생아는 하루 중 상당시간을 잠을 자야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잠(수면)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수면은 질병, 과로, 임신, 스트레스, 정신기능 과다 등이 있을 때 그 요구가 많아진다. 낮 동안 소모되고 손상된 부분(특히 중추신경계)을 회복시켜 주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수면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감정조절기능. 불쾌하고 불안한 감정들이 꿈과 정보처리를 통해 정화되어 아

침에는 상쾌한 기분을 갖도록 해줍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우울감과 수면의 관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나면 우울한 감정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거나, 어떤 사람들에서는 수면이 우울감을 악화시킵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정신이 흐릿하고 졸리운 경우는 쉽게 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과수면 중에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가장 많은 원인으로서는 수면 무호흡과 같은 호흡장애와 관계된 과수면증, 기민증(낮에 지나치게 졸리운 증상과 함께 자기도 모르게 1~15분 정도 잠에 빠지는 특징을 주증상으로 나타남)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일교차, 성장애, 약물 및 정신질환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뚜렷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원발성 과수면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수면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① 밤에는 자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밤 시간을 잠을 줄이면서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② 평소 신체상태를 건강해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몸의 모든 기능을 제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 몸살-감기에 걸릴 경우 그렇지 않는 친구보다 쉽게 피곤을 느끼고 잠도 많아지며 설사 잠을 자더라도 개운하게 자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되요. 감기 한번 잘 걸리지 않는 친구가 유리하겠죠?

③ 적절한 수면량을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적정 수면시간은 약 6-9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개인차가 있고 개인별 습관이 다르기에 어떤 학생은 9시간을 자야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5시간 30분은 자야되는 학생도 있겠죠?

④ 공부하는 동안 졸리면 어떻게 하죠?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 참기 힘들 정도로 잠이 올 경우 기분 전환(예를 들어 바람을 쐬다던가, 체조한다던 가, 세수하거나, 주변사람과 얘기를 한다던가, 시

원한 음료수를 마시거나 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잠을 많다고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시고 충분히 자기 방식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주 심할 정도로 잠이 쏟아지는 과수면 상태일 경우 임상심리 전문가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4. 아동기 공부하는 습관 키우기

공부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싫어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를 닦는 것처럼 공부도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조금씩 해가면서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가 습관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부하는 장소로는 우선 책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책상이라는 장소와 공부하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굳게 연합해 놓으면 책상에 앉자마자 자연스럽게 책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책상이라는 장소에 공부만을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책상에서는 공부 이외의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에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논다거나 책상 위에서 음악을 듣거나 간식을 먹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책상은 오직 공부하는 장소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상이 공부하는 행동하고만 연합되어 있으면 책상에서 공부하는 행동이 자동적으로 몸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책상은 가급적 벽을 향하게 놓고 책꽂이는 책상 옆에 놓는 것이 좋으며 책상 위에 사진 액자나 액세서리 등은 가급적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시각적으로 주의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부하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공부 습관에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장시간동안 책상에 앉아있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공부하는 습관을 역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처

음에는 공부 시간을 작게 잡습니다. 잠깐 동안 할 수 있는 과제의 양을 정해 놓고 책상에 앉습니다. 그런 다음 매우 느린 속도이지만 점진적으로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도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이 많은 숙제를 할 경우에는 두 번 정도로 나누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학습지를 풀고 있는데 여러 학습지를 수행할 경우 내용이 중복되고 의외로 단순반복적인 성향이 되면서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습지를 너무 많이 하면 지겨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태도가 다른 영역에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15. 성적이 떨어집니다

중·고등학생때 자신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고민은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가정 및 학교생활에 흥미가 떨어지게 되죠. 물론 여건 및 개인차가 있겠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러하듯이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공부방법에 있는지? 공부방법이 아닌 다른 곳, 즉 개인적인 심리적 고민이 있어 심리적 에너지를 공부에 사용하지 못하는지? 공부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공부방법을 변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급격하게 바꾸지 마시고 완만하게 바꾸어야 하며 또한 공부시간, 공부계획, 공부태도,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겠지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자신의 학습 태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 ① 예습과 복습 : 예습은 복습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 ② 할당식 학습법 : 공부할 양을 정해 놓고 해야 능력이 오릅니다.
- ③ 효율적인 시간조절 : 낮과 밤 시간을 나누어서 학습 계획을 작성

④ 적절한 수면시간 준수 : 잠자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은 보약이며 잠자는 시간을 지나치게 줄이면 오히려 공부해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 쉬는 시간 같은 때는 그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기 집에서 10-15분 정도 시간에도 가벼운 학습내용을 읽어보기.

⑥ 중요한 것을 메모하는 메모장을 활용하기 : 간단한 단어나 공식을 적어 놔두면 좋아요 특히 쉽게 암기되지 않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으며 이것을 자투리 시간에 읽어보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⑦ 분산학습법을 사용하기 :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산학습이란 긴 시간 동안 휴식 없이 공부하는 것이다. 시간을 분산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⑧ 부분 학습과 전체 학습을 혼용하기 : 부분 학습이란 한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전체 학습이란 한 부분이 불완전하더라도 소설을 읽듯이 대충 끝까지 보고 다시 처음부터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수학·과학은 부분 학습이 좋고 국어, 영어와 같은 과목은 전체 학습이 좋습니다.

⑨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을 붙여야 합니다.

⑩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물건들, 그림, 잡지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공부하세요.

⑪ 너무 편안 자세는 긴장이 풀리고 졸음이 오게 합니다.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죠

⑫ 적절한 조명과 시력보호에 유념하기

⑬ 규칙적인 수면, 식사시간, 가벼운 운동, 적절한 휴식 등이 필요합니다.

⑭ 매사에 자신감을 갖기

⑮ 시험 때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짜서 예습 및 복습할 것

⑯ 교과서를 복습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시 참고 자료를 찾아 답을 얻는다.

⑰ 중요한 내용을 스스로 Q & A 방식으로 만들어 이해하기

⑱ 시험 전날은 충분히 수면을 취한다.

시험볼 때 주의사항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첫째, 지시사항을 주의 깊게 읽는 것

둘째, 되도록 쉬운 것부터 쓰고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룬다.

셋째, 시간조절을 잘하기

넷째, OMR 카드식 문제일 경우 문제지 번호와 답지 번호가 일치하도록 주의한다.

다섯째, 시험이 끝나고 이해가 안된 문제는 집에 가서 확인하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 방법을 전환하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혼자만 사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항상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공부이외의 것에 신경 쓰이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규칙과 목표를 갖고 있기에 이것을 참고 하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때로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물론 상심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해결의 범위를 넘는다고 생각하면 주변의 임상심리 전문가나 상담심리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그들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니까요.

16. 시험이 다가와서 마음이 불안해요

①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② 불안한 마음 없이 편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않다.

③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④ 먼저 불안으로 긴장된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이다.

⑤ 우선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심호흡을 크고 깊게 하고 몸을 쭉 뻗어 보세요.

⑥ 목, 어깨, 다리도 돌려보세요.

⑦ 일단 몸의 긴장이 풀리면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시험이 다가오면 과연 요인 때문에 자신이 불안에 휩싸이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준비를 하지 못해서 불안한지?

시험을 잘 보지 못할까봐 불안한지?

시험성적이 나쁘게 나왔을 때 부모님께 꾸중을 듣는 것이 예상되어서 불안한지?

성적이 나빠서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불안한지?

그 외 다른 이유가 불안을 야기하는지?

그러면 가상으로 다음을 상상해 보세요?

즉, 진짜로 시험 성적이 아주 나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생님이 나를 죽도록 때리나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고 놀려대나요?

세상이 멸망하나요. 당신의 죽기라도 하나요.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안상황이 다가오면 그때 당신에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증거는 무엇이지?

시험을 못 본다는 것이 그렇게 불안을 유발할 정도의 엄청난 일인가요? 그런 생각 자체가 불안을 해결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합리적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시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질 가능성도 높을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주변의 임상심리 전문가나 상담심리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아마도 그들은 매우 친절하게 심리학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한 번의 시험을 통해 평가받겠다고 생각하면 긴장되고 초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만약 시험 때 불안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공부 자체를 포기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불안이 그 정도가 지나칠 때 자신이 가진 실력을 제대로 발휘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곤 하죠.

자! 그러면 이 시험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불안하면 우선 신체반응이 나타납니다.

식은땀이 흐르거나 머리가 멍하거나 아프고 배도 아프고 기침이 나기도 하고 소화도 안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체 반응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우선 편안한 자세를 취해 보세요.

이때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심호흡을 크게 해 봅시다.

하나, 둘, 셋을 세며 천천히 숨을 크게 들며 마시고 다시 숨을 크게 내쉽니다.

이를 3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끝없이 펼쳐진 넓은 초원, 잔잔하고 푸른 바다, 그 속에서 여유 있게 걷고있는 자신을 그려보세요. 어떠세요.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그리고 가벼운 체조를 해보세요. 어깨도 돌려보고요. 목도 돌려보고요. 몸이 조금 풀리세요.

일단 몸의 긴장은 풀린 것 같은데 마음은 진정이 되셨나요? 아직 안되셨어요? 그러면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시험의 어떤 점이 가장 불안하세요?

시험준비를 하지 못해서 불안하세요?

시험공부는 했는데 시험을 잘 보지 못할까봐 불안하세요?

아니면 시험성적이 좋지 못할 때 부모님께 꾸중을 듣는 것이 불안하세요?

시험성적이 나빠서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불안하세요?

또 다른 이유로 불안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 번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를 상상해 볼까요?

진짜로 시험 성적이 아주 나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무너지나요.? 아니면 당신의 죽기라도 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사실 시험을 막상 끝나면 왜 그렇게 시험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는지 의아해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불안은 다음 시험 때도 어김없이 찾아오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심리학에서 인지상담 이론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근본적으로 생각이 감정과 행동의 뿌리라고 합니다. 인지상담 이론에 의하면 시험이란 사건 자체가 사람의 정서적 혼란이나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감정과 행동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불안 등은 자신이 갖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으로 생겨납니다.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암암리에 스스로 수없이 반복한 결과지요. 따라서 그러한 생각을 건강한 생각으로 바꾸려면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긍정적인 자기 언어를 적을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봅시다.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세요.

또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시험불안을 극복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시험불안을 감소시키기 방법들 즉, 감소되어야 할 자극 체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험을 치기 며칠 전 감정을 강하게 자극하는 음악을 듣지 않아야겠죠. 머리 속에 또렷한 기억이 남는 드라마나 영화는 보지 않고요.

친구들과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들의 공부량, 속도, 공부 방법에는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는게 좋겠죠.

그리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들 즉, 증가시켜야 할 자극체들을 정리하고 행동으로 옮겨 볼까요. 이를테면 긍정적인 자기-언어 목표를 책상 앞

에 붙여 놓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을 한 곡 감상한다면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시험불안도 없애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일단 시험 보기 2~3주일 전에 시험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과목/영역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거죠(모르는 것들이 많은 것 + 배점 비율이 높은 것+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 그리고는 가장 집중이 잘되는 시간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 별로 우선 순위 과목/영역을 배정해 보고, 이러한 시험계획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많이 알리고 협조를 구해 보세요. 다음의 주간 계획표에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몸을 이완시킨다고 해도 마음속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안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렵죠.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 가진 건강하지 못한 생각의 비현실성, 비논리적, 비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통해 본인의 건강치 못한 생각을 변화시켜 보는거예요.

당신이 시험성적이 나쁘면 사람들이 “에이 고작 그거?”라고 비웃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생각이 맞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이 맞다는 적절한 증거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인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각이 당신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당신이 원하는 바람직한 목적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또 당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말 시험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도 다양하죠. 지금까지 앞에 서 제시된 내용들은 당신이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있을 때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험불안이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소가 안되고 시험을 앞두고 전혀 시험준비를 할 수 없다면, 아

니면 시험 당시에 공부한 내용을 전혀 기억할 수가 없다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가이던스 사이트 전문상담실에 한번 문을 두들겨 보세요.

여러분은 만일 시험이 다가오고 점차 불안이 밀려올 때 다음의 대사를 읽거나 써 보세요.

① 나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이 점은 다른 모든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② 불안하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불안해진다. 자기 자신만 혼자 떨리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학생들도 상대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떨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중의 하나이다.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중요하다. 어차피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 시험장에서는 떨지 말고 미리 연습하자.

③ 공부 안한 부분에서만 시험이 나올까봐 불안하다. 수험생은 신이 아니기에 많은 문제 중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들이 끼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를 열심히 읽고 아는 문제만이라도 우선 실수를 하지말고 천천히 열심히 풀자.

④ 실수할까봐 불안이 심해질 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심할 뿐이다. 하지만 대개 시험에서는 평소보다 실수가 적어진다.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차분히 따르도록 하자.

17. 성적이 나쁜 과목을 포기하는 문제

절대 포기하면 안됩니다. 학교 시험이든 수능시험이든 1~2과목의 성적이 너무 뒤떨어지면 다른 과목의 점수로 그것을 만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전략 과목의 점수가 항상 잘 나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략 과목의 성적이 부진한 경우 시험 전체를 망치게 되지요. 또한 성적이 뒤쳐진 과목으로 인해 항상 느끼게 되는 불안감은 다른 과목의 공부도 방해하기 때문에 뒤쳐진 과목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성적을 꼭 끌어 올려야 합니다.

대개 성적이 나쁜 과목은 학생의 말처럼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이므로 자연스럽게 그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지게 되고, 저학년 때부터 계속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 실력도 부족하지요. 이렇게 뒤떨어진 과목은 절대로 조금하 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기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몇년전의 교과과정의 교과서 혹은 참고서를 구해서 기초부터 철저하게 공부해 볼 것을 권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절대로 단기간에 공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수학은 공부한 양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성적이 오르지 않다가 그 수준에 도달하는 순간 그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일시에 효과를 발휘해 성적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요. 이런 과정은 공부를 하는 도중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뒤떨어진 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기 중에는 한 과목의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으므로 방학동안 단단히 결심하고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방학기간을 놓쳐 버리면 뒤쳐진 과목의 성적을 끌어 올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필요하다면 특별지도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뒤떨어진 과목에 한꺼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그 과목을 공부하도록 하세요. 싫은 과목이라도 자주 접하다 보면 거부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18. 시험을 두고 컨디션을 조절하지 못하는 청소년

시험 보는 날 컨디션에 따라 시험 점수의 변동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1주일 정도는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생활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험의 특성에 맞게 일과표를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수능시험 시간에 맞춰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을 공부한 후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시험 시

간대에 낮잠을 자던 습관은 고쳐야 하며 수면 시간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치면서, 시험에 임할 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테스트 해보도록 하세요. 시험 날 아침식사는 죽, 스프, 찹쌀떡, 밥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아하는지, 시험 날 휴식시간에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간식을 먹는 것이 시험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한 다음, 중요한 시험 당일에는 자신의 시험에서 가장 좋았던 것들만 사용하고 새로운 방법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특히 시험은 머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예민한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무난한 방법일지라도 나에게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습관

자신의 경우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도 자기 능력의 전부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가사로 된 노래들은 가사가 곧바로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이 가사를 따라가게 되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지요. 라디오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의 심야 프로는 혼자서 공부할 때 고독감을 달래 주는 효과도 있지만, 라디오 진행자가 하는 이야기는 노랫말보다 더욱 귀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되지요.

템포가 빠른 외국 노래들은 어떨까요? 가사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빠른 템포의 노래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악의 리듬을 타게 되어 집중력이 낮아지고, 안정된 마음이 필요한 공부와 같은 작업은 좀처럼 진행이 되지 않지요. 템포가 빠른 곡은 단조로운 육체 작업에는 효과적이지만 머리를 쓰는 작업에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부할 때는 음악을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될 것 같으면 클래식이나 느린 박자의 재즈 같은 음악을 권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차분한 생각이 필요한 수학 문제 풀이나 국어, 영어의 독해력 공부 등을 할 때는 피하는 것이 좋지요.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보다 음악에 더 빠지기 쉬우므로 공부할 때 음악을 듣는 일은 피하고, 공부하다가 지루해지면 쉬면서 기분전환으로 잠깐씩 음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 고 문 헌

박영태, 『사랑의 학습지도』, 서울 : 학지사, 1999.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공부, 좀 쉽게 잘할 수 없을까』, 2001.

에듀넷([http : //edunet.nmc.nm.kr](http://edunet.nmc.nm.kr)).

청소년세계([http : //www.youth.co.kr/cd/cd00.htm](http://www.youth.co.kr/cd/cd00.htm)).

한국 4-H 본부([http : //www.4-h.or.kr](http://www.4-h.or.kr)).

한국농촌문화연구소·농촌진흥청, 4-H 이념 지육실천 프로그램집, 2000.

한국청소년상담원([http : //www.kyci.or.kr](http://www.kyci.or.kr))

농촌지역 자녀교육의 새로운 지평

윤 순 덕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I. 들어가는 말

II. 변화된 교육환경, 변하지 않은 농촌교육

1. 예전과 달라진 농촌의 교육환경
2.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농촌부모들의 자녀교육열!
3. 농촌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농사'
4. 농촌 자녀교육을 위해 지원은 되고 있지만...

III. 농촌자녀 교육의 새로운 인식

1. 달라져야 하는 교육에 대한 가치
2.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이 무엇보다 중요...
3. 부모노릇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배워야...
4. 농촌의 논, 밭, 들, 강, 산, 마을이 최고의 배움터!
5. 놀면서 배운다 : 농촌의 전통놀이문화

IV. 맺는 말

농촌지역 자녀교육의 새로운 지평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교육의 목표를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서 자식을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대학까지 가르쳐서 소위 성공시키기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교육 여건도 도시보다 뒤떨어지는 데다 도시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보낼라치면 먼저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촌 부모들은 그저 학비 마련하느라 일하기 바빠서 학교 공부만 시키면 자식교육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고생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라 크게 빼돌어지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해서 옛날에는 가난한 집 자식들이 공부를 잘 했지만 요즘은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을 키우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겠습시다. 모두가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너무 한 쪽에서만 바라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자녀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높은 성적만을 기대함으로써 자녀를 지나치게 학교교육에만 의존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담당해야 할 몫과 소양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농촌은 자식 키우기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만 잔뜩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먼저 세상이 변하면서 달라진 우리 농촌 교육환경의 변화된 모습, 그러나 변함 없는 농촌부모들의 자녀교육열, 그리고 농촌과 농업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 제도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자녀교육에 있어 농촌부모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크게 3가지 즉, 농촌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지 않았던 가정에서의 교육과 교육적 환경으로서의 농촌지역의 가치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변화된 교육환경, 변하지 않은 농촌교육

1. 예전과 달라진 농촌의 교육환경

과거 30~40년 사이에 농촌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농촌의 교육적 환경 또한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가 농촌에서 자식 키우기를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60년대 이후 농촌의 젊은이들이 학교나 취업을 이유로 도시로 떠나 그곳에 계속 정착하게 되면서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농촌에서는 40대면 젊은 사람 축에 들 정도니까요. 이로 인해 마을에서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느 도에서는 한 해 예산으로 15억 원을 책정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출산장려금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되다보니 어울려 놀 수 있는 같은 또래 아이들이 없어, 그렇지 않아도 수줍음 많은 농촌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를만한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각과 처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며 대변해 줌으로써 윗세대와의 생각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연장자인 청년층이 없음으로 인해 웃어른들과의 지나친 괴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텔레비전과 같은 매스컴의 발달로 농촌에 살면서도 농촌의 사는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를 보이는 도시 중산층 이상의 삶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서로 협동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 마을의 공동체적인 모습보다는 아파트 같은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생활과 직장에서의 경쟁적인 인간관계들을 더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촌 부모들은 자녀를 현대의 도시화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키우겠다고 맘을 먹게 되고, 자라나는 농촌 어린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생활을 동경하며 언젠가 도시로 떠날 것을 꿈꿉니다. 그러므로 농촌에 남아있는 유교주의, 가족주의, 집단주의와 같은 전통적인 관습들은 구시대의 낡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집안의 의례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집안일이나 부모의 농사일을 돕고, 웃어른을 섬기고 하는 생활규범들은 농촌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녀 훈육을 부모가 거의 전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집에 계셨고 형제 자매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결혼전의 삼촌이나 고모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친척들이 함께 사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이외의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경쟁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고 꾸중을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몸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 형제가 네 다섯 명을 넘는 게 보통이라 시골 좁은 방에서 여러 형제들끼리 부대끼며 자라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보와 질서 등의 공동생활규칙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맏이와 막내간에는 터울도 커 순위 형제로부터 키워지기도 하고 학교 공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 밖을 나서면 이웃에는 어른들이 계셨고 형이나 누나 동생뻘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유일한 훈육자가 아니었고 아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세상사는 이치를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가족이 현대적인 핵가족으로 바뀌고 다른 친척이나 이웃과 보내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자녀의 가정교육을 부모가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며 따라서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넷째, 집안의 어른이나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자녀 수도 감소하면서 모든 시간과 노력, 정성과 보람을 자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생활까지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도시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 열이 조기교육이니 영어이민이니 하는 형태의 자녀교육으로 나타나고, 부모는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한 ‘매니저’로 전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자녀들을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기 보다는 오히려 의존적이며 이기적인 인간으로 키워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농촌부모들의 자녀교육열!

옛날 우리네 시골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당신들처럼 농촌에서 살고 농업을 직업으로 갖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년 동안 죽어라 농사지어 봤자 일한 품삯도 나올까 말까 하는 농사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이런 일을 대물려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자식들만은 도회지로 나가 화이트 칼라로 생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부모들의 열망이 땅을 사고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자식교육에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도 없는 말이지만 “다섯 마지기 되는 논 부쳐서 자식 셋을 대학 보냈다”는 어느 할아버지의 말씀은 자신들의 생활은 전적으로 희생하면서 오로지 자식의 성공을 위해 살아온 인생 역정을 대변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펜 굴리며 밥벌이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 팔고 땅 팔아가면서까지 뼈빠지게 고생해서 키운 자식을 소위 출세시켜 놓았더니, 다들 도시에 정착해서 고작해야 일년에 두 서너 번 볼까 말까하고 자기네들 도시생활 하느라 힘겨우니 탄식이 절로 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 농사짓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들의 심부름꾼이 되어 농사짓기만 더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저런 이유로 가르치지 못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나온 자식이 그래도 효자 중에 효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 곁에서 농사일을 함께 하고 부모님을 모시면서 농촌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한들 우리나라 농촌 부모들의 자녀교육열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의 농촌여성들이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있는가를 조사하였더니, 미국의 농촌여성들은 지역사회활동, 프랑스는 패션과 식생활, 일본은 여가생활, 태국은 농외소득 등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농촌여성들은 자녀교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나라 농촌지역 부모들의 자녀교육열은 유달리 높음을 알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농촌의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부모들의 교육열이라 하겠습니다.

3. 농촌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농사'

달라진 농촌의 교육환경 그리고 농촌 부모들의 변함없는 자녀교육열 모두 농촌에서 자식을 길러내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1990년 이후에 귀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농촌생활에서 오는 가장 큰 불편으로 자녀교육을 꼽는 이가 38 퍼센트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보육시설 및 학교가 수적으로 부족한 데서 생겨나는 불편 때문입니다. 예로 1999년 현재 지역별 평균 보육시설수를 보면, 동지역은 7.9개소, 읍지역은 5.7개소이나 면지역은 0.9개소로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현실적으로 면지역 5세 미만 평균 아동수가 267명으로 동지역 1,269명, 읍지역 1,494명에 비해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거주지역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설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학생수가 적은 시골의 작은 학교들이 자꾸 통합 내지는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집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하지만, 학교버스의 운영이 부실한 관계로 통학하는 것도 불편할 따름입니다.

둘째는 농촌학교의 질적인 문제입니다.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시골학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시설이나 장비가 오래되고 뒤떨어져 있다고 농촌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여성농업인의 과반수 이상이 학교시설이 오래되고 우수한 교사들이 농촌학교에 오는 것을 기피한다고 느낌으로써 농촌지역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학교이외의 농촌지역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족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도시 아이들처럼 아이들의 특기와 적성을 길러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피아노, 미술, 영어, 바둑, 태권도 등의 사설학원들을 보낼라치면 적어도 면소재지까지는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원들이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골 외딴 곳까지 학원버스를 운행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들이 농사짓는 입장에서 일일이 학원 시간에 맞추어 아이들을 실어나를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개인교습이나 과외를 받게 하고싶어도 시골에서는 마땅한 과외 선생님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넷째는 아이들 교육에 좋다고 하는 놀이 도구나 책, 학습지들에 대한 정보를 농촌에서는 구하기도 사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도시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뒤쳐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스럽고 불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인지 농업인이 생업을 버리고 농촌을 등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자녀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옛말이 있죠. 자녀교육에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평범한 고사성어로,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세 번씩이나 이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나라 부모들도 자식 공부를 생각하면 농촌학

교에 보내는 게 불안하여 농촌보다는 교육환경이 도시가 더 나은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농촌탈출을 항상 염두에 두곤 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자녀교육 따라가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도시지역 학부모들도 농촌지역 부모들보다 지나쳤으면 지나쳤지 덜하지 않는 자녀교육열로 인해 최근 들어 명문고등학교 옆에 있는 동네로 이사가는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일산, 분당 등 신도시에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만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집값이 수 천만원씩 들썩거린다는 웃지 못할 일도 있답니다. 농촌에서 중소도시로, 중소도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미국, 캐나다로 교육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니,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간다고 자녀교육 문제를 안심할 수만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전체가 농촌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만이라도 중·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외지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1995년에 조사된 농촌생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면지역 중학생의 7.7 퍼센트, 고등학생의 37.3 퍼센트, 대학생의 77.3 퍼센트가 인근 중소도시 등으로 이촌 취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환경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도시로 학교를 보낸다고 해서 부모들의 걱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 식구들간의 강제적인 별거는 부모들에게 유학 비용 등 자녀의 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가져오지만, 교육적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가정교육의 부재를 낳게 됩니다. 특히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에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떼어놓다보니 혹시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 공부는 잘 하고 있는지 늘 노심초사 걱정하게 됩니다. 아직은 부모 품 안에서 있으면서 자라야 할 어린 자식을 낯선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안스럽다는 생각도 들구요. 한편으로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희생과 기대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4. 농촌 자녀교육을 위해 지원은 되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국가에서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분들의

자녀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물론 학교교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농업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학입학제도가 그것입니다. 먼저 1990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농업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제도」는 먼 지역에서 살면서 3000평 이하의 농경지를 가진 영세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부터는 그 대상지역을 먼 지역에서 읍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시 지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만을 둔 영세농업인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농업인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공부하고 있는 농어촌학생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줌으로써 농어촌교육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1996년도부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학입학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첫 해인 1996년에는 농어촌학생 비율이 대학정원의 2 퍼센트이던 것이 1997년에는 3 퍼센트로 증가되어, 1997년에는 284개 대학에서 14,657명의 농어촌학생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재학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학 쪽의 조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해 도시의 학부모들이 농촌으로 위장 전입하는 등 편법으로 인한 부정입학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게는 한 학급의 50 퍼센트 정도가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는데, 이중에는 실제로 농촌출신도 있지만 도시지역에서 시골로 유학 온 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2001학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합격자 108명 중 농어업인 자녀는 26명 뿐이고, 68명을 합격시킨 다른 대학의 경우도 순수 농어업인 자녀는 10 퍼센트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교육 여건 등이 불리한 농어업인 자녀들을 대학입학에서 배려하겠다는 원래의 뜻이 퇴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농어촌 학생들은 도시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게 밀려 대학에 떨어지거나

좋은 대학에 못 가게 되는데 그들의 불만과 상실감은 어떨까요? 또 도시 출신 학생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주말에는 학부모들이 학교주변까지 몰고 온 차를 타고 도시로 나가 입시학원의 주말반 강의를 들은 다음 일요일 오후에는 다시 돌아오는 예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농촌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게 한다고 봐야지요. 도시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대학에 내는 서류가 그렇다고 서류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 측에서 위장 전입 여부를 조사하기도 어렵고 아직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아이 대학입학을 위해서라면 편법도 마다 않는 학부모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편법과 부정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Ⅲ. 농촌자녀 교육의 새로운 인식

1. 달라져야 하는 교육에 대한 가치

1)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우리 아이만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뭐든지 잘하게 키우겠다는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보다 좀 더 공부를 잘해서 빨리 엘리트로 키워야지 하는 게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보통의 부모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두 이야기와 대안교육을 표방하는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한 여성농업인이 두 아이를 선생님과 친분이 있는 어린이집에 맡길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농업인은 “우리 아이들을 동네 다른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우대한다거나 차별을 두어 사랑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부모들의 모습은 우리 아이만은 특별히 잘 봐달라,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과 부모가 잘 아는 관계로 아이들이 점차 특권의식과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을 느

졌다고 합니다. 이 분이 특별히 선생님께 부탁하였던 뜻은 자녀들이 남을 거느리고 명령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지배자 의식보다는 평범하게 자라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길 바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에 게리 에임스라는 아이의 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게리 에임스는 다른 과목은 잘 하는데 수학만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어머니께 이를 이유로 방과후에 수학만 가르치겠다고 했더니, 부모님은 두 가지 이유에서 선생님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녀가 선생님께서 별도로 수학공부를 받는 것 때문에 쓸데없는 열등감을 가질까봐 그랬고,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과목 뿐만 아니라 수학까지 잘 하게 되어 쓸데없는 우월감을 가질까봐 하는 염려에서였다고 합니다.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살지 못하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공동체적 삶에 대한 모범과 생활규칙들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방향으로만 치닫고 해야 할까요? 최근 텔레비전 방송에 소개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 몇 되지 않는 대안학교인 풀무농업기술학교의 교훈은 ‘더불어 사는 평민’이라고 합니다. 교육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훌륭하고 착하게 키우는 데 힘써야지 특수한 엘리트만이 잘 되도록 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자녀가 엘리트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2)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

지식 뿐만 아니라 감성과 사회성 등 인성을 고루 갖춘 균형적인 인간으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일류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직장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승진도 보장되고, 심지어 결혼상대까지도 골라서 갈 수 있었기에, 다른 것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류대학 졸업장의 신화도 이제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성적이 좋고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 보다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을 뽑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식 하나만 덜렁 갖춘 절름발이 지식인이 아니라 인내력, 창의력, 사회성 등

을 두루 갖춘 균형잡힌 사회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영국의 대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은 스스로 자신이 저능아였음을 인정할 정도로 남보다 뒤떨어진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의 감정을 읽고 해석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 같이 서는데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다시 말해 감성지수가 남보다 몇 배는 높았던 것이죠. 그 결과 한 시대를 풍미한 위대한 리더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사소한 일에 욕하는 성미를 참지 못해 평생을 그르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화김에 자동차로 파출소를 들이받아 불을 내지를 앓나, 효도문제로 다투다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육이 너무 공부 공부, 공부 잘하는 데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인내심을 기르는 인성교육에는 소홀히 한 데서 생겨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능지수(IQ)에만 오로지 관심을 두었지만, 최근 도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지능지수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감성지수(EQ)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성지능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자기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고, 사교성이 있고, 충동억제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지식이나 힘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식보다는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감성지능이 나쁜 쪽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잘못 이용하여 자신의 경쟁상대를 누르는데 쓰거나 사회적인 피해를 주는 쪽으로 쓰인다면 없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능력이 바로 사회성 지수(SIQ)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화되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최고라고만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거나 돕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는 자신의 능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 ‘빌려주기’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공동체적인 태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회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지능지수가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다고 한다면, 감성지수는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합쳐진 것이고, 사회성 지수는 후천적인 요인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친구와 함께 노는 것을 즐기고 캠프 같은 활동을 통해 공동생활을 하는 법을 터득한다면 사회성 지수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농촌 부모들도 무조건 지능을 높이는 학습만이 최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또래들과 놀이를 즐기며 어울려 사는 법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녀에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지식교육만으로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균형잡힌 사회인으로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던 농촌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무한한 교육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이 무엇보다 중요...

자식을 낳아 하나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학교보다도 가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촌 부모님들은 과중한 농사일과 당신들이 배우지 못해 아이들을 가르칠만한 수준이 못된다고 생각해 서인지, 자식교육은 학교교육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교육은 학교나 학원에 가서 꼭 선생님에게 배워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요. 그러나 학교가 선생님이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몫까지 대신해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생활과 경험속에서 보고 들으며 몸으로 얻는 지식이 그 사람의 행동과 인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농촌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평은 멀리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부모에 대한 자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요즘에는 거꾸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부모 역할이 커졌고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더욱이 농촌에서는 교육환경도 열악

하고 농촌 실정이 어려워지면서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맘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촌 부모들 스스로가 교육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신감이 부족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어떤 모습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것인지 다음 몇 가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지금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농촌 부모님들은 농업과 농촌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소신을 가진 부모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골 부모들의 소박한 삶이 한숨만 내쉬는 찌든 삶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기쁨의 삶이 되도록 말입니다. 은연중에 우리 농촌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농사짓는 일 밖에 없어서...”, “너희들만은 농사를 짓지 말아야...”하는 자기를 비하하는 말들을 자주 하시며 한숨을 내쉽니다. 아이들은 자신들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어른들로부터 농촌생활에 대한 원망과 좌절감을 드러내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에게 농촌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까요? 이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 농촌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농촌의 삶은 “찌들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한 농촌에 살고 부모님이 농사짓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이 ‘촌놈’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오로지 농촌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만을 키워줄 뿐입니다. 농촌은 함부로 버리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고 앞으로 농촌에 살려는 정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농촌지역 출신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모두 농촌을 떠나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이들이 그 지역에 남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몫을 담당하도록 키워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들의 장래만을 걱정하는 자녀들로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 농촌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우리 농촌과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워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농사를 지음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환경을 보전하며,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 부모가 땀흘려 일하는 노력의 결과로 벼가 자라고 쌀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 큰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부모를 존경하며 자긍심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하는 농사일을 돕게 하고 가축도 돌보게 하고 집도 가족끼리 꾸미도록 합니다. 일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앞 텃밭 가꾸는 일을 가르쳐준 뒤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모든 일을 알아서 하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일한 노동의 대가로 결실을 맺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의 장래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부모의 삶은 자녀들 인생의 학습장! 부모가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문제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것이고 그 뒤에는 대부분 문제 부모와 문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가정환경, 부모 역할에 관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자료들은 사회적으로 성숙하며 행복한 성인들에 의해 길러진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함을 보여줍니다. 사회적으로 건강한 자녀란 부모 자신이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행복한 성인일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부산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부모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또한 부모들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고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진정으로 자녀에게 교육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걷는 대로 걸습니다. 똑바로 걷는 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게처럼 옆으로 걸으면서 자녀보고 똑바로 걸어라 하면 절대로 똑바로 걷는 자녀를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알려면 그 아버지를 보고 딸을 알려면 그 어머니를 보라 했던 옛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보다 낮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도 지키기 어려운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는 행동에서 더 쉽게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가 잠시라도 책상에 앉아서 하루를 정리하고 생각하며 스스로 배우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이를 따라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행복한 부부관계와 아내,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부모역할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잘 한다 하여도 자녀앞에서 부부지간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다가나 폭력을 보인다면 부모의 어떤 말도 자녀를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농촌 부모들이 농촌지역의 교육적 환경만 탓했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부부가 싸우거나 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요. 혹은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은 돌보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역할과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오로지 자녀에게 매달려 부모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자녀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지는 않았는지요.

넷째, 자녀교육은 어머니만의 몫이 아닌 아버지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요즘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아버지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아버지들의 의식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훌륭한 남성이 되면 곧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업적으로 성공하면 되었지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옛부터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로서 자녀양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교육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녀들이 대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책임이었습니다. 특히 농촌의 아버지들은 권위적이며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존재는 자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라는 호칭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만 불리어지는 이름입니다. 아이들이 남자에 대해 생애 최초로 보게되는 모델이 바로 아버지이구요. 따라서 어렸을 때 받은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전체 남성에 대한 이미지로 일생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자 아이에게는 닮고자 하는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들에게는 여성다운 성역할의 학습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존재는 단순히 계시는 물리적 존재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녀와 상호작용을 밀접하게 하는 정신적 존재

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물리적으로는 존재하나 심리적으로 부재인 경우는 질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물리적 부재와 비슷한 영향을 자녀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격적으로 깎듯이 예우하고 존중하도록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것이니 상관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부모 눈에 자식이 마냥 어리고 부족하다고만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자녀도 하나의 인간이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역시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만일 어른들의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비판적인 말을 한다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두 사람의 관계는 깨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녀들 이라면 상처를 받지 않고, 관계도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거리낌없이 비판하는 것을 ‘아이를 위해서’ 하는 진정한 부모의 의무라고 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듯이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녀도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사회생활을 할 때에 당당하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구박받고 어른 눈치보고 자란 자녀들은 다음 사회생활에서도 남의 눈치 보기에 바빠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섯째, 지능 발달에만 초점을 맞춘 영재교육, 조기교육을 못한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가 자식교육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아이만 뒤떨어지는 건 아닐까 불안할 것입니다. 두뇌성장이 활발한 어린 시절에 조기교육을 시키면 아무래도 아이의 지능발달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것을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조기교육은 아닙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 능력과 관계된 학습은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 만 5~6세가 되었을 때 시키는 것이 발달과정에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기교육 열풍으로 인한 극단적인 부모의 양육 때문에 지난해 서울 어느 한 병원에서만도 심각한 정신장

애를 진단받은 어린이 환자가 7백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강요받으면 오히려 공격적인 성향이 되고 스트레스가 뇌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노는게 곧 체험이며 학습이 되는 형태가 좋다고 합니다. 아이가 즐기는 놀이와 부모-자녀간의 스킨십이 두뇌를 발달시킵니다. “엄마가 안아주고 날 만져줄 때 내 머리가 쑹쑹 자란대요”라고 하는 어느 분유 광고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기교육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부모는 아이에 대한 세심한 사랑과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5세 미만에는 컴퓨터나 비디오, 책보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고, 그림을 그리거나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먼저 무언가를 하고싶은 동기를 가지기 전에 미리 부모들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제공하면 아이는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 없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등산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놀고, 요리하는 등의 일상의 체험에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위와 같이 부모노릇을 하는 것에 대해 그래야 한다고 생각은 되지만 막상 자녀를 대할 때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모 역할이 잘 이루어져야지 아무리 환경이나 조건을 좋게 해준다 한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3. 부모노릇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배워야...

부모가 되어 부모노릇을 한다는 건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 스스로도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하나의 단계이며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해야 하는 어려운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모 노릇을 특별한 준비나 노력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위해 배우자를 구할 때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하고 직접 데이트를 하는 등 실험기간을 거친 후 신중히 결정을 하면서 말입니다. 결혼의 자연스러운 다음 과정으로서 아이를 갖고 부모가 됩니

다.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의 자질은 저절로 생기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부모 역할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든지 현장에서 훈련과 실습을 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유치원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사에게도 일정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어야만 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물며 항상 같이 먹고 자고 아이들의 가정교육을 맡아야 할 부모들에게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사회가 변화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과 임무가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부모 역할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 역할도 프로여야만 합니다. 자식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관심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로 갖습니다만 사랑과 관심만이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 비법을 갖출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50년 전부터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개되고 있는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PT: Active Parenting Training)’, ‘체계적인 부모역할 훈련(STEP: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ness Parenting)’ 등이 그것입니다. 농촌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조차 생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계농사’에만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자식농사’를 위한 부모 스스로의 교육도 받아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농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석하십시오. 어떤 농작물을 심을 것인지, 언제 농작물에 물을 주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수확을 늘릴 수 있는지 책을 보고 교육을 받고 고심하는 것처럼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4. 농촌의 논, 밭, 들, 강, 산, 마을이 최고의 배움터!

시골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은 도시 어린이들보다 객관적으로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 교육에서만 뒤지지 않는다면 감성교육, 자립교육, 인성교육 그 어떤 면에서도 농촌의 삶은 자녀교육에 매우 훌륭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농촌의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을 보면서 자랄 기회가 많습니다. 사시사철 큰 변함없이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도시 어린이들에 비하여 농촌의 아이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자연풍경을 보면서 훨씬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뛰어 놀 장소가 없는 뻘뻘한 회색 콘크리트 건물만이 즐비한 도시에 비해 집 밖으로 나서면 넓고 푸른 들판에 넷가며 자연의 놀이감이 되는 흙, 돌, 물, 풀, 나무들이 가득합니다. 자녀들에게 농촌의 자연환경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주는 최고의 교육환경인지를 알고 농촌 부모님들이 농촌에서도 자신있게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도시 아이들의 감성교육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들이 대부분 농촌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직접 체험과 자연친화적 교육이 현 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 농촌자연환경속에서 뛰노는 아이들(애니메이션)

1)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

도시의 신세대 주부들이 즐겨 찾는 곳이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입니다. 값도 저렴하고 다양한 문화강좌가 개설되어 있어 인기가 높는데요. 이런 강좌 중에는 반드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끼여있습니다. 주부들의 발길을 끌기 위해서 입니다. 이들 프로그램 중에는 약방의 감초격으로 자연체험 프로그램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으며 도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점의 롯데백화점은 ‘어린이 생물관찰 교실’이 있고, 뉴코아백화점은 여름방학기간 해안갯벌을 탐방하여 현장수업으로 진행되는 ‘해양생물 이야기’를 모든 지점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미도파백화점은 ‘모래놀이’ 등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 홈플러스는 어린이 환경 실천단을 모집하여 어린이들에게 환경영상교육과 자연체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 텃밭을 가꾸는 유치원들

요즘 도시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원생모집을 하려고 주부들에게 홍보할 때 ‘우리 유치원에서는 텃밭 가꾸기와 식물 키우기를 한다’, 또는 ‘자연체험 나들이 정기추진’ 등의 내용을 집어넣고 자랑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식물을 키우고 자연과 친숙해지면서 정서가 순화되고 감성지수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마다 경쟁적으로 텃밭이나 자연체험 기회를 정규 프로그램안에 넣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어린이집은 아예 아이들의 오전시간을 ‘쑥 뜯기’로 시작합니다. 마당에는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 산수유나무, 감나무 등이 둘러서 있고 미끄럼틀과 씨름을 할 수 있는 모래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철마다 배추, 오이, 고추, 무, 토마토, 딸기를 가꾸는 텃밭이 있는데, 이곳은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수확까지 함께 합니다. 텃밭 일구기는 ‘세상의 모든 강요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과 이웃을 향해 가슴을 여는 어린이’를 만드는 이곳 어린이집의 목표와 딱 맞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오전 10시에는 뒷동산에 올라가 쑥 뜯

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쑥인지 잡초인지 모를 풀을 들고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거 쑥 맞아요?”, “저는 쑥이랑 냉이랑 같이 뜯어 갈래요.”, “선생님. 이 꽃 예쁘죠. 이름이 뭐예요?” 아이들은 매일 오전 선생님과 함께 들공부를 떠납니다. 이렇게 딱딱한 마루바닥 대신 먼지나는 흙마당과 산자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 아이들 옷은 흙투성이로 더럽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오히려 ‘자연과 가까워서 그런지 아이들이 잔병치레를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아이들이 구김살없이 마음도 건강하다’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3) 방학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들

요즘 초, 중학생들 사이에 현장체험 학습이란 말은 그다지 낯설지 않습니다. 그동안 획일화된 교육에 대한 반성이 일면서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아닌 살아있는 현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 ‘자연체험 캠프’나 ‘생태교실’ 등을 다녀오는 학생들도 많고 주말에 아빠 엄마 손잡고 곤충채집, 풀수집을 가는 아이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인지 올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도 ‘자율방학’이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방학을 획일적인 여름, 겨울방학에서 벗어나 현장, 체험학습을 권장하기 위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방학을 정하도록 법을 개정한거죠. 이에 따라 대다수의 초등학교들이 이제는 학기 중에도 방학을 실시하고, 방학들의 제목도 예전처럼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아니라 ‘식목일 가정체험학습’, ‘어린이날 가족행사’, ‘효행체험 학습’, ‘추석연휴 현장학습’ 등으로 천차만별입니다. 꼭 학교에 가야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자연체험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도 유익한 수업이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효과 때문에 이런 ‘현장체험 봄’이 일고있는 것일까요? 한 어린이의 현장체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산의 초등학교 4학년생인 김○○(11살)은 콘크리트 아파트숲에서 태어나고 자란 도시 토박이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의 정서는 여느 도시 토박이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 식물이 같이 살아야 하니까 개망초도, 토끼풀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스스로없이 말하며, 사람뿐 아니라 풀과 꽃도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을 만큼 여유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정서가 생긴 것은 초등학교 2학년때 ‘어린이 식물연구회’라는 자연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름을 아는 풀이라곤 단 한 포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물연구회에 가입해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오대산, 강화 덕포진, 제부도 갯벌 등 전국 각지의 산과 들에서 월 1, 2회씩 현장학습을 벌이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라일락, 민들레는 기본이고 개망초와 토끼풀까지 척척 알아냅니다. 그러면서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라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몸에 베이게 된 거죠. 이 덕분에 그동안 공부이외에 별로 공통적인 대화주제가 없었던 부모님들도 이제 어딜 가든 풀과 꽃을 보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아이와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화단의 풀이름을 놓고 오랜 시간 대화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서로의 생각을 꾸밈없이 나누게 됐습니다.

4) 여행업체들까지 앞다퉈 농촌 자연체험 교육에 참여

요즘엔 인터넷을 통해 아이들이 방학때 참가할 수 있는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교육 사이트들까지 여럿 생겼는데, 이들 업체들은 여행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아예 여행코스 개발하듯이 체험학습 코스를 개발합니다. 어떤 코스들이 있는지 제목만 한 번 죽 적어봤습니다. “겨울방학 칠원지역 문화기행과 조류탐사’, ‘별자리 여행’, ‘영월문화 생태체험캠프’, ‘민속놀이 체험’, ‘겨울자연 체험’, ‘동굴생태체험’, ‘제주도 농장체험여행’, ‘협동심캠프’ 등입니다. 이 가운데 식물관찰이나 별자리, 민속놀이는 워낙 아이들 방학숙제에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라서 특히 아이들 참여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역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지수를 높이고 사회성을 기르려는 부모님들의 요구가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촌의 자연환경을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백화점 문화강좌, 유치원, 방학을 이용한 캠프, 체험학습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감성활동과 탐구력, 집중력, 인내심, 창의력,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성을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 학부모들을 농촌에서는 돈 드리지 않고도 이런 교육을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 농촌의 부모님들이 농촌의 녹색 자연환경을 교육적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의 교육여건만 동경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작년 어느 신문에 나온 한 산골 학교 선생님의 아이들 교육방법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 줍니다.

밀양의 어느 초등학교 전교생 64명. 한 여선생님이 3년 전 부임해 왔습니다. 선생님은 1,800여평의 밭에 고추, 참깨, 콩, 팥, 배추를 키웁니다. 벼농사도 짓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첫 시간 “자 잠깐 눈 감아볼래? 내가 너희들 코앞에 될 갖다 델테니 냄새로만 맞춰봐라” 선생님 주변에 아이들이 둘러앉습니다. “방금 향기 맡았지? 그게 뭘까? 맞춰볼 사람?” “매니큐어요!” “비누요!” “화장품인가?” “꽃이요 꽃!” “그래 꽃이다. 그런데 무슨 꽃일까?” “진달래?” “개나리?”... 아무래도 향기만으로는 안되겠다 싶어 이번엔 눈을 뜨라고 하고 손 안에 있는 꽃송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아 뭐더라? 많이 봤는데..” “매실꽃인가?” “그래 매실꽃 맞다. 그런데 매실꽃이라고 하지 않고 매화라고 하지. 매화 나무 열매를 매실이라고 하는데 열매를 볼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열매는 달리지 않고 꽃만 보는 나무도 있다” 선생님은 이날 아침 출근하면서 길가에 떨어진 매화꽃봉오리를 한 주먹 쥐어 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매화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잔으로 한 잔 만들어 돌렸습니다. 신기한 듯 맛을 보고 향을 맡는 아이들...(중략)

수업방식은 결코 특이하지 않습니다. 순박한 아이들의 동심을 살려주고 창의력을 키워주며 정직함을 심어주려 애씁니다. 다만 농촌을 둘러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아이들에게 부모들의 농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선생님이 처음 부임했을 때 시골 아이들이 의외로 농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농사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책가방 없는 날이면 산과 들, 강으로 나가 ‘자연과 하나되기’ 수업을 합니다. 작은 풀과 들꽃과 나무이름 맞추기, 물고기 이름 맞추기, 돌탑 쌓기, 눈 감

고 자연에서 나는 소리 알아맞히기, 흙을 파서 땅속의 미생물 관찰하기, 마음에 드는 나무를 자세히 살펴본 뒤 눈감고 찾아보는 '내 나무 찾기'도 합니다.

(『경향신문』, 2000. 4.24)

5. 놀면서 배운다 : 농촌의 전통놀이문화

1) 도시아이와 농촌아이, 노는 게 다르다

요즘 대도시 학교에서는 교육적인 골칫덩이가 여럿 있습니다. 이미 메스컴을 통해 잘 알려진 '왕따', '공주병', '왕자병', '나 홀로 학생', '교실폭력', '선생님 무시', '폭행' 등이 난무합니다. 점점 학생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한사람을 지목해 집단따돌림을 하는 등 치사해지고, 심지어 학생들간에 폭력을 넘어서서 선생님까지 폭행하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비도덕적인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의바르고 성실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음 놓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실력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나 집단에서의 대처능력 같은 게 더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행여 우리 아이가 왕따가 되지 않을까?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속에 요즘 교육의 새로운 지평으로 떠오르는 것이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여 주고자하는 '어울림의 문화교육'입니다.

도시아이들이 노는 문화 자체가 사회성을 기르기보다는 개인주의화를 부추킨다는 비판과 반성 속에 예전 우리 부모들이 농촌에서 놀던 전통놀이 문화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시아이들이 뭘 하고 놀고 있으며 또 농촌아이들은 어떤 놀이문화를 갖고 있어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까요?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22살 동갑내기 여성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강원도 철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은영씨, 한 사람은 서울 사당동 토박이 소현씨, 이 두 사람은 대학 동기동창이고 직장까지 같아 무척 친합니다. 하지만 농촌출신인 은영씨는 소현

씨에 대해 ‘역시 서울 애들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있고, 서울출신 소현씨 역시 은영씨에 대해 ‘시골 애들이 다르긴 다르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품고있습니다. 이 둘을 면접해본 결과 역시 농촌출신과 서울출신의 놀이문화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표 1〉 농촌출신과 서울출신의 놀이문화 차이

구 분	농촌출신 은영씨	서울토박이 소현씨
어릴 때 즐겨하던 놀이	고무줄, 공기, 냇가수영, 산에서 꽃따기, 쭉·냉이캐기 등	공기, 게임, 텔레비전 보기, 수영 음악듣기, 롤러스케이트
여럿이 같이 하는 놀이	썰매타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개구리소리 들으며 논둑 걷기	학원스케줄이 안맞아 별로 없음
친구들과의 관계	동네아이들, 폭넓다	친한 아이하고만 친하다
선생님과의 관계	친하다(4개 반, 각 40명)	특별해야 친하다(15개반, 각 60명)
이웃어른과의 관계	동네 할머니들과 친하다	특별히 없다

어린 시절을 산에서 꽃 따고 쭉과 냉이를 캐며 보내는 것과, 도시에서 게임하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며 보내는 것이 교육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놀이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를 확실하게 말하기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냇가에서 고기잡고 썰매 타며 쥐불놀이 하던 농촌 아이들의 경우, 도시 아이들에 비해 여럿이 함께 놀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서울토박이 소현씨의 경우 학교에서 사회성을 배울 뿐 학교를 마친 나머지 시간엔 별로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도시에서 친구들과 함께 갈만한 공간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간에 서로 바빠 어울릴 기회가 훨씬 적었습니다.

소현씨가 친구에게 같이 놀러가자고 하면 친구가 피아노학원 가야 한다고 하고, 친구가 피아노학원 마치면 이번엔 소현씨가 미술학원 갈 시간이고... 그래서 기껏해야 두 세 명 정도 함께 놀면 도시에선 잘 노는 축에 속했습니다. 어릴 때

부터 모르는 아저씨가 말 걸어오면 아는 채도 하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신신당부해서 소현씨가 아는 어른들은 부모님, 친척들, 자주 가는 동네슈퍼 아줌마, 비디오방 아저씨 등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주택가에 사는 소현씨는 나은 편, 신도시 아파트단지에 사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끼리끼리 좁니다. 학원일정대로, 취미가 비슷한 대로.. 그러다 보니 언제 어떤 형태로 자신이 속할지 모르는 집단문화, 어울림 문화에 대해 익숙하지 않습니다. 반면 농촌출신 은영씨의 경우는 개구리소리 들으며 논둑 길을 걸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절 함께 논둑 길을 걸었던 동네친구들 생각에 빙긋 웃습니다.

연 만들기 는 동네 할아버지들한테 배웠고, 은영씨가 젓먹이 시절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돌아가며 봐주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은영씨는 동네 할머니들과 친하고, 할머니들 역시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말이야 어릴 땐 오줌싸개였는데 벌써 저렇게 컸네?’하며 아는 척을 합니다. 비록 부모님들이 농사일에 바빠 은영씨에게 도시에서처럼 세심한 교육적 배려를 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친구들과 어른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가면서 예의범절이라든지 서로간의 감정표현 방법들을 배워나갔습니다. 이렇듯 도시에 비해 자연환경이 좋고, 집단적인 요소가 강한 농촌에서는 아이들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 농촌에서 하고 노는 전통놀이가 창의력을 길러준다

‘창의력!’ 요즘 백모 아나운서가 텔레비전 광고에 나와서 ‘이젠 창의력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즘 여기가도 창의력, 저기가도 창의력, 온통 창의력 향상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붐입니다. 그런데 창의력이란 것은 어떤 학습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생활습관입니다. 아무리 도시에서 창의력 학습지 많이 풀어봤자, 생활 속에서 장난감을 사도 다 완성된 장난감, 게임을 해도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게임을 하는 아이들에게 창의력이 키워질 수 있을까요? 생활에서 또는 놀이문화 속에서 어떤 것을 자기문제로 고민해서 결정하고 자기손으로 똑딱거리면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며 ‘아 다음엔 이

렇게 해야겠구나?’,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경험이 습관화될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서 창의적인 발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 집을 똑딱거리며 고치거나 개집을 만들거나 우편함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작업들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있습니다. 똑딱거리는 사이에 뭔가가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야 아이들과 함께 뭔가를 똑딱거리며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의 집 세들어 사는 처지에 잘못 똑딱거렸다간 주인에게 욕먹기 일쑤고, 또 집 사서 들어간 아파트에는 똑딱거릴게 별로 없습니다. 넓은 정원에 단독주택이야 땅 넓은 남의 나라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농촌이야말로 어른과 아이가 똑딱거리면서 창의력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곳곳에 빈집 많고, 마당도 넓고, 문밖만 나서면 넓은 녹색정원이 있고... 거기에 옛부터 우리 조상들이 발전시켜온 전통 놀이문화가 아직도 농촌엔 살아있습니다.



〈그림 2〉 농촌아이들의 연날리기 모습

예를 들어 연날리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골에는 아직도 연 날릴 만한 공간이 널려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겨울만 되면 연을 만들어 날리고, 연끼리 싸움도 붙는데, 연 하나 만들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재료에 손길이 들어갑니까? 실패에서부터 뼈대 만들고 살붙이고, 무게잡고 균형잡고... 이렇게 많은 과정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놀기 위해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거치게 됩니다. 당연히 연날리기를 하면서 친구 연과 내 연이 비교가 되고 다음엔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나오죠.

하지만 도시에서는 연날리기가 더 이상 놀이가 아닙니다. 숙제입니다. 연 날릴 공간도 없고, 찬바람 맞으며 연 날리는 것보다 더 재미난 컴퓨터 오락과 텔레비전이 있기에 굳이 끄꿍대며 연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상 연을 만들어오라는 숙제를 내죠. 그래서 도시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 문방구에서 다 만들어진 연을 사서 거기에 연 꼬리 몇 개만 자기가 붙여서 선생님께 제출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창의력’이 길러질까요? 한때 교직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놀이 백가지’라는 책을 펴낸 이철수씨의 글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농촌에서 별 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전통 놀이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겨울이 되기 전부터 아이는 굵은 철사며 썰매날을 만들 쇠날을 구하러 다녔다. 헌 양철 물동이의 손잡이는 썰매날을 대신할 수도 있고 썰매의 송곳을 만들 수도 있는 훌륭한 철사였지만, 이게 워낙 귀했다. 썰매 발통으로 쓸 각목이며, 발판으로 쓸 판자는 철사보다는 흔했다. 이런 것들이 구해지면 어느덧 겨울 방학, 썰매를 만드는 일은 담장 밑 양지쪽에 앉아 한나절만 푹푹거리면 충분했다. 나이가 좀 든 녀석들은 판자를 발모양으로 깎아 그 밑에 썰매날을 단 발스케이트를 만들었다. 썰매를 만들지 못한 녀석은 썰매있는 아이들을 부러워하며 팽이나 만들어 쳐야했다. 썰매를 타고 팽이를 칠 무논이며 연못은 지천으로 널려있었다. 썰매를 지치다 손발이 시리면 논두렁이나 도랑가에 불을 지폈다. 도랑바닥엔 겨울을 나는 개구리며 붕어새끼가 가만히 었드려있었다.
(중략)

아이들의 몸에 흙칠을 하자. 흙 속에는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이 얼마나 풍부한가. 그리고 우리들이 먼저 수수깡 안경을 만들어 끼고 아이들을 보며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아이들 손으로 만든 비행기와 고무신 배를 타고 하늘을 날든지 망망대해를 향해해 보라. 아이들의 시야가 절로 넓어지며 가슴살이 두꺼워질 것이다. ‘나’보다는 ‘우리’를 감싸는 그런 가슴으로..

(이철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놀이 백가지」 중에서)

비행기놀이, 바람개비, 물레방아, 찰흙놀이, 풀꽃놀이, 꽃으로 목걸이·시계 만들기, 풀피리불기, 곤충채집, 보릿대로 만들기, 수수깡으로 만들기, 참새잡기, 물고기잡기, 전쟁놀이, 제기차기, 구슬치기, 굴렁쇠, 연날리기, 팽이치기 등 농촌엔 철마다 재료마다 수많은 놀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풀꽃 이름, 나무 이름, 물고기 이름들이 저절로 외워집니다. 이런 문화가 요즘 농촌에서도 학원에 보충수업에, 이농과 폐교 등으로 점차 사라져 가는 현실은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도시에서는 콘크리트 놀이문화에 한계를 느낀 부모님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의 캠프에 아이들을 보내 돈을 주고 일부러 떡치기나 팽이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농촌에서 그 좋은 놀이문화 다 팽개치고 도시 콘크리트 문화를 쫓아간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오히려 우리 농촌부모님들이 우리 마을 또는 우리 지역의 놀이문화를 잘 보존하고 가꿔서 아이들을 가르치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물론, 이런 놀이문화를 배우겠다는 도시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IV. 맺는 말

지금까지 농촌 자녀교육에 있어 교육에 대한 부모의 가치와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며, 삶의 터전인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자녀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현재의 농촌 여건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 부모님들이 자녀를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고 도시에서 출세시키고자 하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시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하지만 한 해에 명문대에 입학하는 학생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명문대학을 나와서도 사회에서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이는 더더욱 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재 농촌 부모가 겪고있는 어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좌절하고 불

행하다고 느끼고 농촌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신이 딛고 있는 땅위에서 가능한 새로운 교육적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참 고 문 헌

- 국제농업개발원, '한국 농촌여성 가장 큰 관심거리는 자녀교육', 『중앙일보』, 1999. 5.14일자, 1999.
- 김영자, '바쁜 부모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한 농촌주부의 글-', 『또 하나의 문화 제1호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 평민사, 1985.
- 박성수, '새로운 아버지상과 '아버지됨'', 『또 하나의 문화 제1호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 평민사, 1985.
- 박영자 등, '농촌자녀의 이혼취학이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1995년도 농촌생활연구소 시험연구보고서』, 농촌생활연구소, 1995.
- 양희규, '농촌에서 자녀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귀농, 『아름다운 삶을 찾아서』, 전국귀농운동본부 엮음, 두레, 1999.
- 윤순덕, '열린 부모 건강한 농촌청소년', 농촌생활연구소, 1995.
- 조옥라, '농촌의 어린이 교육', 『또 하나의 문화 제5호 누르는 교육 자라는 아이들』,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7.
- 한경혜, '농촌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제2권, 1991.
- 한경혜, 『농촌가정의 자녀교육』, 한국여성개발원, 1991.

부담스런 가사노동, 질곡의 여성농업인

한 경 혜

서울대학교

I. 들어가는 글

II. 여성농업인의 역할과다 현황

1.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참여 실태
2. 농촌여성의 농업참여 증가의 원인
3.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증가에 따른 문제점
4. 생활시간의 사용으로 살펴본 여성농업인의 이중부담
5. 농촌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완화의 방해요인
6. 여성농업인의 이중부담에 따른 개인, 가족 차원에서의 문제점

III. 여성농업인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 무엇을,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1. 여성농업인도 취업주부라는 인식을 가진다
 2. 남성이 가부장적 생각과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
 3.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을 낮추고,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라
 4. 가사노동을 가족원과 분담하라
 5.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부담스런 가사노동, 질곡의 여성농업인

I. 들어가는 글

“가족원 중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남편과 같이 들에 나가 일을 하다가, 부리나케 뛰어 들어와서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를 하고, 자신은 밥을 뜨는 등 마는 등 다시 일하러 나갔다가, 새참 준비하러 들어 왔다가, 준비한 새참을 가지고 들에 나가고, 다 먹은 새참그릇들은 한곳에 놓아둔채, 계속 들일을 하다가 해 떨어질 무렵이 되면 역시 부리나케 집에 돌아와 손발은 씻는 등 마는 등 부엌에 들어가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가 끝나면 쓰러져 잠이 들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여성농업인의 모습이다.

물론 모든 여성농업인들이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을 함께 병행하고, 제대로 쉬거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는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부족한 바쁜 생활을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공통된 모습을 가질 것이다.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생활이 힘들고 일이 많은 것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여성과 달리 남성들은 일터와 가정이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과 차이가 난다.

남자들은 아침에 들로 나가 농사일을 하고 해 떨어져 집에 돌아오면 부인이 차려주는 저녁상을 받고 TV를 보면서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 즉 같은 농사일을 하지만 남자에게 있어 가정은 “쉬는 곳”이고 여성에게는 “해야할 집안 일이 기다리는 곳”이다. 농사일도 힘든 일이지만, “죽어라고 해도 별로 빛이 나지

않고, 조금만 손을 놓으면 당장 집안이 엉망이 되어서 표가 나버리는” 가사일의 부담 또한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농사일과 가사일의 이러한 이중부담의 굴레가 너무 무겁다는 것이 여성들이 농촌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농촌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21세기를 맞아 농업의 주체로서 전문인력으로서의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여성의 발전 가능성과 기대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성농업인이 경험하고 있는 농업생산자 역할과 가사담당자로서의 역할의 중복에 의한 어려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농촌여성의 이중부담의 현실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 및 역할 과다에 의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여성농업인의 역할과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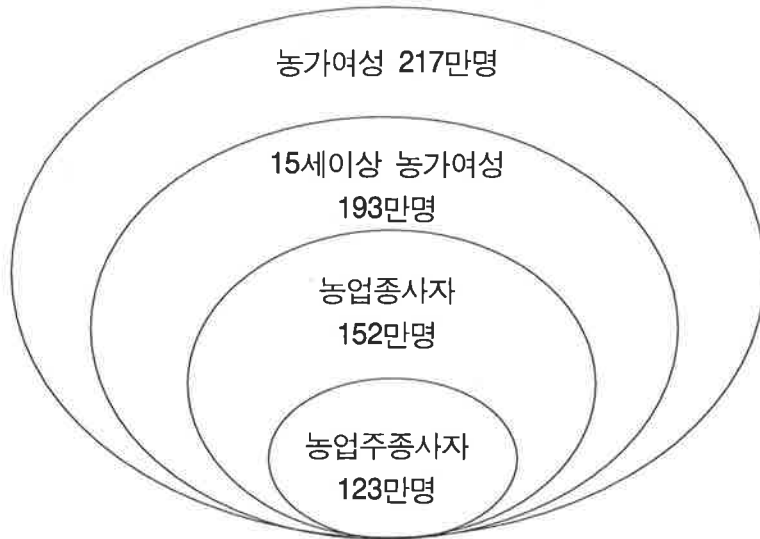
여성농업인에게 가사노동의 부담이 얼마나 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우선 이들 여성농업인들이 얼마나 많은 농업노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참여 실태

1999년 현재 여성 농가인구는 217만 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이중에 여성 농업 종사자 인구 수는 152만 명이며, 농업주종사자는 123만 명으로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2.5 퍼센트에 달한다(<그림 1>).

1960년대만 하더라도 농촌에 노동력이 풍부하여 농가인구의 3분의 1만이 농업생산에 참여하였고, 그래서 노년층과 여성은 농업생산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젊은이들이 대거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었고, 그 빈자리를 여성이 메꾸게 되면서 오늘날은 여성이 없으면 농촌이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성이

주요한 농업노동력이 되었다.



〈그림 1〉 여성농가인구와 농업종사자(1999년)

<자료> : 통계청, 「1999년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2000.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참여정도는 다른 가족원과 비교한 상대적 참여정도와 절대적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농업노동 시간의 두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정도를 질문한 결과,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는 여성이 약 15 퍼센트였고, 남편과 비슷하게 일한다는 여성이 60 퍼센트를 넘었다. 전적으로 맡아서 하거나 남편과 비슷하게 농사일을 하는 경우를 농가의 주노동력이라고 한다면, 현재 농촌여성의 4분의 3 이상이 주 노동력으로서 생산활동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서선희 등의 조사에서도 농촌여성 응답자의 88 퍼센트가 사철 내내 농사일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88 퍼센트가 예전과 비교하여 농사일이 늘었다고 답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역할 과중을 짐작케 한다. 여성농업인을 연령대별로 보면, 특히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의 경우 남편과 비슷한 정도로 농사일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농촌여성의 농업참여 증가의 원인

이렇게 과거에 비하여 농촌에서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가 증가하고 여성인력이 점차 더 중요하게 된 것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농촌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점 외에도 몇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먼저, 농촌가족구조의 변화를 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농촌가족이 점차 핵가족화하고 규모가 작아지면서 우리나라 농업이 부부중심의 가족농 체계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농가의 70 퍼센트 이상이 핵가족화 되고, 농촌에 남는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여성이 남편과 함께 농업노동의 주종사자로서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농촌의 핵가족화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이므로, 여성에 대한 의존도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농업의 기계화도 우리 농촌의 농업생산이 부부 중심 체계로 전환하게 된 한 원인이다. 어느 농민이 이야기하였듯이 “과거에 논농사는 품을 사서 했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지 않았고, 현재는 기계화되어서 부부가 다 하니까, 예를 들어 모를 낼 때 남편은 이앙기로 심고, 부인은 경운기로 모판을 옮겨주는 등 뒤치다꺼리를 다하니까” 여성의 일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거기에다가 농촌이 전반적으로 일손이 부족하므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노임을 주어도 고용할 노동력이 없으므로 여성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겹쳐져서 이런 부부중심의 기계화 작업체제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물론 농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원의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측면도 있으나, 이때에도 공부할 자녀, 도시로 떠난 자녀를 빼고 나면 결국 노동력을 제공할 가족원은 여성뿐인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즉 농업생산에 있어 고용노동의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가족노동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바로 농촌여성의 농업노동의 증가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여성의 농사일 참여정도가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농업생산 양식이 점차 전문화되고 대규모화 되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들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업농의 발달로 농사에 있어 농번기/농한기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점도

여성들의 역할부담을 증가시킨 한 원인이다. 워낙 농사일이라는 것이 정해진 휴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논농사, 밭농사 중심의 농사를 지을 때는 비록 부업 등으로 바쁘더라도 농한기에는 농번기의 숨찬 리듬에서 약간은 벗어나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여성농업인들은 농업생산주기에 따라 농사일이 많은 농번기에는 가사노동의 시간을 줄이고 농한기에는 상대적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사노동을 어느 정도 조정해 왔다. 그런데 수도작 전업농의 경우에는 이런 조절이 가능하지만 낙농이나 시설농업의 확산으로 이러한 조절이 어렵게 되면서 이중부담이 상시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농번기와 농한기 구분이 없어지면서 일년 내내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가사노동과 농업생산노동의 이중부담을 일년 내내 감수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3.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증가에 따른 문제점

이렇게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우리 농업생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인으로서 여성의 역할이 정립되어 갈수록 여성농업인이 처하는 어려움은 더 커진다는데 있다(김종숙, 1997). 그 어려움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시간상으로 노동부담이 과중할 뿐 아니라, 노동강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시설원예와 같은 상업농의 경우에는 여성의 작업내용이 많으며, 농한기가 없이 일년 내내 생산을 하므로 여성농민들이 휴식 없이 연중 노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매우 힘든 중노동이나 반복적 형태의 노동, 일정한 자세로 오랜 시간 계속해야 하는 노동 등 노동강도가 높은 일의 비중이 커져서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일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시간의 힘든 노동으로부터 건강을 위협받기 쉬우며 출산전후에도 휴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게된다.

둘째, 가사노동을 거의 전담하므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이 도시의 취업여성보다 크다. 도시의 경우 농촌에 비하여 자녀양육이나 식사, 빨래 등의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 가족원의 가사분담도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농촌지역보다 많이 이루어진 반면, 농촌여성은 이러한 가사노동을 혼자서 다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부담이 엄청나다. 특히 자녀가 어린 여성농민의 경우에는 집과 일터를 바쁘게 오가며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노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는 육아 지원시설이 극히 부족한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셋째, 이렇게 여성농민이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한 동시에 집안일을 전담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 적절한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농업경영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농업보조자의 지위에 머물고 있어서, 품종선택이나 자재구입, 농산물의 판매, 농지를 사고 파는 문제 등에 관하여 주로 남편의 의사에 의해 결정이 된다. 가족 내에서도 가정경제나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남편이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높지 못하고,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과거에 비하여 여성농업인들의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정당한 지위를 요구하게 되어 가족 내에서 갈등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농촌의 여성농민의 이중 노동부담의 실태 및 이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4. 생활시간의 사용으로 살펴본 여성농업인의 이중부담

여성농업인이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농촌남성 및 도시여성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얼마나 과도한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을 전국의 남성 및 여성, 그리고 농촌남성과 비교하여 보면(표 1), 농촌여성이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이 전국의 남성평균 및 농촌남성 평균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국

여성 평균과 비슷한 정도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쏟고 있어서, 하루 중 전국 남성 평균 및 농촌남성 평균치보다 훨씬 긴 시간을 노동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 여성 평균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하루 총 노동시간이 1시간 38분이 길었으며, 생산노동에 쏟는 시간이 전국평균보다 2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여성농업인이 하는 생산노동이 강도가 높고 힘든 일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오랜 시간 노동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여성농업인의 하루평균 시간 사용실태(1999년)

구 분	전국남성	전국여성	남성농업인	여성
총 일한 시간	6:14	7:16	6:27	8:54
취업일	5:42	3:18	5:46	5:24
가사일	0:32	3:58	0:41	3:30
여 가	5:21	4:55	5:06	3:26

주 : 1) 대상자는 모두 20세 이상 성인이며, 평일과 토·일요일을 합친 평균값임

2) 농업인은 농업산업(01)에 종사하며 농가에 거주하는 숙련근로자(61)와 단순노무자(92)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00.

여성농업인의 이러한 과부담은 여성의 건강문제와 같은 개인적 문제 뿐 아니라 가정생활의 삶의 질 저하, 자녀양육 등 농촌 후속세대의 문제 및 가족원간의 갈등 증가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하루시간 사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에서 나타난 바를 살펴보면, 농번기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하루 시간 중 농업노동시간이 37 퍼센트, 가사노동 시간이 16.6 퍼센트, 농외소득 노동시간이 0.8 퍼센트로 총 노동시간이 하루 24시간의 절반을 넘는 54.1 퍼센트로 12시

간 58분을 차지하였고, 사회문화적 시간과 생리적 시간은 각각 6.2 퍼센트, 39.7 퍼센트로 불과하였다. 농한기에도 과중한 노동부담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여서, 총 노동시간이 8시간 45분으로 농한기에도 상당 정도 노동을 하고 있다. 농한기에는 가사노동에 5시간 11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즉 농번기에 비하여 1.3 배정도의 시간을 더 가사노동에 투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농가주부의 생활시간 구조

단위 : 시간:분(%)

구	분	농번기 평균	농한기 평균	연중평균	
노동시간	1998	12:58 (54.1)	8:45 (36.5)	10:52 (45.3)	
		1988	12:44 (53.1)	7:35 (31.6)	10:09 (42.3)
	수입노동		1998	9:00 (37.5)	3:34 (14.9)
		1988	7:52 (32.8)	1:39 (6.9)	4:45 (19.8)
	가사노동	1998	3:58 (16.6)	5:11 (21.6)	4:35 (19.1)
		1988	4:52 (20.3)	5:56 (24.7)	5:24 (22.5)
사회문화적 시간	1998	1:30 (6.2)	4:48 (20.0)	3:09 (13.1)	
	1988	1:31 (6.3)	5:53 (24.4)	3:42 (15.4)	
생리적 시간	1998	9:32 (39.7)	10:27 (43.5)	9:59 (41.6)	
	1988	9:45 (40.6)	10:32 (44.0)	10:09 (42.3)	
계		24:00 (100)	24:00 (100)	24:00 (100)	

그런데 여성농업인의 이러한 생활시간 실태를 남성의 생활시간과 비교하여 보면(표 3), 먼저 생활시간에 있어 부부간에 불균형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 있다. 1998년 조사에 의하면 농번기에 부인의 노동시간이 남편의 노동시간보다 1시간 8분이 더 길었고, 농한기에도 부인이 남편보다 2시간 27분이나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은 노동시간의 약 70 퍼센트를 농업노동과 농외소득 노동에 쓰고 있으며, 나머지 30 퍼센트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쓰고 있었다. 이렇게 여성은 농업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남편은 농번기에는 하루 평균 15분, 농한기에는 43분을 가사노동에 쓰고 있어서, 노동시간의 겨우 2 퍼센트만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반면에 남성은 대체로 가사노동에서 면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농가부부의 생활시간 구조 비교

단위 : 시간:분(%)

구 분	농번기		농한기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노동시간	12:58 (54.1)	11:50 (49.3)	8:45 (36.5)	6:18 (26.2)
수입노동	9:00 (37.5)	11:35 (48.3)	3:34 (14.9)	5:35 (23.3)
가사노동	3:58 (16.6)	0:15 (1.0)	5:11 (21.6)	0:43 (2.9)
사회문화적 시간	1:30 (6.2)	2:21 (9.8)	4:48 (20.0)	6:59 (29.1)
생리적 시간	9:32 (39.7)	9:49 (40.9)	10:27 (43.5)	10:43 (44.7)
계	24:00 (100)	24:00 (100)	24:00 (100)	24:00 (100)

문제는 이러한 여성과 남성간의 불균형이 과거에 비하여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1993년도에는 부인이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남편의 4.6배였는데, 1998년 조사에 의하면 부인이 가사노동에 남편의 6.8배의 시간을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의 도입 등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적어지고, 또한 남성들이 과거에 비하여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서 여성의 가사노동 과중화 문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 농촌에서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완화되기는 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편이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이 부인의 1.6배 정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가사노동 참여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남녀간 불균형이 커진 것은 부인의 농업노동시간이 1988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남편의 농업노동시간이 뚜렷이 증가하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사용시간의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5. 농촌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완화의 방해요인

한 가정이 제대로 유지되고 일정한 정도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일 일정 정도의 가사노동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을 담당한 사람이 단 며칠이라도 그 역할을 소홀히 하면 가족원들의 삶에 그 영향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가사노동의 이러한 특성에 대하여 “집안일은 열심히 해도 표가 나지 않지만, 하지 않으면 당장 표가 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가정이 행복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가사노동이라면, 여성이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누군가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나누어 가지지 않는다면 여성의 역할부담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여성이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여왔는데, 과연 어떤 이유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은 계속 감소해 온 것일까?” 하는 질문에 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두 요인이 복합되어 오늘날의 ‘농촌여성의 가사노동의 부담, 이중부담’의 문제가 나타나고 심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1) 농촌 남성과 여성 모두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의식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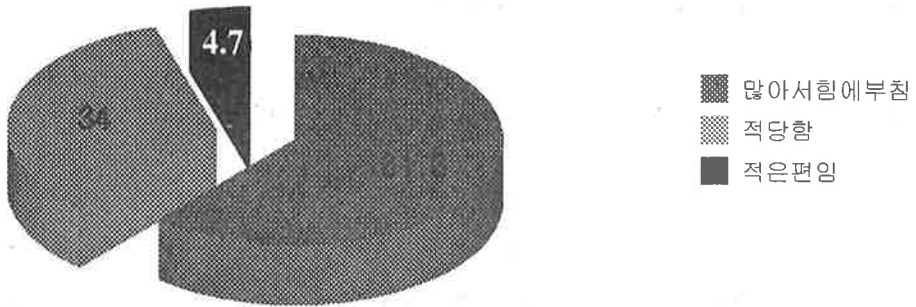
남성은 집밖의 일, 여성은 집안 일을 맡아서 한다는 농촌의 뿌리깊은 전통적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여성이 집밖의 일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통적, 가부장적 의식은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 뿐 아니라 많은 여성에게도 깊이 남아있다.

여성농업인들을 조사해보면, 60 퍼센트 이상의 여성이 ‘일이 많아서 힘에 부친다’고 응답하고 있다(<그림 2>). 그러나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남편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자신들이 하는 가사노동의 양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 퍼센트로 가장 많다(<그림 3>). 이는 농촌여성 자신들이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으로 가사노동을 당연히 여성의 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약 55 퍼센트가 “거의 돕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많이 도와준다고 응답한 주부는 14 퍼센트에 불과하였다(<그림 4>). 많은 농촌여성들이 전통적 성역할 분업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의 가사노동 도움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렇게 낮게 나타난 점은 우리나라 농촌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극히 낮음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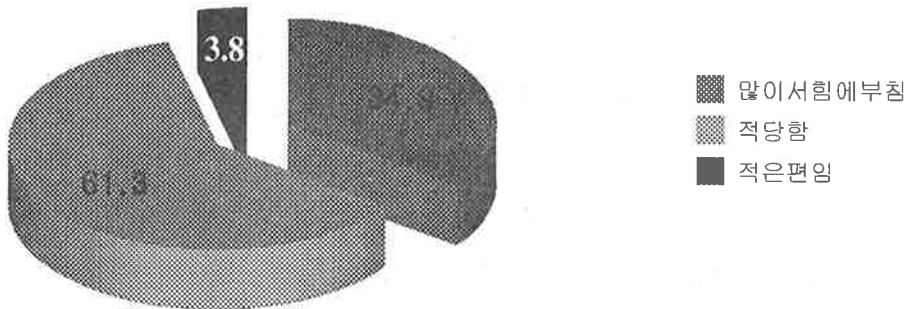
남편들에게 물어본 결과, 67.5 퍼센트가 부인들이 농번기 농업노동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응답하고, 50.5 퍼센트가 부인의 가사노동 일이 “많은 편”이라고 지각하면서도(<그림 5>), 17.5 퍼센트만이 자신들이 부인의 가사노동을 ‘많이 도와준다’고 대답하였다.

자신의 농번기 농업노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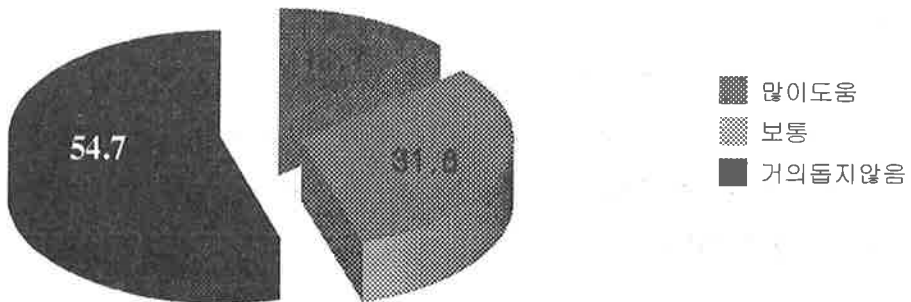
〈그림 2〉 여성자신의 농번기 농업노동에 대한 생각(단위 : %)

자신의 가사노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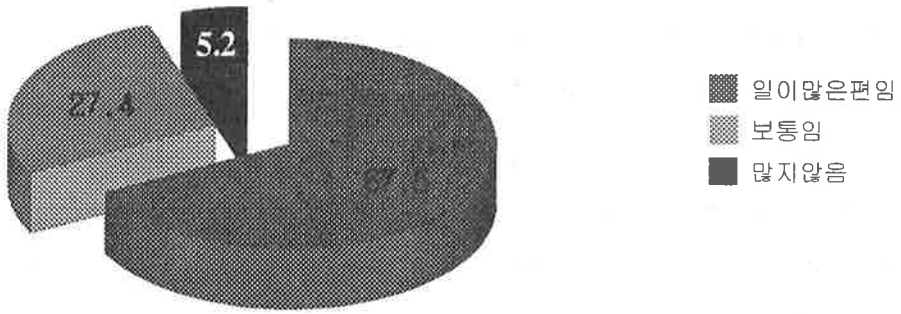
〈그림 3〉 자신의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단위 : %)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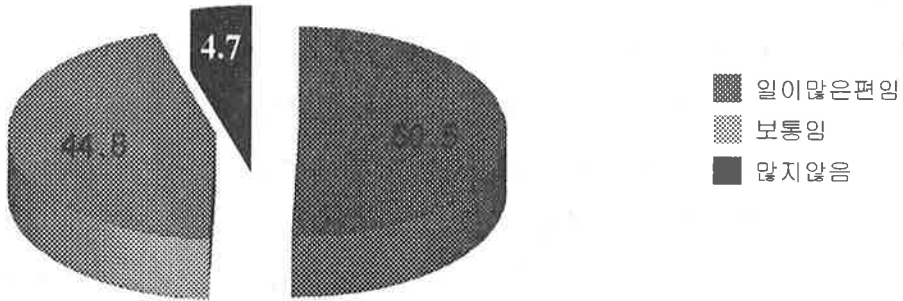
〈그림 4〉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에 대한 농촌여성들의 생각(단위 : %)

부인의 농번기 농업노동 시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단위 : %)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



〈그림 5〉 부인의 농번기 농업노동시간에 대한 남편들의 생각(단위 : %)

2) 남성들은 여성들의 가사분담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고 잘못 알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실태에 관한 한 연구조사에서 “옛날에는 불때서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들일을 못했지만 부엌 개량하고, 냉장고도 있고, 전기솥, 가스렌지 등 지금은 이런 것이 다 해주니까 들에 나오는 것이지, 집안일 할게 뭐 있어요.”라는 어느 농촌 남자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을 읽은 적이 있다. 가정기기의 발달에 따라 여성의 가사노동이 쉬워지고,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러한 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으며, 많은 농촌남성들도 이런 생각으

로 부인의 일을 도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농촌가정의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가전제품의 보급이 도시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지난 30여년간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부엌개량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평균 95 퍼센트 정도가 입식형태의 부엌이며, LPG의 보급으로 평균 85 퍼센트 정도의 농가가 가스를 이용하여 취사를 하고 있다. 전기밥솥,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등은 97 퍼센트 이상의 농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60 퍼센트의 농가가 전자렌지를, 57 퍼센트의 농가가 진공청소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58분으로 5년전에 비하여 36분이 감소하였을 뿐이다.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이 편해지고 시간도 대폭 줄었다는 인식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소량이 크지 않고 절대적 시간도 상당히 길다. 그렇다면 장작 때고, 우물에 물걸어서 밥하고, 시내에 가서 흐르는 물에 손빨래를 하던 시절에 비하여 가사노동 시간이 크게 줄지 않은 것일까? 사회가 도시화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지수도 많아지고, 내용도 복잡해졌으며, 가사노동에 대한 기대치, 표준도 높아졌다. 그러므로 농촌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그리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복잡해진 가정생활과 가전 기기 등을 관리하고 현명하게 소비해야 하는 등 가정관리자, 가사담당자로서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도 이야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채, 많은 농촌 남성들이 “요즘의 여성은 옛날의 어머니들에 비하여 살림살기 편해졌다”는 생각으로, 부인의 가사노동을 돕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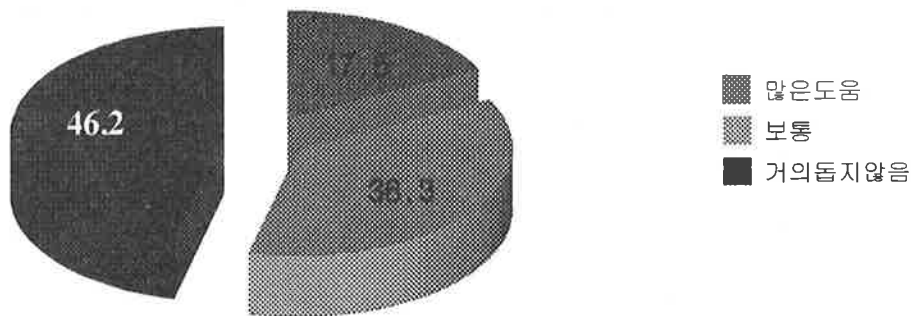
그리고, 가사노동시간의 감소하는 정도에 비하여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의 증가가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농업노동 시간은 8시간 52분으로 88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5년 전에 비하여 39분 증가, 10년 전에 비하여 1시간 22분 증가하였다. 따라서 가사노동시간이 조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전체 노동시간은 증가한 것이고, 오늘의 여성농업인의 노동부

담문제가 심각해 진 것이다.

3) 남편이 도와주는 집안일의 내용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율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과거에 비하여 남편이 가사일을 도와주는 비율이 약간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빨래, 청소, 식사마련 하기와 같은 주된 가사노동은 90 퍼센트 이상이 여전히 주부의 전담영역이라는 점이다. 남편이 부인을 돕는 집안일은 아이보기, 자녀훈육 등의 아주 제한된 종류의 가사노동 영역에 그치고 있으며, 그 분담비율이 적고 미미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사노동 분담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야하는 일”로 생각하기보다 “남편이 부인을 도와주는” 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책임,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부인에 대하여 선심쓰는 일로 보는 이러한 생각은 앞에서 이야기한 전통적 성별 분업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등한 부부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식이 우선 바뀌어야 할 것이다.

가사분담 정도



〈그림 6〉 남편 스스로의 가사분담 정도에 대한 남성들의 생각(단위 : %)

6. 여성농업인의 이중부담에 따른 개인, 가족 차원에서의 문제점

과다한 역할 부담으로 여성이 지치고 힘들게 되면 이는 여성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가족, 나아가서는 농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신체적 건강악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 생활에 대한 불만 등이 정신건강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가정의 자녀양육, 부양, 정서적지지 등의 중요기능의 담당자인 여성이 아프고 행복하지 못하면 이는 전체적인 가족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가족원 특히 부부간 갈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농촌가족의 부부간 갈등문제와 이로 인한 가족 해체문제가 이미 도시 못지 않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그리고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이 건강하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부부간 갈등 등으로 해체하는 가족이 증가하게 되면 이는 결국 농촌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성의 역할 부담증가는 어떤 개인적, 가족적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여성 개인의 문제

(1) 사회문화적 시간 및 생리적 시간의 부족

이렇게 하루 시간의 상당정도를 노동에 쏟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시간과 생리적 시간의 비중이 매우 적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시간은 TV를 보고, 이웃, 친지를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생활 등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의미한다. 생리적 시간은 잠자고, 식사하고, 쉬고, 자기 몸을 가꾸고 하는데 보내는 시간을 말한다. 사회문화적 시간은 부인이 6.2 퍼센트, 남편이 9.8 퍼센트로 아주 미약한 수준이었는데, 특히 부인은 남편보다 하루 평균 51분이 더 적게 사회문화적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문화적 시간과 생리적 시간은 그 날의 피로를 풀고 다음날의 질 좋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특히 단순한 농업보조자가 아니고, 전문 농업인으로서 여성이 한 몫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문화적 시간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건강악화

과도한 노동을 장시간 계속하면서,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생리적 시간 및 사회문화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성농업인들이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여성농업인의 건강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잘 알려진 현실이다. 많은 여성들이 과도한 노동으로 ‘손과 발이 저린’ 순환기계 증상, ‘허리나 등이 아파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근육 골격계 증상, 그리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농민의 직업병인 ‘농부증’ 증상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할 시간을 내지 못하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증상이 완화되도록 설 수 있는 여성이 많지 않은 것이 또한 문제점이다. 여성의 건강 악화는 여성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원 전체의 삶의 질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있다.

(3) 여성농업인의 심리적 복지의 저하

여성농업인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건강, 심리적 복지감도 높지 못한 실정이다. 먼저 농업일과 가사일을 병행하다 보니 가족원, 특히 자녀에게 제대로 주부 역할, 엄마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불안감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TV 등 매스컴에서 쏟아져 나오는 도시의 엄마, 주부들의 아이들에 대한 헌신적 뒷받침, 좋은 교육환경의 제공 등의 소식을 접하면서 여성농업인들은 스스로와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이들은 “나아 놓으면 알아서 크는 존재”였다면, 이제 아이들은 “엄마하기 나름으로” 자라고 “똑똑한 아이는 똑똑한 엄마가 키운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사회 전체가 바람직한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 적절한 환경의 중요성, 특히 엄마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이므로, 여성농업인들은 ‘좋은 엄마’에 대한 강박관념과 도시에 비하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미안함으로 기운이 빠지는 것이다.

또한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우리 농촌이 워낙 남성 중심으로 사회관계가 이루어지므로, 공식적인 사회참여의 길이 막혀있고, 가정에서도 자신들의 경제적

인 기여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불만이 쌓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이러한 일을 “남편을 돕는, 집안일을 돕는” 가사노동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전통적 의식 때문이다. 힘든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하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2) 농촌가족 차원에서의 문제

(1) 가사노동의 질(quality) 저하

우리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에 시간의 대부분과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쏟다보니, 가사노동에 쏟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가사노동은 우리 가정생활이 어제, 오늘, 내일로 유지되기 위하여, 그리고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으로, 매일 일정 정도가 수행되어야 한다. 가사노동에 쏟을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사수행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게된다. 예를 들어 과수농가의 경우 농번기의 가사노동 투입시간이 하루 평균 32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정도의 시간으로는 가정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가사노동도 소화하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하겠다. 과거 농촌에는 대가족이 살면서 주부의 집안일을 거두는 손들이 있었으나, 이제 농촌도 핵가족화가 진행되어서 여성의 가사노동을 도울, 혹은 대신해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면,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영위되기 어렵고, 가족원의 삶과 가족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정의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우리 농촌에는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고 질 좋은 보육시설이 집 가까이에 갖추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경우 애를 업고 일을 하던지, 애를 혼자 집에 놓아둔 채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일해야 한다. 부모의 감독에서 벗어나 또래끼리 모여있거나 혼자 놀게 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2) 가족기능의 수행 및 가족관계에서의 문제

여성이 과중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되므로 가족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인 사회재생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없으며 정서적 안정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녀들을 지도, 감독하고 상호작용할 시간적,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건전한 육아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족 내 노인에 대한 부양도 제대로 제공하기 어렵다. 부부관계도 건조하거나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는 문제가 있다. 노동에 지친 몸으로 집에 오면 부부간에 따뜻한 말을 주고 받거나, 애정을 표현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남지 않아서 쓰러져 자기 바쁜 것이 현실이다. 몸이 피곤하면 서로에 대한 인내심이 적어져 짜증을 부리기 쉽게 된다. 따라서 애정에 기반을 둔 육아나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

(3) 가족해체의 증가

위에서 이야기한 이러한 가사노동의 질 저하, 가족기능 및 가족관계에서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촌가족의 삶을 힘들고 행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일상을 영위하게 하는 원인들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불만이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 가족원간에 긴장과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부부간 잦은 말다툼이나 폭력으로까지 발전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이혼 등 가족해체를 가져오기도 한다. 현재 농촌에서는 주부가 집을 나간 해체가족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가족해체는 결국 개개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며 농촌 지역사회 전체가 그 비용을 치루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Ⅲ. 여성농업인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 무엇을,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 과중의 문제는 단순히 이들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양이나 시간 부담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체 농업생산체계 내에서의 여성의 위치, 농업노동 부담문제, 농촌의 전통적 의식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문제임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성의 노동부담이 여성 자신 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킴으로서,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행복한 여성,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농촌의 현실상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를 줄인다거나 하는 방안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실정이므로, 여성이 농업노동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하자.

1. 여성농업인도 취업주부라는 인식을 가진다

가사노동과 직업역할과의 이중부담 문제는 여성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도시의 취업주부도 여성농업인과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차이가 있다면 도시취업 여성은 자신의 생산노동에 ‘직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여성농업인의 이야기처럼 “도시는 여자가 맞벌이한다고 하면 돈을 버니까 생색이나 내지. 그러나 시골은 더 힘들게 같이 벌지만 생색이 없는 거여. 죽어라구 일해도 한 것 뭐 있느냐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잘못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 자신의 인식을 바꾸어 직업인으로서의 의식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농업일을 하는 것을 “남편을 돕는 것” 즉, 농업보조자로 보는 생각을 바꾸어 당당한 전문인, 농업인으로서의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하는 집안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즉 가사일의 가치에 대해서도 여성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일을 “집에서 솔뚜껑 운전한다” “집에서 논다”고 표현하는 것은 여성이 집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김 종숙의 조사에 의하면, 스스로를 도시취업여성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종사

하는 취업여성이라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응답여성의 약 3분의 1에 못 미치며, 약 41 퍼센트가 남편과 마찬가지로 농사일을 하지만 경영주는 아니다, 즉 보조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두가지 생산활동을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스스로가 자신의 일에 대해 이런 확실한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주위의 의식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2. 남성이 가부장적 생각과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여성의 노동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장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주체는 농촌남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여성이 남편과 함께 농업노동을 하듯이 남성이 여성의 가사노동의 부담을 나누어 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변화방안이다. 생각하기에 따라 극히 쉽고 간단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 농촌의 문제이다. 뿌리깊은 의식을 바꾼다는 것이 하루 아침에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꾸준히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편이 가사일은 여자의 일이며, 부엌에서 남자가 왔다 갔다 하거나 걸레질을 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요즘 여성농업인들이 과거에 비하여 가사일이 줄어들고 편해졌다는 남성들의 생각이 실제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늘어나는 농업노동과 줄지않는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허덕이는 아내의 짐을 함께 나누어 드는 남자가 정말 남자다운 남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여성은 가사일, 남성은 바깥일이라는 과거의 생각이 딱혀 들어가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여성이 바깥일을 남자 못지 않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안일은 여전히 여자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산수로도 계산이 맞지 않는 방식이다. 여성농업인도 변화하고 있어서 과거와 달리 희생과 헌신을 강요할 수 없다. 가정의 안녕과 모든 가족원이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남성들이 큰 폭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3.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을 낮추고,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라

하루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어차피 가사노동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여성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위하여 현명한 일이라는 것이 도시 취업여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처방이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거나 우울해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다. 여성농업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모든 가사노동을 정성을 다하여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보면, 여성에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무리를 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을 사회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가정 내에서 행해지던 가사노동 중 많은 부분이 시장에서 생산되어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다. 어린이를 놀이방에 맡기거나, 외식을 하는 것, 포장에 들어있는 김치를 사는 것 등이 그런 예이다.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쁜 시기에는 이런 식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전략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고 현명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4. 가사노동을 가족원과 분담하라

가사노동을 적절하게 가족원과 나누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물론 남편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남편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집안일을 할 기회를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여성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매우 교육적이기도 하므로, 자녀에게 일을 시키는 나쁜 엄마라는 죄책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 “너는 공부만 하면 되니 집안일은 손도 까딱하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나쁜 교육법이다. 가족원이 모인 자리에서 솔직히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잘 이해를 구하고 가족원의 가사분담을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때 남편이나 가족을 원망하는 것처럼 하거나 신세타령하는 방식이 되는 것, 혹은 강요하는 것처럼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나 남편이 도와주면, 엉망으로 일을 해 놓기 때문에, 결국 주부의 손이 한번 더 가야하고, 그래서 힘이 더 드니까 차라리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이런 주부들은 위에서 이야기한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을 낮추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편과 자녀에게 기회를 주자. 그리고 이들의 작은 도움에도 감사하고 칭찬하자. 그러다 보면 이들이 숙련된 가사조력자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5.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원, 특히 남편의 생각의 바뀔과 가사분담이 필요하지만, 개별 가족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각 지역사회 단위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자녀 보육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보육시설 이용료 부담이 높고 보육시간이 농번기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지 못해, 있는 시설의 활용도도 상대적으로 낮다. 남성과 비슷한 정도의 시간을 농업노동에 쏟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규시간 후에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연장보육소, 야간보육소, 농번기처럼 제한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절 보육소 등 농촌 실정에 맞는 보육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커서 학교에 들어가도 자녀를 돌보는 문제는 여성농업인에게 여전히 큰 문제로 남는다. 방과후의 아이들끼리 뒹으로써 지도, 감독이 불가능하므로 나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또래가 없어 혼자 노는 아이들도 있으며, 학습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농사일을 하면서도 불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기를 출산하였을 때,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농가도우미 제도가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출산 전후 120일 기간 내에 3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면 국고에서 1일 8시간 기준 12,00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00년도에 전국 50개 시군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초기 단계로서 국고 지원액이 적고, 도우미 이용이 산후조리

에 한정되고 이용기간이 출산 전 후 각각 6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한점 때문에 인기가 별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농업인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현실화하고, 이용 대상이나 기간도 융통성 있게 조절하면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보다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줄이고, 사용범위를 출산 뿐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에 걸린 경우, 결혼이나 장례와 같이 큰 일을 치루는 경우, 농업관련 교육이나 기타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부모 부양을 해야하는 농촌여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급 가정봉사원(가정도우미)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종숙,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김인숙, 「농촌가정경영인으로서의 여성농민」, 『21세기 한국농업과 여성농민』, 한국여성농민연구소 주최 2회 농업인의 날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1997.
 농촌진흥청, 「시간으로 본 농가부부의 생활」, 농촌진흥청 생활시간 보고서, 1999.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계획」, 농림부 용역 보고서, 2000.

자녀상담과 성교육, 어떻게 할까?

유 가 효

계명대학교

I. 가족해체의 증가와 부모역할의 중요성

1. 가족해체의 증가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2. 가정에서의 부모역할

II.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성교육의 필요성

1. 우리사회의 성문화
2. 건강한 성문화의 방향
3.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과 성문제

III. 가정에서의 성교육

1. 가정에서의 성교육의 내용
 2. 가정에서의 성교육에 있어 유의할 점
 3. 청소년의 구체적인 성문제와 지도
-

자녀상담과 성교육, 어떻게 할까?

I. 가족해체의 증가와 부모역할의 중요성

1. 가족해체의 증가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오늘날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가족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여 한 해 12만 쌍이나 되고 1년에 결혼하는 3쌍에 대해 이혼하는 쌍이 1쌍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이다. 이는 거의 서양의 선진국 수준에 가까이 가는 수치이다. 우리 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경제적인 파탄에 처하게 된 가정이 늘어나기도 하였지만 가족간의 갈등을 인내하고 가족을 유지하려고 하던 태도들도 크게 변화하여 문제가 생기면 이혼으로 치닫는 부부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혼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편부모가정,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심지어는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 아이들만 남게 되는 가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해체의 결과로 입게 되는 피해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가정의 자녀에게 가장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흔히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나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어느 일방의 부모를 잃었다는 상실감이나 경제적 불안정 외에도 결손가정의 자녀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또 한번 상처를 받게 된다. 즉 부모가 이혼한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거나 학교생활, 또래 관계에서 위축되며 우울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가정을 결손가

정으로 보고 문제시하던 것을 하나의 또 다른 가족형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록 사회적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혼가정, 편부모가정,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들이 늘어가는 것과 더불어 양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만을 정상가정으로 보고 그 나머지는 모두 결손가정으로 보고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백안시하던 우리 자신의 관념을 바꾸어나가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부모로서 이혼이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들간의 폭력 등 심한 갈등이 반복되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비해 이혼가정이나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더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양육을 맡게 된 부모가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공공기관이나 지역사회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은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2. 가정에서의 부모역할

1) 부모역할의 본질

부모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즉 사랑과 통제가 그것이다. 먼저 사랑은 의존적이고 미성숙한 존재로 태어난 어린 자녀가 생존하여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생리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보살펴주는 양육의 기능이다. 한편 통제는 자녀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양식이나 규범을 전수하는 훈육의 기능이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엄격한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엄부자모)라 하여 통제, 즉 훈육의 기능은 아버지에게 부여하였고 사랑, 즉 양육의 기능은 어머니에게 부여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겼다. 이것은 전통사회에서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성역할 분리가 엄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조선시대에 있어 그리고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가 없을 때 그 자식을 “후레자식”이라 보았던 것은 혹

시나 있을 훈육의 부재를 우려했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러한 시각은 하나의 사회적 편견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알기에도 역사상 위대했던 인물 가운데 홀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했던 인물들이 한 두명이 아니다. 공자와 맹자와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한석봉과 퇴계선생이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들을 살펴보면 홀어머니가 사랑과 통제의 역할을 한 몸에 잘 조화시켜 구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맹자에게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세 번씩이나 이사를 한 맹자 어머니의 강단과 오래 만에 집에 다니러 온 사랑하는 자식을 곧 다시 되돌려보낸 한석봉 어머니의 엄격함은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훈육의 역할을 겸비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편부모라 할지라도 사랑과 통제의 역할을 한 몸에 겸비하여 자녀에게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자녀의 성장, 발달을 도울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남성이나, 여성이나에 따른 성역할의 분리보다는 남성, 여성을 막론하고 상황에 따라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결단력있는 남성적 특성을 발휘하는가 하면 또한 자상하고 섬세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여성적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양성적 특성을 갖춘 사람이 현대 사회에서 더욱 더 필요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현대 심리학자들의 주장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2)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른 부모역할의 변화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성장, 발달하면서 변화한다. 자녀가 영아기(출생~2세)에는 주로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유아기(2~6세)에는 양육에다가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과 같이 훈육(버릇들이기)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며, 아동기(7~12세)에는 본격적인 가정교육과 교육환경조성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자녀가 사춘기에 돌입하면서 부모의 역할은 이제까지보다 더 크게 변화의 요구에 직면한다.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권위를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반항을 하는가 하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저런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한다. 부모가 이러한 자녀의 변화와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부모-자

녀 간의 갈등이 커지면 부모-자녀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쉽다. 따라서 자녀가 청소년기에 있는 부모는 단순히 일방적인 훈육자나 교육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쌍방적인 역할로, 자녀의 상담자, 지지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취할 필요가 있다.

3) 상담자로서의 부모역할

그러면 상담자로서의 부모역할은 어떠한 것인가? 과연 부모가 자기 자녀의 상담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부모가 상담자가 되어야 할 자녀문제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상담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청소년기 자녀와의 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자녀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모는 10대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을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부모들은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자녀들 중에는 자기의 감정이나 문제를 표현하는 자녀도 있지만 대화자체를 거부하는 자녀도 있다.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부모가 10대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대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기분에 좌우되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자녀와의 대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망을 가지고 있을 때도 대화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의 부모와 알고 지내면서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할 수 있다.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내담자가 많이 하는가? 대부분의 상담에 있어 상담자의 역할은 주로 듣는 것이다. 어떤 부모들 중에는 일방적인 설교나 잔소리를 대화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대화의 첫걸음은 자녀가 이야기를 할 때 선부른 반응(흔히 비난이나 평가의 색깔을 띠기 쉬운)을 삼가고 그저 듣는 것이다.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을 염려하지 않을 때 자녀는 자유롭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부모는 얼마든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 줄 자세를 갖고 있는데도 자녀가 도

무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부모들도 많다. 자녀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편안한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자녀가 말이 없는 편이거나 이야기를 잘 하려 들지 않을 때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우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즉 자녀의 문제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기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TV를 함께 보거나 다른 일을 같이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친밀감을 갖도록 애쓰는 것이다. 이 방법은 특히 자녀가 말이 없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려 하지 않을 때 효과적이다. 부모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도록 이끌어가는 인내와 기술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자녀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모는 10대 자녀를 둔 부모역할을 편안하고 즐겁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안내자로서의 부모역할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친밀감을 증진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대화의 결과를 다루는 것이다. 대화를 해서 알게 된 자녀의 요구와 소망에 대해 부모는 어떠한 태도는 취해야 하는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자녀의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는 10대 자녀에게 한계를 설정해주고 지도해주어야 할 과업이 있다. 특히 청소년 자녀와는 갈등을 빚기 쉬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진로의 선택, 친구관계, 이성교제문제, 흡연, 음주에 대한 것, 소비습관에 대한 문제들이 이 시기에 부모들이 고심하는 문제들이다.

10대 자녀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자신의 기대와 생각을 알아야 하고 부모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녀와의 문제에 대처하는 두 번째 단계는 자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안내와 지도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10대들은 흔히 새로운 것을

동경하고 자신이 얼마나 높이 날 수 있는지 자신의 날개를 시험해보고 싶어한다. 그러나 동시에 되돌아오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되돌아올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 즉 가정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어하는 동시에 안내받고 지도받기를 원한다. 그들은 어느 경우에도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주면 반발한다. 반면 자유를 너무 많이 주면 부모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은 자신과 자녀에게 맞는 중간지점 즉 균형을 이루는 중용의 지점을 찾아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은 가능한 한 자녀와 극단적인 의견충돌을 피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의 의견대립 없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 어머니는 청소년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문제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 자녀와 대화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이성교제나 혼전 임신에 대해 상담했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이 없을 때는 TV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피차간에 언쟁을 하거나 의견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즉 부모가 걱정되거나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을 제 삼자의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부모와 자녀 양쪽이 모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고 자연스럽게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 자녀의 의견에 대해 ‘안돼’,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와 같은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자녀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

II.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성교육의 필요성

1. 우리 사회의 성문화

최근에 들어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원조교제 등 성 문제의 발생과 성폭

행 발생을 세계 2위라는 보도들은 우리 사회에 이대로 가다가는 안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결국은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성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타락한 성문화의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청소년들의 행동은 그러한 잘못된 기성세대의 성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성교육을 시키는가가 중요하다.

즉,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청소년 성 문제와 성 비행의 원인으로는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 문화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견해들이 있다. 즉, 청소년 성 비행의 원인으로는, 첫째, 성과 관련된 의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가속화되는 성 개방 풍조에 따라 오늘날 청소년들은 점차 성을 쾌락의 도구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하여 퇴폐 향락산업의 발달 또한 청소년의 성적 방종을 조장한다.

둘째, 상업주의적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의 가치판단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바, 저속한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에게 왜곡된 성 지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전보다 성적 자극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남성다움의 고정관념, 곧 남성의 공격성을 찬미하고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는 성 차별적 이데올로기가 남성을 성폭력의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으며, 남성의 난잡한 성행위와 방종은 남성다움으로 보고 여성에게는 여전히 순결을 강조하는 이중적 성 규범이 남성의 성 일탈 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오늘날 가족은 그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관계상의 갈등들이 증대하고 있다. 부모의 권위적이거나 거부적인 태도, 부모-자녀간의 친밀도가 낮은 경우 청소년들이 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흔히 성적 유혹에 빠져 미혼모가 되는 소녀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애정결핍을 경험했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섯째,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의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성 관련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적응력을 상실하고 있다.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은 이성관계에 더 집착하게 되고 고도로 감각적이며 일시적인 성적 유혹에 이끌리게 된다.

여섯째, 학교교육을 통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성교육 부재현상으로 인해 청소년의 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심각한 성적 도전에 직면하여 청소년들이 잘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적극적인 성교육이 시급하다.

2. 건강한 성문화의 방향

우리 나라의 성문화는 여성에 대한 순결 이데올로기와 남성들의 성적 방종에 대한 허용성이 공존하는 가부장적인 이중적 성 규범이 지배하는 가운데 접대부가 200만 명에 이르는 향락적 성소비문화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성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전근대적이면서 성 행동은 개방적으로 앞서 나아가는가 하면 성에 대한 확고한 주체성이나 책임의식은 뒤따르지 못한 채 무책임한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일탈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문화에 영향을 주는 기성세대의 타락된 성문화에 대한 반성과 그것을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성교육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단기적 대응책의 관점에서보다는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고 건강한 성문화를 형성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가장 절실한 대안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 그 중요성을 두고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만들어나가야 할 건강한 성문화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인간생활에 있어 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말에서 성은 성별 구분을 의미하는 일반적 의미와 성행위, 성관계

를 의미하는 특정한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쓰고 있는 성이라는 용어도 성욕, 성교, 성관계 등의 구체적 성행동을 포함하면서 이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이제까지 성에 대해 지배적인 개념은 성을 성교, 성행위를 중심으로 이해하며 성기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을 성기 중심으로 보는 것은 성이 가지는 복합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며 여성의 입장보다는 남성의 입장에서 본 시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 개념은 성을 생리적 현상으로 보고 사회구조와는 분리되는 자율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견해들은 이것을 비판하고 성을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성물로 보고 있다.

성에 대한 규정과 이해는 역사적 시기에 따라, 사회문화에 따라 달라져왔다. 역사적으로 성을 생식을 위한 기능만으로 국한시켜 본 시기도 있었다. 서양의 청교도적인 관점에서는 심지어 부부간의 관계에서 생식이 아닌 쾌락을 추구하는 것조차 죄악으로 보았다. 그러나 동물과 달리 발정기가 따로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식이 성의 유일한 의의며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임신과는 무관하게 인간은 성적 쾌락을 추구해 왔으며 피임, 낙태 등의 출산조절 방법의 발달로 인해 더욱더 성은 생식과 분리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임신, 출산의 역할이 사회를 유지, 존속시키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계속 여성이 맡게 되어 있는 한, 여성은 성행동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 상대자인 남성 또한 간접적이기는 하나 그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책임의식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성을 단순히 자연적인 본능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성은 배고픔이나 갈증과 유사한 일종의 생물학적 현상이며, 성충동이 일어나면 긴장이 생기고 따라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긴장해소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욕과 식욕을 동일시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식욕의 충족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나 성욕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사춘기에 들어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면 성충동이 왕성해져서 성적 욕구충족

을 바라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성본능을 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성욕은 본능이니 만큼—특히 남자의 성욕은 강한 본능이니까—무조건 발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인간은 식욕을 충족시키는 행위조차도 동물과 달리 단순한 본능의 충족이 아니라 문화적인 행위로 발전시켜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성도 역시 문화적으로 학습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의 성적 욕구와 성행동이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에 의한다면, 신체적으로 유사한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성욕을 느끼고 유사한 성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욕구가 적거나 심지어 일생 동안 한 번의 성행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과도한 성욕구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다른 사회의 다양한 성문화들을 비교해 보면 성적 태도와 성행동이란 학습되는 것으로서 성은 한 사회가 만들어내는 사회 문화적 구성물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성욕은 성행위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 에너지는 삶의 에너지로 작용하여 예술활동, 창작활동, 다양한 정신활동 및 스포츠 등의 육체적인 활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표출시켜 가는 방식이 그의 인격형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성을 의사소통이자 인간관계의 표현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인간의 성은 동물과 달리 성기나 성호르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나 혼자만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성을 인간들 사이의 가장 친밀한 의사소통방식으로 본다면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진정한 성적 결합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성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을 도구화하거나 수단화하는 것은 인간자체를 도구화하거나 수단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성을 사회적 구성물로서 보는 시각은 우리 사회와 같은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성문화를 조명해 보는데 유용하다. 가부장제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여성의 성을 규정하여 여성에게는 순결과 정절을 강조

하는 반면 남성에 대해서는 축첩, 혼외관계, 매춘과 같은 성적인 자유를 허용하는 이중적 성규범을 발달시킨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성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하여 공적인 영역에서는 성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되나 사적인 영역에서는 성의 방탕이 용인되고 조장되기까지 한다. 이는 남성에 대해서이고 여성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순결 이데올로기가 강조되어 여성을 정숙한 여성과 부정한 여성의 두 부류로 나누며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의 성은 가계계승을 위한 자식을 얻는 생식의 수단으로 여기고 성적 욕구충족은 기녀나 축첩을 통해서 얻는 식으로 남성지배의 공고화와 여성들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성규범은 성폭행발생을 세계 제 3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은데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서구 자본주의와 성개방 풍조의 유입으로 우리의 가부장적인 성문화는 더욱 왜곡되고 타락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구의 역사에서 보면 중세 기독교전통과 더불어 빅토리아여왕 시기의 성에 대한 억압과 청교도적인 금욕주의가 지배했던 19세기에 반해, 20세기에 들어와 성해방이 시작되었다. 20세기 후반기인 지금은 가히 폭발적인 성충배 내지 성종교의 차원에까지 이르고 있는 인상이다. 상업주의는 인간의 성을 무한한 소비의 대상으로 만들어 성의 자유 내지 성의 해방을 통한 인간해방이라는 거짓된 메시지를 대중에게 퍼뜨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남성과 여성들은 성적으로 매력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얼굴을 성형하고 다이어트와 몸매 가꾸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성이 양성 간의 관계 결속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미친 듯한 영리추구의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성문화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중적인 성의식과 성규범을 타파하고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성규범이 새로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성을 친밀한 의사소통 행위이며 남녀간의 전인격적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성기 중심적이고 성교 중심적인 성행위로만 성을 국한시켜 보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성에 관한 각종의 잘못된 관념들, 편견들을 불식시켜 나감으로서 지나치

게 성을 확대시키거나 축소, 은폐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성은 인간의 삶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삶의 전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성은 가치관이며 인격의 한 표현양식이다. 따라서 성은 조절되고 승화될 수 있으며 주체적인 개인의 책임 하에서 영위되는 생활의 요소인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삶에 있어 자율적인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듯이 성에 있어서도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이 중요시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성 가치관의 핵심적 내용일 것이다.

3.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과 성문제

청소년기는 일생 중 두 번째로 신체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신체발육의 급성장이 나타나는 것과 더불어 성호르몬의 활성화가 시작되어 생기관의 성숙이 이루어진다. 여자는 남자보다 2년 정도 앞서서 신체성장이 시작되어 키가 커지고 체중이 증가하며 유방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 후 1년 쯤 지나 음모가 나타나고 다시 1년 가량 되면 액모(겨드랑이털)가 나고 그 후 6개월이 지나면 대략 초경이 시작된다. 근래에 들어 영양상태가 좋아지면서 초경연령도 점차 빨라져 11~12세 경이면 여아들은 초경을 경험하게 된다.

남자의 경우는 신체발육이 시작되면서 음경과 고환이 커지고 음모가 생겨나면서 3~4개월 쯤 지나 첫 몽정을 경험하게 된다. 몽정이 있고 1년 쯤 지나면 액모가 자라기 시작하고 코와 턱수염이 생긴다.

이처럼 청소년기가 시작되면서 신체적, 생리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함께 수반되는 성충동의 증대와 성에 대한 호기심은 청소년들에게는 그 자체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성충동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는 사실상 그 시대의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 크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형성과 행동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성문화를 모델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가속화되는 신체적 성장으로 청소년기의 시작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그에 반하여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높아진 결혼 연령으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이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서 성행동이 허용되는 시기

는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현대 사회의 청소년 성문제의 딜레마가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사춘기에 들어가자마자 결혼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자.

더구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성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더욱 적나라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신체적으로 이미 어른이 되어 있는 청소년은 아직은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신을 조절하고 독립하기엔 이른 상황에서 눈만 돌리면 도처에 성적인 유혹과 자극물들이 널려 있어 자신의 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도인 것이다. 청소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도록 요구될 뿐 어떠한 대안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지나친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에너지를 전환하거나 승화시킬 수 있는 건전한 서클활동이나 과외활동의 경험을 가질 기회도 전혀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들은 먼저 이러한 청소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부모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 청소년들의 성의식 및 성행동의 실상이다.

2001년 카톨릭문화원의 ‘아름다운 성만들기 센터’에서 대구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중학생들의 성에 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이나 배란, 임신가능기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로는 주로 대중매체로 나타났고 부모를 통해서라는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나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조사에서 중학생의 55.3 퍼센트(남학생 68.3%, 여학생 39.1%)가 성충동을 느껴 보았고 27.3 퍼센트(남학생 36.6%, 여학생 15.7%)가 자위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55.3 퍼센트(남학생 66.8%, 여학생 41.0%)가 포르노잡지, 비디오 등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행위 장면을 나타낸 음란물을 본 적이 있고 성에 관련된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8.7 퍼센트(남학생 7.7%, 여학생 9.9%)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비율은 37.3 퍼센트(남학생 37.6%, 여학생 36.9%)이며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은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낀

정도가 가장 많았지만(36.7%) 포옹이나 키스의 경험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들이 가정에서 성관련 대화나 상담을 한 적이 있는 경우는 20.1 퍼센트(남 14.4%, 여 27.2%)로 성에 관한 가정에서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특히 남학생에서 두드러져 남아에 대한 부모들의 성교육이 좀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중학생들의 성과 관련된 고민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성장(28.4%)이나 이성교제/이성의 심리(20.5%)의 순으로 많으며 다음으로 성충동(13.2%), 자위행위(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Ⅲ. 가정에서의 성교육

오늘날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성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 비롯된다. 즉 성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태도는 가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때 그 때 자녀의 발달 시기에 맞추어 그리고 그들의 성적 발달의 개인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나 가능하다. 요즘과 같이 사회적으로 성개방이 가속화되고 대중매체, 인터넷을 통한 성적 자극물이 범람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한 자극들에 자녀들이 접하는 것을 막기는 극히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자극들에 접했을 때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은 부모들이 길러줄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학교에서의 성교육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에서의 성교육과는 다르게 부모자녀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장에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가정에서의 성교육의 내용

성교육을 해야 할 내용은 크게 나누어 성에 대한 지식과 성에 대한 가치관이

라 할 수 있다. 성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가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구체적이고 상세한 성지식은 전문가가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에 대한 자녀의 질문이나 자녀의 신체변화가 나타날 때 그 때 그 때 설명해 주는 등, 기본적인 성지식은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 성교육의 내용은 또한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시기(1~3), 초등학교 고학년시기(4~6),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성교육내용을 살펴보자.

1) 유아기 및 초등학교 자녀의 성교육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무엇보다 남녀의 차이 및 성기, 아기의 출산에 대해 관심이 많고 질문이 많은 시기이다. 대체로 아동이 성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낼 때 부모들은 당황하며 아동의 행동을 꾸짖기 쉽다. 그러나 성교육의 가장 좋은 시기는 아동이 성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문제행동을 나타낼 때이다. 즉 “아기는 어떻게 생겨?”, “왜 여자는 고추가 없어?”, “엄마 나 어디로 낳았어?” 등의 아동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고 쉬운 말로 사실대로 답해주는 것이 좋다. 성에 호기심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질문은 아동이 단순히 궁금해서 표현한 것인데 부모가 당황해하거나 말을 더듬거나 “너는 아직 몰라도 돼”라고 반응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 부모가 알고 있는 사실을 편안하고 담담하게 솔직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이때 생식기의 명칭을 정확히 알려주는데 남자의 성기는 음경, 고환이라고 하고 여자의 성기는 음순이라고 말해주며 여자의 몸 속 깊은 곳에는 아기집이 있어서 함부로 때리거나 똥침해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 아기를 낳을 몸이니까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지도한다.

아동들은 귀나 코에 손가락을 넣거나 팔, 다리를 만져보는 등 자신의 몸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기를 좋아한다. 아동이 성기를 만지는 것도 신체의 다른 부분을 만지는 것처럼 신체의 일부를 탐색하는 자연스런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성기를 만지다 우연히 쾌감을 느끼고 이런 행동을 반복할 수

있으므로 부모는 아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그 밖에도 몸이 청결하지 못하거나 습진 등 질환이 있을 때 혹은 몸에 꼭 끼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아동이 신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성기를 만질 때 부모가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야단을 치며 못 만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다. 그 결과 아동은 몰래 숨어서 성기를 만지고 불안이나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왜, 거기를 만지니?, 더러워, 손씻어라!, 너 거기를 자꾸 만지면 벌레가 나와” 라는 식으로 말할 경우도 성기는 더러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 아동이 성기를 만지는 것에 쾌감을 느껴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지속할 때는 자연스럽게 아동이 선호하는 다른 활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밀가루반죽놀이, 모래놀이, 블록놀이 등 아동이 좋아하는 놀이에 몰두하다 보면 차츰 성기를 만지지 않게 된다. 또한 성기를 자극하지 않도록 아동에게 편안한 옷을 입히며 몸을 청결하게 하여 습진 등 질환으로 아동이 성기를 만지지 않게 한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성기를 내놓고 장난하거나 자랑하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성장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므로 좋은 말로 다음과 같이 타이르는 것이 좋다. “성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 함부로 내놓거나 장난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준다.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 발생율의 3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이 시기부터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꼭 필요하다.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속옷을 입은 인형을 보여주거나, 또는 실제로 목욕을 시키고 난 뒤 속옷을 입히면서 “옷안의 네 몸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이 만지게 하면 안된다”라고 이야기한다.

둘째, 누군가가 불쾌하게 느껴지는 접촉을 할 때 단호하게 “안돼요,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셋째, 가해자가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또는 “말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 “싫어요, 비밀로 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라고 한다.

넷째, 낯선 사람의 차를 혼자 타지 말고 낯선 사람이 끌고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즉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가르친다.

다섯째,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일러두고 어린이가 혼자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급히 연락할 수 있는 곳의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여섯째, 공공화장실에 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친구나 어른하고 함께 가도록 일러둔다.

일곱째, 어디 갈 때에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꼭 알리도록 한다.

여덟째, 아이에게 “너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보호해 줄테니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곧장 이야기해라”라고 일러준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자녀의 성적인 발육이 시작되며 초경과 몽정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생리와 몽정에 대한 설명을 계기로 성교육에 들어갈 수 있다. 여아에게 월경은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이며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귀한 몸임을 설명하고 남자아이에게도 월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월경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현상을 말해주고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도한다. 남자아이에게는 몽정에 대해 설명한다. 이 때 그림이나 성교육비디오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남녀의 생리적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격적으로는 같음을 강조한다.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시절의 남녀의 만남은 친구로서 교제하는 단계이고 성인이 됐을 때, 결혼했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알려준다.

2) 청소년 자녀의 성교육

(1) 성에 대한 가치관 교육

앞의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 스스로도 상당수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 사랑, 결혼간의 관계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에 대한 가치관 확립의 중요성이 큼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성에 대한 가치교육은 성에 대한 기존의 관념들이 가지는 허구성과 성차별적인 요소에 문제의식을 갖게 하여 잘못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주체적인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앞장에서 성에 대한 관념부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성을 인격의 한 요소이며 인간관계의 표현으로 보고 양성간의 평등한 관계,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기초로 바람직한 성관계가 형성됨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성행동에 있어서도 주체적인 의지에 따른 자기결정권과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란 원하지 않거나 옳지 않은 것을 과감히 거절할 수 있고 거절당하는 쪽 역시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상담사례들에서 보고된 것을 보면 여성들의 경우 좋아하는 상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또는 분위기의 압력에 못 이겨서 원치 않는 성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타율적이거나 잠재적으로 강요된 성 행동으로 보아야 하며 성에 대한 주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성에 대한 가치관 교육은 성에 대한 주체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고 상대방은 그를 존중,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성에 대한 책임이란 상대방에 대해서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행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에 함께 책임진다는 뜻이고 예방조치에 함께 신경을 쓴다는 의미이며 상대의 소망이나 욕구에 배려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실제로 청소년들의 성행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곡된 성 정보나 성관념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발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는 동시에 남녀 모두에게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책임의식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 성지식 및 성행동에 대한 교육

성교육을 하기에 앞서 먼저 현재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무엇을 더 알아야 할 것 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유도적 질문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요구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자위행위, 이성교제, 성병, 임신, 출산, 피임, 성충동 해소방법 등에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관심은 학업이나 진로, 성격 등에 관한 것보다 월등 높아 전체 청소년상담 건수 중 6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 질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예를 들면 자위행위가 건강에 나쁜지, 포르노비디오에서 본 성행위가 사실인지 등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이러한 내용의 성교육을 받고 싶다는 청소년은 20 퍼센트 정도에 불과했으며, 질문한 적이 있는 청소년도 20 퍼센트 가량에 지나지 않았다. 아직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이러한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쑥스러워서 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렵다면 TV나 신문, 잡지 등을 함께 보며 거기에 실려 있는 성에 관한 장면이나 기사를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에는 이성교제에 대한 지도도 필요하다. 무조건 못하게 막는 것 보다는 이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주고 이성교제의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을 지도한다. 간접적으로는 공부에 대한 지나친 압력을 주지 않으면서 자녀와의 대화통로를 열어 놓아 이성교제와 관련된 사항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청소년기에는 공부에 압박감이 있고 장래 문제도 불확실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한 도피처로서 이성친구를 사귀고 관계가 깊어질 우려가 있다. 이성친구에 대해 이야기

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잘 들어주는 것은 자녀가 자기 자신 및 상대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해준다.

(3) 성역할 교육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와야 한다고 생각해 왔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왔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올 사회에서 남자는 남자답기만 하고 여자는 여자답기만 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는 ‘남자의 영역’과 ‘여자의 영역’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시대이다. 남자 혼자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딸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진 여성’이 될 것이고 우리의 아들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그동안 사람들이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라고 생각해온 특성은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가지고 태어나는 고유한 특성이라기 보다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직업세계에서 특히 필요한 특성은 ‘남자다움’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특성은 ‘여자다움’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 여성은 직업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성격, 소위 말하는 남성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반면 남성은 가족생활에서 더 이상 소외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여성적인 특성도 갖추어야 한다. 현대 사회와 미래 사회에는 이와 같이 양성적인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보다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며 아들이 남자답지 않고 딸이 여자답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이 잘 적응해가고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관대하게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4)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

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성폭력의 원인은 첫째, 인간을 쾌락추구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에서 비롯되며, 이에선 남성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다고 보는 사회적인 통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성산업의 발달로 인한 향락, 퇴폐적인 문화의 범람으로 인해 힘이나 능력이 있으면 여성의 성은 정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심어지는 것도 그 한 요인이다. 셋째,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을 한다. 즉 ‘피해자가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이...’라고 오히려 비난하는 분위기와 순결을 잃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으로부터 오는 피해가 더 큰 것 때문에 성폭행을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신고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가해자에 대한 허용적, 동정적인 분위기로 인해 처벌이 무겁지 않은 것도 성폭력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청소년기에 성적 주체성을 확고하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앞에서 다루었듯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싫은 느낌의 신체 접촉은 피하고 단호히 거부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또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기 존중감, 사랑 받는다는 느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여 주체성을 확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자녀의 인격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당한 자기 주장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이것이 성에 대한 주체성, 자기결정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2. 가정에서의 성교육에 있어 유의할 점

첫째,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공식적인 성교육과는 달리 일상생활 속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자녀의 성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거나 막지 않아야 하고 성에 대해 금기시하고 억압하지 않음으로써 성에 대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를 통해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를 받아들여 내면화할 뿐 아니라 자신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해결방법을 떠올릴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커가는 자녀의 성적 성숙과 성에 대한 관심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오늘날 사회

적으로 성적 자극이 만연하고 점차 성적 성숙이 빨라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

둘째, 부모들 자신의 성에 대한 이해나 의식을 새롭게 한다. 성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부모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성과 성교육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요구되며, 가능한 한 성에 대해서 모른척하고 무관심하도록 하는 성교육 방법을 지양하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 자신의 남녀 차별적 성관을 지양해서 남성은 충동적이고(도둑, 늑대), 여성은 순결을 지켜야(정조)한다는 이중적 성규범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남아에게는 개방적으로, 여아에게는 폐쇄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성문제를 더욱더 조장할 수 있다. 또한 딸이나 아들 모두 이성의 성적 발달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즉 남성은 여성의 성생리에 대해, 여성은 남성의 성생리에 대해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친밀한 인간관계의 의사소통 방식으로서의 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이성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이러한 부모의 가르침은 부모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장 잘 가르쳐질 수 있다. 즉, 화목한 가정분위기와 서로 존경하며 아껴주는 부부관계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의 성문제가 있을 때는 주위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소년 상담기관이나 전화상담, 전문가를 활용한다.

3. 청소년의 구체적인 성문제와 지도

1) 이성교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아이

성적 성숙에 도달한 청소년들이 비슷한 또래의 이성에게 관심을 갖고 이성교제를 하고 싶어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과도한 이성교제나 바람직하지 못한 이성교제는 간혹 청소년들의 성장

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성교제가 지나치다, 지나치지 않다, 혹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이성교제로 인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자녀의 이성교제와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부모들의 지나친 걱정이며, 또 하나는 아이들 자신이 이성교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성교제를 해서 생길 지도 모를 문제들을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그 결과 자녀를 과도하게 통제하려 들고 이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를 불신의 관계로 만들고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피하며 이성친구와의 관계를 감추게 된다.

한편, 이성친구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아이는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내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은 자기 인정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들은 부모나 주위 어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에 회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이 성취해야 할 목표나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자신감을 잃고 결국 이성관계만이 그들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게 되어 더욱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성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자녀를 지도하려면 먼저 부모들이 자녀의 이성관계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자녀의 이성교제에 좀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자녀들의 행동을 쉽게 허용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성교제에 대한 자녀의 생각과 기대 등을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이 아닌,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자녀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부모의 자세를 말한다. 부모가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자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계의 실상을 솔직하게 의논할 수 있고 이런 의논 과정에서 자연스런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과정에서 부모의 지나친 불안과 고정관념은 오히려 큰 방해요인이 된다. 부모는 자녀들 자신이 삶의 목표와 자긍심을 갖도록 믿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자녀들은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게 될 것이다.

2) 성에 대해 지나친 호기심을 보이는 자녀

성에 대해 지나친 호기심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생활이 단조롭거나 외로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이기 쉽다. 자기표현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다가 우연히 성적 자극에 접하고 그에 몰입하면서 더욱더 외부와 차단된 생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성충동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활발한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권장하기도 한다.

한편 요즘과 같이 성적인 자극물이 비디오, 인터넷 동영상, CD를 통해 범람하는 시대에는 유해한 음란물에 자녀가 노출될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음란물로부터 자녀를 차단시킬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학습을 방해하고 성충동을 증가시키며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성폭행을 저지른 청소년 가운데는 ‘음란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해보고 싶었다’는 경우들이 있다.

이외에도 음란물이 해로운 것은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비하시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들이 많고 정상적인 성보다는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근친강간 등 비윤리적 관계를 설정하고, 인간가치를 비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들에게 이러한 음란물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녀가 이러한 음란물을 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크게 문제삼거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온정적이면서도 침착한 태도로 대처하여 대화를 통해 외설물이 성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면이 있음을 알게 하고 음란물로부터 얻는 성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음란물에 대한 면역성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음란물에 접하는 기회를 가급적 줄이는 것도 필요한데 요즘에는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를 청소년 자녀의

방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거실에 두는 등 가족이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녀가 밤늦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시키며, 부모가 컴퓨터를 배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음란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유해한 사이트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우리사회의 성문화를 건전하게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부모들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KBS문화사업단, ‘자녀교육 이젠 자신있습니다-청소년기’, 『KBS자녀교육신서』 4, 1995.
- 변화순 외 2인,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9.
- 이옥 외 2인 공역, ‘청소년자녀에게 이렇게 하세요’, 학지사, 1995.
- 아름다운 성만들기 센터, ‘성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청소년의 성의식조사’, 『심포지움자료집』, 2001.
- 유가효, ‘청소년의 성문화와 성교육프로그램 방향모색’, 『과학논집』 제 23집, 1997.
- 유가효,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성의식’, 성행동과 성교육에 관한 연구, 『과학논집』 제25집, 1999.
- 한정자 외 3인, ‘중학생 학부모용 성교육 읽기 자료개발’, 한국여성개발연구원, 1994.
- 한국여성개발원, ‘사춘기자녀의 성,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한국여성개발원, 1994.



농가 생활설계와 소비생활

최 윤 지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I. 들어가는 말

II 농가 생활설계와 소비생활

1. 농가경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 왜, 재무관리를 하여야 할까?
3. 생활설계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할까요?
4. 생활설계는 나의 재정상태 평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5. 생활설계 수립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봅시다.
6. 생활설계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예산수립!
7. 합리적으로 소비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II. 나가는 말

농가 생활설계와 소비생활

I. 들어가는 말

행복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소망하는 바이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우리가 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을 가능한 많이 하고 소유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욕망을 줄이고 금욕함으로써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욕망을 억제하여 행복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고 한 공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돈의 중요성과 위력을 느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돈은 행복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회에서 인정 받는 성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신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이 동시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가구를 사거나 여행을 하거나 교육을 시킬 때는 물론이고 단지 쉬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농가주부 30명을 대상으로 한 농가 재무관리 실태조사 결과 농가 가게관리자들의 재무관리 지식수준에 있어서 대출(34.5점)과 보험 분야(29.1점)에서 점수가 낮았으며,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보증이나 보험에 관한 피해사례가 많았다. 금융 정보 경로는 TV 및 라디오가 70 퍼센트, 그 다음이 농협 60.6 퍼센트로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재무설계 요령과 기본적인 금융·경제 용어 등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농가 가계는 도시근로자 가구와는 그 특징이 다르다. 월급생활을 하는 가계의 경우에는 매달 일정한 시기에 일정액의 소득이 있고, 그것이 모두 가계로 들어가지만 농가의 경우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농가 가계의 현금 소득 중 농업관련 현금소득은 농업 생산물에 따라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다. 또 기후와 그 밖의 생산 조건에 영향을 받아 해마다 소득액의 변동이 크다.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이 모두 가계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의 확대를 위한 투자에 쓰이기도 한다.

위와 같은 농가 가계의 특징을 살펴볼 때, 무계획적인 가계운영으로는 생활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일의 생활을 보장하고 보다 밝고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무엇보다도 가계운영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생활설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생활설계는 개인 및 가족원이 보람 있고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장래에 대한 생활계획의 구체안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경영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 가능한 계획이어야 할 것이다.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가족원 모두가 바라는 목표와 현재의 실태를 잘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생활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정생활 진단에서 생활설계는 출발된다고 할 수 있다.

각 가정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정의 목표는 건강하고 풍부한 살림살이, 즉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생활설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들어온 소득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소득과 지출에 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가계를 운영해야 한다.

II 농가 생활설계와 소비생활

1. 농가경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농가가 농업경영에 의하여 생활하는 방식에는 생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현금으로 필요한 생활 용품을 구입하여 생활하는 방법과, 필요한 생활용품을 직접 생산해서 생활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겹쳐 있다.

농가의 생활은 예로부터 주로 자급 생산에 의하여 유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발전과 함께 화폐 경제 시대에 들어오면서 상품 생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오늘날, 농가에서 생산된 쌀, 보리, 채소, 과일, 우유, 달걀 등의 일부는 자급용으로 소비되지만, 대부분은 판매되어 현금 수입이 된다.

그리고, 이 현금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비료, 사료, 농약, 종묘, 가축, 농기구 등의 생산 자재구입과 고용 노동자의 임금으로 일부 지출되고 남은 일부는 가계에 들어와 가족의 생활유지를 위하여 소비된다.

나머지는 저축되어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투자되거나, 가족의 보다 풍족한 미래 생활을 위해 저축된다. 최근에 이르러 농업 경영에서 상품 생산의 비중이 점차 높아 가고, 농가는 상품 생산의 확대에 의하여 현금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가 경제는 화폐 경제의 부분과 자급 경제의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그 비중 지역에 따라 또 농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농가 경제의 목적은 결국 생활의 유지와 향상, 가족원의 복지에 있으므로, 농업 경영에서는 상품 생산을 되도록 많이 하여 현금 수입을 높이는 한편,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급생산으로 생활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생산을 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겸업이나 부업으로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농가는 농업 경영에 의하여 생활하고, 농업 경영과 생활이 밀접한 하나의 경제 단위를 만들어, 그 속에 생산 경제에 속한 부분과 가정 경제에 속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도시 월급생활자의 가정과 크게 다른 농가 경제

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 가계관리자는 이와 같은 특징을 잘 이해해서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왜, 재무관리를 하여야 할까?

우리의 생활은 각종 사건과 질병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이 풍부하다고 가계의 경제적 안정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어떠한 요인들이 가계재무관리를 필요로 하게 하는 것일까?

1) 예측 가능하지만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이 필요한 사건들에 대한 대비

가정이 형성되어 해체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경제자원을 지출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다. 사람에 따라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의 결혼, 자녀출산, 주택마련, 부모님의 환갑이나 칠순, 자녀의 결혼 등은 대부분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 가능한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자연스러운 일련의 과정으로 여겨지며 예측가능한 일들이지만 가계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가정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건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 크기를 예측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대비

교통사고 및 각종 질병과 사고에 의한 가계부양자의 투병이나 사망은 피부양자들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가계부양자의 소득창출을 저해할 수 있는 단기적인 질병이나 사고, 자연재해, 산업재해 등 예기치 못한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고 이러한 사건들은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적 요구와 부담을 안겨주어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기치 못한 만일의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민스터 풀러’는 부(富)란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는지의 능력문제라고 하였다. 즉 “내가 만약 오늘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나는 며칠을 더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부의 척도라는 것이다.

3) 평균수명의 연장과 부양의식의 변화

평균수명의 연장은 은퇴이후의 생애기간이 늘어남을 뜻한다. 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어민 연금제도가 실시되어, 앞으로 일정한 소득원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한 시기에 비하면 훨씬 적은 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의 조사결과를 보면 농촌노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농촌 노인들 중 26.3 퍼센트가 본인과 배우자 생활비, 24.4 퍼센트는 약값 및 의료비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핵가족제도의 확산으로 노부모를 자녀가 부양한다는 의식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 평균수명이 75.12세로 남자의 평균수명인 70.56세보다 7.6년 가량 더 긴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일반적인 결혼연령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여성이 7.6년 이상의 노년기간을 혼자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단순히 출생-사망만을 가지고 계산한 평균수명과는 달리 질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간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계산한 건강수명은 평균 62.3세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생활자금의 크기 또한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후자금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큰 부담 없이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기변동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저하시키므로 가계의 안정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근래에 들어서는 경기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기의 변동은 우선 가계의 실질소득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원을 상실하게 만들기도 한다.

소비자 물가의 상승은 가계의 실질소득의 저하를 가져오며,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클 경우에는 가계의 복지수준의 향상은 물론 현상의 유지조차 어려워진다. 특히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가계는 소득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주소득원이 근로소득인 가계라 할지라도 직업의 형태에 따라 직업안정성이 크게 다르므로 자신의 소득원의 안정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미리 준비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소비환경의 변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양되었고, 이렇게 소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므로 가계는 주로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요소를 기업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아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하여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눈부신 발전으로 각종 소비 행태의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매한 재화의 결제 수단도 다양해져서 결제수단에 따른 득실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더 나아가 개인의 소득능력과 더불어 신용이 경제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관리가 가계의 생활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여겨진다.

이러한 가운데 가계의 목적이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지만, 한

정된 자원을 가지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인간의 무한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효율적인 소비를 위해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사용하며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구매지식을 활용한다면 같은 자원으로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6) 복잡해진 가계 재무구조 환경

현대 자본주의하의 경제생활에서는 개개인이 그들의 책임하에 자신의 경제생활에 대해 스스로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속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으로 가족구성원이 접하는 시장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가계가 접하게 되는 재무환경의 구조는 다양한 신용카드의 도입, 구매방법의 다양화, 유통시스템의 변화, 각종 용자 제도, 가계의 재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책 등으로 인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경제적 선택의 기회가 증가되었고 가계의 재정적 요구(need)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폭과 경제적 복지도 더욱 증진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정보탐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이 잘못된 선택이나 효율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며, 그에 대한 손실과 위험의 폭도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적절한 경제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을 줄이고 더 나아가 가계가 가진 재정자원의 활용도를 향상시키는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가족 구성원이 향유할 수 있는 복지수준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가계재무관리자가 항상 최신 정보를 탐색하여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재정적 요구를 분석하여 그에 알맞은 재무관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재무관리를 통하여 생활수준의 유지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 또는 최소화한다면 자신의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해서는 재무설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재무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이,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여 장래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무관리설계시 고려할 사항

- 소득창출과 소득향상: 정기적 소득 외에 추가적 소득의 원천 고려
- 저축과 투자: 적절한 저축과 투자수단 선택, 포트폴리오 구성
- 소비자신용 이용: 신용카드와 부채관리
- 지출관리: 일상적 생활비 관리 외에 고액내구재(자동차, 주택 등) 구입
- 위험관리: 적절한 위험보장 상품구매, 보험관리
- 세금관리: 실질소득 극대화를 위한 세금관리
- 은퇴계획: 노후준비, 상속과 증여 계획

7) 유산보다 더 소중한 용돈교육

돈은 버는 것 보다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1,000원을 버는 것 보다 1,000원을 절약한다면 그것이 더 이익이다. 왜냐하면 1,000원의 소득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돈교육이 필요하다.

샤론 레흐트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기본적인 선택이 있다. 즉 안전하게 살거나 현명하게 사는 것이다.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교육을 받고, 금융재능을 일깨워야 한다고 하였다.

금융재능을 일깨우는 교육의 시발점은 용돈관리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 보다 적은 돈이라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용돈교육 십계명

1. 엄마가 가계부 쓰는 것을 수시로 보여준다.
2. 용돈은 주급제로 주는 것이 좋다.
3. 안이 들여다 보이는 저금통을 선물한다.
4. 시장에 틈틈이 데리고 다닌다.
5. 세배돈은 동전으로 준비해서 준다.
6. 용돈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해 준다.
7. 집안 일의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은 자제한다.
8. 용돈 기입장을 일주일 마다 확인한다.
9. 모자라는 돈은 스스로 마련하도록 한다.
10. 신문을 통해 우리 나라의 경제 사정을 이해시킨다.

3. 생활설계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할까요?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계란 한 가정의 경제생활 또는 그에 관련된 경제적 의사를 결정하는 단위 그 자체를 뜻한다. 한 가계가 당면하게 되는 기본적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그 가계의 목표가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각 가정은 확실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기에 서로 다른 목표들을 설정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화폐소득이 요구된다. 또한 경제적 목표의 가장 첫째가 경제적 안전성(Security)이고, 둘째가 생활수준의 향상 즉 가계가 유지하는 소비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끝으로 자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줌으로써 자신들이 경험한 것 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갖도록 자기 세대의 현재 소비를 스스로 희생하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 가계의 일생소득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생을 통틀어 소비의 흐름은 대체로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소득의 흐름은 점차 상승하여 장년기 또는 퇴직 직전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다시 하락하는 포물선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사람이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루어 가구주로 출발하는 청년기에는 부(-)의 저축 또는 소비성향을 보인다. 그러다가 점차로 장년기에 이르면서 정(+)의 저축을 가지고 청년기의 차용금을 상환할 뿐만 아니라, 노년의 생계에 대비하는 준비를 갖추고 노년기에는 과거보다 낮아진 소득에 추가하여 지난날의 저축을 지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건전한 가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가정경영을 장기적 전망하에 관리·운영하면서 동시에 한정된 수입을 효율적으로 배분·지출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활주기(Life Cycle)에 기초한 영농 및 생활설계를 수립함으로써 각 단계에 필요한 경비와 수입의 균형을 체크한다면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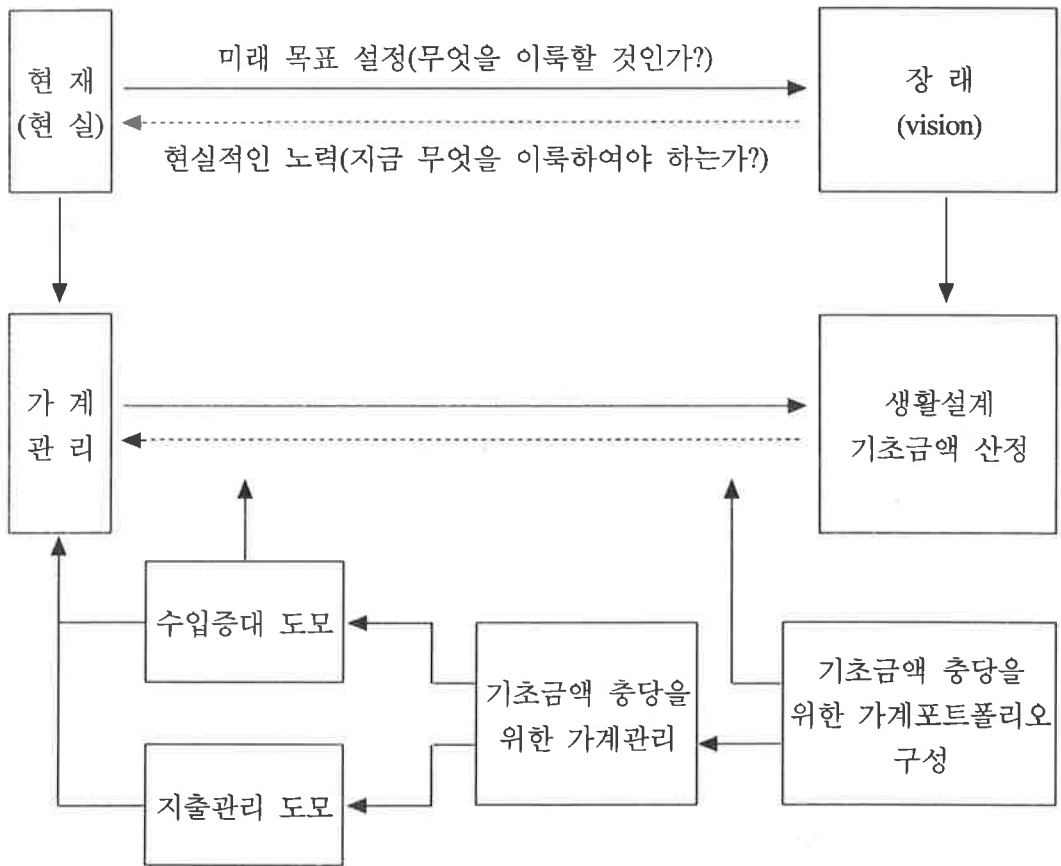
1) 생활설계란 무엇인가?

생활설계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사회 환경의 변화나 미래의 변화, 즉 생활의 변화를 예측하고 여기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생활설계의 주요 관심은 경제적인 문제, 즉 소득과 지출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즉, 각 가족원의 욕구와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출과 각 가정의 예상되는 소득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양자간의 금액의 균형뿐만 아니라 시기의 문제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2) 생활설계의 작성

생활설계를 실천함으로써 “미래의 자산 및 자신의 장래가 나타남을 해서 생활설계를 할 생각이 없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생활설계에는 장래 생활의 모습

(vision)이 설정되어 지기는 하지만, 그것의 실현을 소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생활모습(vision)과 현재 생활과의 피드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생활설계의 피드백(feed-back) 과정

목표와 비교 피드백함으로써 현재 나의 생활에서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실천할 경우만이 비로소 생활설계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활설계 작성을 6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생활설계 수립을 위한 단계별 내용

단 계	내 용
1단계	○ 생활주기표 작성
2단계	○ 생활주기별 확정적인 생활사건 기록 ○ 필요한 재화·서비스 기입
3단계	○ 생활사건 해결을 위한 비목 계산
4단계	○ 연간 수입·지출 파악 ○ 생활비, 총저축액, 총부채액, 월부채상환액 등
5단계	○ 경제적 보장상황 파악 ○ 저축금, 자산수입, 연금액 등
6단계	○ 생활설계의 시안 작성

<1단계>에서는 우선 가족의 생활주기를 예상하는 일람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현재의 가족의 연령을 출발점으로 해서, 매년 연령을 더해 나가는 것과 함께 예상가능한 모든 생활사건(life event)을 기입하여야 한다. 결혼연령이 새로운 가족을 꾸미는 출발점이 되므로 이 연령을 기점으로 가족달력을 작성하고, 자녀의 탄생·성장이 가져오는 학교입학, 졸업, 결혼 등의 생활사건을 기입하고, 가족원의 평균여명도 기입한다.

<2단계>는 생활주기표에서 우선 확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생활사건이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를 각각 기입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 노후생활, 나아가 선택적인 사건인 내구재 소비의 구입, 여행 등 장기설계 항목을 열거하여 본다.

<3단계>에서는 각 생활사건의 실현을 위한 필요한 비목을 계산해 본다. 계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4단계>는 가족의 수입을 예상하고 자산을 계산하는 단계로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가계 재정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연간 수입과 지출의 파악, 필요로 하는 생활비, 저축액, 부채와 상환액, 상환방법을 명확히 한다.

<5단계>는 가정의 경제적 보장상황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저축금·유가증권 등에 의한 재산수입의 파악, 연금 등을 합하여 상황을 파악한다.

<6단계>는 장기생활설계 계획의 시안을 작성하는 단계로 연간 수입과 지출, 자산, 경제적 보장상황 등에서 생애수입과 지출의 조정을 시도하는 것에 의해, 시안을 실현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해, 생애설계 계획을 점검·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생활설계는 나의 재정상태 평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활설계를 하는 데 그 가정이 소유한 경제적 자원을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래야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액과 균형을 맞출 수 있고, 목표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원은 주로 현금 수입, 부동산 및 재산, 사회보장으로부터의 수입이 포함된다. 경제적 자원을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가계 재정상태의 위치, 즉 지금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소득은 얼마이며 지출은 그에 맞게 하고 있는지, 가계의 자산은 어느 정도 인지, 가족원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의 돈이 더 필요한지, 나의 재무상태 또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건전한지 등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분석이 바로 가계 재정상태 평가이다.

〈표 2〉 재정상태 평가도구인 농가 가계운영 진단 지표

구 분		기준
경제적 안정도	Index1) 연평균소비지출/연평균 가처분소득	0.6이하
유동성	Index2) 유동자산/연간지출액	0.4초과
	Index3) 유동자산/순자산	0.3초과
부채부담	Index4) 연간부채상환액/연간총소득	0.35미만
	Index5) 총부채/순자산	1.0미만
	Index6) 실물자산/총부채	1.0초과
금융자산 축적정도	Index7)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0.2초과

<자료> : 농촌생활연구소 시험연구보고서(1999)

1) 재정상태 평가를 위한 도구

가계의 재정상태를 소득, 자산, 부채 등 두 가지 이상의 재정적 항목으로 이루어진 비율을 이용하여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재정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경제적 안정도 지표

경제적 안정도 측정의 객관적 방법은 한 개인 혹은 가계의 소비요구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경제적 자원 중에서 가족원들의 소비요구에 대해 가장 먼저 이용되는 것은 물론 현금 상태의 소득일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안정도를 사용가능한 가처분소득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율(연평균소비지출/연평균 가처분소득)로 측정하였다.

3) 유동성 측정지표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TV와 라디오를 통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유동성 부족’이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바로 이 유동성 위기에서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시작되었다. IMF동안 우리가 들은 생소한 말 중 또 다른 하나는 ‘개인파산’이라는 말일 것이다. 법원에서 개인파산(소비자파산)을 누가 선고 받았더라는 뉴스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유동성의 부족은 가계의 위기뿐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유동성이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가계 내의 유동성이란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가계의 소비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가계 재정관리를 하는 이유가 발생가능한 재정적 위험(건강악화, 실업, 갑작스런 사고 등)과 관련된 사건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을 때, 가계관리자들은 항상 가계의 위험대비를 유념하면서 재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대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유동성 측정지표인 것이다.

유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index 2, index 3이 있다. index 2(유동자산/연간지출액)는 단기유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며, index 3(유동자산/순자산)은 가계의 장기 유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4) 부채부담 측정지표

부채는 자산관리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과도한 부채는 소비생활을 제한하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IMF로 인해 부채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가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부채부담 측정지표는 이러한 부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무관리 관련 교과서들에서는 부채를 사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과중한 부채부담을 저축과 투자는 물론 교육·오락 등에 대한 지출을 일차적으로 줄이게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생활이 지속된다면 생활의 질 저하를 가져옴과 함께 가계파산의 지름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부채를 차용할 때 차용한 계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차용에 대한 요구의 정도와 채무의 상환능력이다. 차용의 필요성이 높고 채무상환능력이 높다면 차용의 상환선이 높아질 것이다. 이기준은 차용의 한계선을 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다.

- (1) 부채와 순자산의 비율검토
- (2) 필요하다면 모든 부채를 3년 이내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3) 부채의 상환을 위해 가처분 소득의 몇 퍼센트를 사용해야 하는지 검토

한편, 신규로 부채를 사용할 때는 항상 자신의 가계가 지고 있는 총부채액이 얼마이며, 자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한 후에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부채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3종류 제시하고자 한다.

- (1) 연간부채상환액/연간총소득 : 가계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지표

이다. 이 지표의 기준은 0.35미만(<0.35)으로 제시하였다. 즉 연간 총소득액의 35 퍼센트미만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가계를 건전한 재정상태를 가진 가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총부채/순자산 : 총부채 규모가 순자산의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이 지표의 기준은 1.0미만(<1.0)이다. 이 지표는 가계의 지불능력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 1.0미만이여야만 지불능력이 있는 가계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즉 총부채가 순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무관리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1.0이상인 가계라면 가계내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기에 가계파산 상태임을 의미한다.

(3) 실물자산/총부채 : 실물자산을 이용한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제시해 주는 지표이다. 가계가 보유한 실물자산의 가치와 총부채가 같을 경우에 지표의 값이 1.0이 된다. 그러므로 가계는 총부채 보다 많은 양의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건전한 재정상태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자본축적 측정지표

합리적인 가계 재정관리의 산출물은 가족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순자산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재정적 목표를 위한 자산축적 정도를 측정하는 이 지표는 가계의 저축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며 해당 가계의 미래 재정상태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반적인 가계 재무교과서에서는 연간 가처분소득 중 연간 총저축액의 비율이 0.1(소득의 10%)초과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였으나, 재테크 상담자들은 0.3(소득의 30%)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0.2(소득의 20%)를 그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연간 가처분 소득의 20~30 퍼센트 이상을 저축하고 있는 가계를 금융자산 축적이 건전하게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가계의 미래는 밝다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5. 생활설계 수립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봅시다.

생활설계는 가정의 인생주기에 적합한 생활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적 요구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은 1995년에 결혼한 가족을 예로 들어 평생에 걸친 생활주기별 발생사건과 수지상태를 장기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표 3> 가정의 장기 생활설계를 위한 생활사건과 가계수지상태 평가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8	32	35	39
생활주기	가족형성기					가족성장기										가족성숙기					노년기													
수지상태	★★★★★★★★★★★★★★★★★★★★★★★★★★★★★★★★★★★★★★★♥♥♥♥♥♥♥♥♥♥♥♥♥♥♥♥♥																																	
남편연령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9	63	66	70
아내연령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5	59	62	66
아들	출생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및군대				취업		결혼																
딸	출생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결혼																		

★ 가계의 수지상태로 보아 저축이 가능한 기간

♥ 가계의 수지상태로 보아 지출이 집중되는 기간(자녀의 교육, 결혼 등으로 인하여)

<자료> : 홍국생명(1997).pp.2~3.

이와 같은 표를 만들어 보면 발생이 예측되는 생활사건을 중심을 공통으로 갖게되는 기본적인 경제적 요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통례적으로 가정의 생활자금, 긴급 예비자금, 주택자금, 자녀의 교육 및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이다. 이를 소위 인생의 5대 생활자금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생활자금은 정규적이면서도 규칙적인 자금으로 전 생애기간 동안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긴급예비자금과 레저자금, 의료자금들도 가장의 연령에 관계없이 전 생애기간 동안 비축될 필요가 있는 자금이다.

1) 가정의 생활보장자금¹⁾ (가족의 생활자금 + 부인만의 생활자금)

1년동안 한 가족이 생활하기 위한 기초적이고도 필수적인 생활비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자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 가족의 생활보장자금 (막내졸업시까지)
 - ; 현재 월생활비 × 0.7 × 12개월 × (막내 대학졸업시 연령 24세 - 막내의 현재연령)
- ▶ 부인만의 생활자금 (막내 졸업후)
 - ; 현재 월생활비 × 0.5 × 12개월 × 막내 대학졸업시(24세) 부인의 평균여명

2) 노후생활자금 (부부의 노후생활자금 + 부인만의 노후생활자금)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97년을 기준으로 남자 70.56세, 여자 78.12세이다. 평균적으로 여성이 홀로 지내야 하는 시기가 7.6년이나 됨을 알 수 있다(연합뉴스 '99. 8.30일자). 은퇴이후의 기나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노후생활자금을 일찍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점점 길어지는 노후기를 대비하여 노후의 생활자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 부부의 노후생활자금 = 현재 월생활비 × 0.7²⁾ × 12개월 × 정년시 가장의 평균여명
- ▶ 부인만의 노후생활자금 = 현재 월생활비 × 0.5³⁾ × 12개월 × 남편 사망시 부인의 평균여명

1) 가정의 생활(보장)자금은 가계소득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수입원이 끊어지게 될 경우를 예상할 때, 최소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하여 노후의 생활보장비가 제외되는 대신 막내 대학졸업시까지 가정의 생활비 및 막내 대학졸업후 부인만의 생활자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계산시에는 가계소득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면 가정의 생활(보장)자금 항목은 제외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가정의 생활(보장)자금 항목이 포함되는 대신 노후생활자금 항목은 제외된다.

3) 긴급예비자금 (의료자금 + 사후의 정리자금 + 불시의 지출자금) : 661만 6천원

긴급예비자금은 가정경제에 있어서 가정의 생사와 수입에 관계없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자금이다. 필요자금 이외에도 불시의 지출비용에 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긴급예비자금이다. 만일 가족원 중 누군가에게 장기적으로 투병해야 하는 병이 있다면 의료자금은 훨씬 많이 필요할 것이며, 사후의 정리자금도 어디까지나 표준자금을 인용한 것이므로 각 가정에서는 가정의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긴급예비자금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월평균생활비×6을 하는 방법도 있다.

- ▶ 의료자금 =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평균진료일수(13일) × 1일당 진료비(약 32,000원)
- ▶ 사후의 정리자금 = 세법에서 직접 장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500만원
- ▶ 불시지출자금 = 120만원

4) 자녀의 교육자금과 결혼자금 그리고 여가생활자금

이와 같이 인생의 장기적인 주기에 있어서 이러한 항목을 위하여 필요한 돈을 계산할 때 다음의 두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가장이 생계의 수단이 되는 취업노동을 은퇴시까지 계속할 경우이고, 둘째는 가장이 취업노동을 중단함으로써 수입이 없어지는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부록의 worksheet 4와 같이 표로 정리하여 계산하면 생활설계에 필요한 금액을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1998년)의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 2) 노후에는 현재 생활비의 70%정도가 필요하다고 상정함
- 3) 노후에 부인이 혼자 살 경우 현재 생활비의 50%가 필요하다고 상정함

1명을 유치원에서 대학(4년제)까지 교육시키는데 드는 총 직접교육비(공교육비 + 사교육비)는 '98년 기준으로 평균 1억2천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8천 5백 42만원(67.8%)이고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4천 58만원(32.2%)이었다(「세계일보」, 1999. 3. 24일자).

1999년 결혼한 신혼 부부들의 평균 결혼 비용은 7,6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신랑이 4,600여만원, 신부가 3,000여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98년의 6353만원에 비해 약 1300만원이 많으며 97년의 7612만원과 비슷하다. 신혼 부부들은 △주택자금 4,262만원(55.9%) △살림살이 1,014만원(13.3%) △예단 472만원(6.2%) △결혼예식비용 457만원(6.0%) △예물 415만원(5.4%) △신혼여행비 245만원(3.2%) 등의 순으로 결혼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동아일보」, 2000. 2. 17일자).

6. 생활설계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예산수립!

농가 가계는 매달 일정한 수입으로 영위되는 것이 아니고 1년간의 현금소득과 현물소득을 포함한 수입을 기초로 운영된다. 농가 소득을 장기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저소득이나 점차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나 농가의 소득은 자연재해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으므로 소득이 불규칙하다. 또, 농산물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도 소득이 달라 지게 된다. 그러므로 불규칙한 소득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 단기 가계 계획을 철저히 세워 이에 적응하도록 해야 하며, 겸업이나 부업을 가지거나 저축을 통해 재산 소득원을 만들어 고정적인 수입원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이 농가의 가계는 도시근로자 가계와 비교할 때 매우 복잡한 요소가 많으므로, 이러한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정경제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예산생활이 더욱 필요하다.

가정의 수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욕구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선택, 배분해야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계획없이 지출을 하면 가계의 적자를 가져오므로, 지출의 성질로 보아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가족간에 불균등한 배분으로 갈등과 불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현재의 욕망

충족만을 위한 것을 지양하여 계획성 있는 가정경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입의 성질을 잘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생활의 수준을 정한 다음,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에 의하여 지출을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것을 예산생활이라고 한다.

성공적인 예산 수립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잘 준비된 계획이어야 하고 또한 가족원이 모두 참여해야 하며, 현실적이어야 한다. 즉 부채상환을 위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지출하는 가계가 갑자기 저축을 30 퍼센트로 늘릴 수는 없다. 예산의 내용도 단계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처음 예산을 수립하기 시작한 가계는 지출을 줄임으로써 번 것 보다 적게 쓴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다.

1) 성공적 예산수립을 위한 방법 및 예산 수립시 주의점

- (1) 예산을 신중적으로 세운다 :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 (2) 예산을 단순하게 세운다 : 쉽고, 재미있고, 단순하게
- (3)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세운다 :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 (4) 정확하고 확실한 기록을 남긴다 : 필수적인 요소임
- (5) 자신에게도 지불하자 : 저축을 의미하며, 저축할 수 없다면 효과적인 예산이 아님
- (6) 예산을 시험해 보자 : 시도한 것이 처음부터 모두 이루어진다고 기대하지 말고 첫 얼마동안은 기록만을 하도록 하자. 그런 다음 지출의 규모를 파악한 뒤에 예산을 짜도록 하자.
- (7) 장래에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현재 교환할 것과 희생할 것을 준비하자.
- (8) 예기치 않은 일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운다 : 예비비를 준비하자
- (9)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상을 주자.
- (10) 가능한 한 편안한 분위기와 상황하에서 예산을 짜고 재정적 계산을 한다.
- (11) 생일, 제사 등과 같은 연례적 지출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운다 : 장기적 안목을 갖자

차츰 잉여자금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가장 금리가 높은 단기부채부터 갚고 다음으로 비상자금을 마련한다. 그리고 나서 투자자금을 조성하여 투자를 시작하고, 장기부채를 정리하고, 가계의 재무목표를 하나씩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무독립을 이룬다. 또한 예기치 않았던 비용이나 변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예산체계

예산체계는 예산을 기록하고 또 실제소득과 실제지출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간편한 예산체계 : 봉투 분류법

봉투에 돈을 분류해 보관하는 방법이다. 비목별로 봉투를 준비해서 각 봉투의 겉면에 예산액수를 적고 돈을 넣어둔다. 봉투가 비게 되면 그달의 예산을 다 지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 폴더를 이용하거나 다른 용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쓰는 경우에는 각 비목별로 종이를 마련해서 같은 방법으로 기록한다.

(2) 가계부

가계부는 은행이나 서점, 문구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예결산표나 월지출기록장, 저축장부, 신용카드기록장, 차계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체계가 조직적이며 정확하다. 그러나 세밀한 기록과 계산을 요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컴퓨터 기록체계

컴퓨터의 대중화와 더불어 많이 보급되고 있다. 계산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합산이 가능해서 예결산 비교가 편리하다. 먼저 컴퓨터 사용방법을 배워야 하

고,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특징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단순히 현금출납만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매월, 매년, 또는 매분기별로 결산을 철저히 하여 예산에 맞추어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예산의 정기적 검토와 수정

예산을 수립하였다고 해서 성공적인 재무목표 달성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 정기적인 결산과 가족원간의 논의를 통해 지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해야 한다. 이 때 지출비목별 총액관리도 중요하지만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목별 지출비율이 합당한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수정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월말결산이 적자인 경우

총지출이 소득을 초과할 때 적자가 생긴다. 반대로 총지출이 소득보다 적을 때는 흑자가 생긴다.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적자기의 지출을 흑자가 생기는 시기로 연기하거나 흑자기의 소득을 적자기로 당겨쓴다.

② 저축이나 투자, 부채를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흑자기에 다시 돌려준다.

(2) 연말결산이 적자인 경우

일년예산의 결과가 적자인 경우는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 가능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그 해의 적자를 매월 만큼 저축, 투자, 부채를 이용한다. 이 방법은 주어진 소득 내에서 지출을 충당한다는 예산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② 우선 순위가 낮은 지출비목의 지출을 축소한다. 우선 순위가 낮은 지출비

목은 가장 덜 중요한 것으로써, 종종 변동지출비목에서 찾을 수 있다.

③ 소득을 증가시킨다. 부업이나 시간제 일 등 농외소득원을 찾아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여가시간이나 생활양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이나 투자를 전혀 할 수 없고 기본적인 지출조차 어려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7. 합리적으로 소비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한된 농가의 경제자원으로 가족의 욕구 충족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생활이 필요함을 배웠다. 이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일이 중요하다.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누가 상품을 구매할 것인가, 어떤 상점에서 구매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얼마나, 언제,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결정이 포함된다.

즉, 구매자, 구매상품, 상표, 상점, 구매량, 구매 시기, 대금 지불방법 등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구매상품과 그 때의 사정에 따라 이러한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장단기 가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매 행동 원칙이 필요하다.

1) 구매유형별 유의점



- (1) 계획적인 구매를 한다.
- (2) 상품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킨다.
- (3) 구매기술을 향상시킨다.
 - ① 상품 표시와 가격 표시의 확인
 - ② 계량의 확인
 - ③ 우량 상점의 선택
 - ④ 현금 구입의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1) 방문판매

- ① 허위·과장 광고의 판별 능력을 키워야 한다.
- ② 충동구매를 삼가야 하고, 부당한 판매행위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철회권 행사방법을 숙지하여 계약 불이행시에 해약을 요구하는 권리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④ 계약시 계약서를 교부받고,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2) 통신판매

- ① 허위·과장 광고를 판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 ② 충동구매를 자제해야 한다.
- ③ 상품별로 여러 통신판매 회사의 판매조건 및 일반판매 상품의 판매 조건을 비교하여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 ④ 철회권 행사의 방법을 숙지하여 상품 구입 후 문제가 있을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할부구매

- ① 지불조건을 확인한다(현금가격, 할부가격 또는 지불 총액, 수수료등). 현금 지불과 신용카드를 비교하여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바람직한지 검토한다.
- ② 대금의 선금을 확인한다.
- ③ 계약내용을 확인한다. 금액과 상품명, 지불액과 지불일, 계약의 해제에 대한 것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불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한다.
- ④ Cooling-off(할부판매 계약취소 보증제도)의 내용을 확인한다(7일이내).
- ⑤ 지불기일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불이 지연되면 연체수수료가 부과되는 것만이 아니라 신용을 잃게 됨을 주지한다.
- ⑥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다.

2) 청약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즉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로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판매인과 발송인의 주소,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등을 기재한 후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면 된다. 그러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상품과 용역이 있다는 것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청약철회의 양식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판매유형별로 정리하여 보았다.

청약 철회 통지서	
판매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	
청구인(물품 구입자) 주소, 성명 :	
제품명 :	
계약날짜 :	
해약사유 :	-----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통고인 0 0 0 (인)	

3)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품과 용역

(1) 방문구매

-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② 상품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때(5만원).
- ③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으로서 날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등임.
- ④ 기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이를 사용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 이는 소비자를 위하여 철회권을 인정하지만 이미 상품을 사용하여 그 상품가치가 없어진 경우와 같이 법이 정한 기간내이더라도 철회권을 인정한다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둔 조항이다.

(2) 할부구매

- ① 사용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 선박, 항공기, 궤도 운행 차량, 자동차, 냉장고 및 세탁기, 날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 웨어 등
- ②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 :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 보일러 등
- ③ 할부가격이 10만원이하인 할부계약. 다만,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이하인 할부 계약으로 한다.

사례 1

김씨 주부는 이웃의 소개로 단체요리강습을 받은 후 그냥 나오기 뒤탈하여 그릇 셋트를 6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다. 계약서와 물품이 송달된 지 3일째 곰곰이 생각하니 할부금 마련이 빠듯하다. 이때 김씨 주부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처리방안 ⇨ 7일 이내 철회권 이용한다.

사례 2

12개월 할부로 냉장고를 구입했으나 자금사정으로 1개월치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리점에서는 사전에 통보없이 냉장고를 회수해 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처리방안 ⇨ 14일간의 고지 기간이 필요하다.

사례 3

가전제품을 6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2개월간 할부금을 낸 후, 목돈이 마련되어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한다. 이 경우 나머지 할부금에 대해 전부를 다 지급하여야 하는가? 처리방안 ⇨ 소정의 이자를 빼고 낸다.

Ⅲ. 나가는 말

우리는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원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계관리를 하고자 하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그것은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의 책에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로 냉소주의를 들고 있다. 냉소주의자들은 상황을 비판하기만 한다. 그러나 승자들은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등 행동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냉소주의는 눈을 가리고, 분석은 눈을 뜨게 한다.

지금의 재정상태에 대한 냉소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분석 해보자. 그러면 어떤 원인이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방해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재무관리는 관리의 다른 면들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지고 학습되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행할 때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고 효과

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제한된 경제적 자원을 할당하고 사용함에 따라 욕구와 요구들을 보다 많이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합리적인 가계재무관리 뿐임을 명심하고 우리 가정에 맞는 예산수립과 생활설계를 수립해 보길 권한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것만큼이나 실천도 잘 해야 하기에 지금부터 시작하자.

참 고 문 헌

농촌생활연구소, 「시험연구보고서」, 1999.

이기영 등, 「생활설계론」, 교문사, 1998.

이기춘 9, 「가계경제학」, 교문사, 1992.

이만우·박광희, 「한국적 재산관리」, 예음출판사, 1994.

최윤지, 「지혜로운 재무관리로 미래를 준비합시다」, 과학과 원예 5월호, 2001.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생활설계사 교육자료(라이프사이클과 우리집 생활설계), 1997.

worksheet 1. 가계관리 능력 평가

구	분	예	가끔	아니오
1.	나는 세금, 대출이자 등을 기한내에 납부한다.			
2.	나는 계획을 세워 내구재(가구, 가전제품, 자동차)를 구입한다.			
3.	나는 계획을 세워 소득을 사용한다.			
4.	나는 연간가처분소득(소득-영농비-조세공과금)의 10%이상을 저축한다.			
5.	자동차와 가전기기 구입시에만 신용(할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다.			
6.	나는 세금 및 지출 영수증을 잘 보관한다.			
7.	나는 돈을 빌리기 전에 각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확인한다.			
8.	나는 물건을 구입할 때 2개 이상의 가게에서 가격을 비교하고 구입한다.			
9.	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0.	나는 연간 이자상환에 지불하는 금액이 연간 가처분 소득의 15%이하이다.			

<평가>

- 25 - 30 점 : 가계재정상태의 변화에 따라 잘 관리하고 있음
- 15 - 25 점 : 가계재정관리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10 - 15 점 : 가계재정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면 관리방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 시켜야 할 것입니다.

worksheet 2. 나의 소비성향 평가

(항목별로 안에 표시해 보세요)

1.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다.
2. 유행은 따라야 하고 유명 브랜드 아니면 안 산다.
3. 빚을 내서라도 체면을 차려야 한다.
4. 내가 내는 세금종류와 내용을 알고 있다.
5. 구매계획을 세우지 않고 되는대로 대충 사는 편이다.
6. 매달 갚아야 하는 외상값 때문에 고민이다.
7. 모임에서 식사값이나 술값은 내가 내야 직성이 풀린다.
8. 적금을 들어본 적이 없다.
9. 노후대비 저축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
10. 부채상환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

소비성향 진단 방법

- ▷ 7개이상 : 『하루살이파』 . 파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겁니다.
- ▷ 5, 6개 : 『기분파』 . 낭만과 기분을 중시하지죠?
- ▷ 3, 4개 : 『알뜰살뜰파』 . 당신의 좌우명은 아마 ‘근검·절약’일 겁니다.
- ▷ 1, 2개 : 『미래확실파』 . 언젠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worksheet 3. 농가 재정상태 분석

구 분		우리집		기 준	평 가
		금액/금액	비율		
경제적 안정도	연평균소비지출/ 연평균가처분소득			0.6이하	
유동성	유동자산/ 연간지출액			0.4초과	
	유동자산/순자산			0.3초과	
부채부담	연간부채상환액/ 연간총소득			0.35미만	
	총부채/순자산			1.0미만	
	실물자산/총부채			1.0초과	
자본축적	연간총저축액/ 연간가처분소득			0.2초과	

* 연평균가처분소득 : 총소득 - 조세공과금 ÷ 12

* 순자산 : 총자산 - 총부채

* 총부채 : 차입금, 미지불금 등의 합계

* 실물자산 : 토지, 건물, 대동식물, 대농기구, 재고농산물 등의 합계

* 유동자산 : 현금, 예적금, 보험금, 유가증권, 계 등의 합계

* 연간총저축액 : 각종 예금, 보험료, 적금, 갯돈 등에 연간 납입한 금액

worksheet 4. 생활설계 필요금액 산출

항 목	비용산출방법	가장이 취업시	가장 은퇴시
1. 주택 및 농지구입	시 가		
2. 자녀교육비 첫째 둘째	평균교육비(공교육비+사교육비)		
3. 자녀결혼비용 첫째 둘째	현재물가를 감안		
4. 긴급예비자금	월생활비 × 6		
5. 노후생활자금 은퇴후 남편사망시까지 남편사망후 부인사망시까지	월생활비×0.7×12×정년퇴직시 남편의 평균여명 월생활비×0.5×12×남편사망시 부인의 평균여명		
6. 가족의 생활보장금 막내가 독립할때까지의 생활자금	월생활비×0.7×12×막내의 대학 졸업까지의 기간		
7. 부인의 생활보장금 막내가 독립한 후의 생활 자금	월생활비×0.5×12×막내의 대학졸업후 부인의 평균여명		
필요자금의 합계			

● 연령별 기대여명

연 령	남	여	연 령	남	여
30 ~ 34세	42.3년	49.4년	60 ~ 64	17.0	21.5
35 ~ 39	37.7	44.6	65 ~ 69	13.6	17.3
40 ~ 44	33.2	39.8	70 ~ 74	10.6	13.4
45 ~ 49	28.8	35.1	75 ~ 79	8.1	10.0
50 ~ 54	24.6	30.4	80 ~	6.0	7.1
55 ~ 59	20.7	25.9			

<자료> : 2000,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worksheet 5. 빚(부채) 고민에 빠져 있을 지도 모를 징표들

다음 항목들은 빚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어려운 점들이다.
자세히 읽어보면서 나의 상황을 점검해 보자

구 분	예	아니오
1. 저축하기가 어렵다.		
2. 계속 자금이 부족하다.		
3. 빚을 갚기 위하여 저축한 것을 사용한다.		
4. 모든 예금계좌의 신용한도에 접근하고 있다. (마이너스 대출의 한도사용)		
5. 청구서 결제일이나 지불기일을 놓친다.		
6. 빚 상황을 제외한 모든 지출이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있다.		
7.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8. 돈에 대해 많이 고민한다.		
9. 빚을 상환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		
10. 매월 또는 매주 지출할 돈을 대기 위해 돈을 꾸어야 한다.		

- ▶ 위의 항목중 5개 이상이 체크가 된다면 신용사용에 있어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worksheet 6. 단기 재무목표 설정

- 가족원이 모두 모여 1년간의 단기 재무목표에 대해 의논한 후 적어보자

우선순위	재무목표	필요금액
1		
2		
3		
4		
5		
6		
총 필요액		

worksheet 7. 장기 재무목표 설정

- 장기재무목표 예시 : 비상자금 마련, 위험대비, 주택구입, 자녀교육, 노후준비, 자녀결혼 등

재무목표	사용기간	준비기간	필요준비금액

가족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최 규 련

수원대학교

I. 가족간의 갈등과 해결방법

1. 부부간의 갈등과 해결방법
2. 부모자녀간의 갈등해결

II. 부부간의 효과적인 대화법

1. 대화계획과 준비
2. 대화기술

III. 바람직한 고부관계

1. 바람직한 노후생활
2. 원만한 고부관계를 위한 실천방법

IV. 건강한 가족 만들기

가족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I. 가족간의 갈등과 해결방법

1. 부부간의 갈등과 해결방법

부부는 어느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이 일치되고 행복한 생활을 원하지만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가 있고, 또 성장배경과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각각 다르고 어느 정도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농촌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참여가 증대되어 농사일의 50 퍼센트 이상을 담당하게 되면서 부부는 영농활동 동료로서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게 되었다. 부부간의 의견합치와 갈등관리가 잘 되면 영농과 가정생활이 잘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농업경영도 가정생활도 모두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농촌부부들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은 일과 가정에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맛보느냐, 좌절감과 스트레스 속에 사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갈등해결의 중요성과 자세, 갈등해결 유형,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1) 갈등해결의 중요성과 자세

현대가족은 부부 사이의 애정적 유대감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부부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느냐 여부는 안정된 결혼생활의 기초를 이룬다. 결혼생활

을 비유해서 이인삼각 경기라고 한다. 즉 부부는 자기 기준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면 안되고, 상대방과 잘 조화를 이루고 서로에게 맞추어 사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부부화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인 부부가 서로 다른 차이점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고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는 부부화합과 가정운영은 물론 영농의 생산성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부부간의 차이점이 조화를 이루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면 부부 상호간의 이해와 친밀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듯이 갈등은 배우자와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고 상대방에게 맞추어 사는 방법을 체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을 초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거나 잘못 해결하는 경우에 부부싸움이 발생하고 갈등이 깊어져서 부부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고, 결국 부부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

부부간의 갈등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변하거나 두 사람이 같이 변하거나 또는 환경이 변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 과거에는 무조건 양보하고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으나 오늘날은 이성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부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려면 부부간의 의견차이나 갈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인정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 보다 자신이 변화할 부분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갈등이 발생 시에는 먼저 배우자 입장에서 차이점과 갈등을 이해하려고 하고 협력적인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갈등해결 유형

갈등해결 유형은 회피형, 설득 및 언쟁형, 갈등기형, 타협형, 협동형 등으로 나뉜다.

(1) 회피형

갈등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피해가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문제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이다. 참고 이야기를 안 하고 접촉을 피하는 행동을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술, 담배, 취미생활, 일,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로 갈등을 이겨내기도 한다. 이 방법은 잠시동안 가정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쌓인 불만이 폭발할 수 있고 마음의 괴로움이 몸이 아픈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문제가 확대되기 쉽다.

(2) 설득 및 언쟁형

자신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유형으로 한쪽 배우자가 더 강력하게 설득하면 상대방 배우자는 결국 따를 수 있으나 두 주장이 맞서면 싸움이 된다. 만일 한쪽이 져주게 되면 다툼은 끝나나 계속 져주게 되는 배우자는 분노와 원망을 느끼며 위축되기 쉽고 내면의 갈등이 계속된다. 한 쪽 배우자가 이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지는 것이다. 언쟁과정에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발생할 수 있어서 서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3) 걸돌기형

말로는 노력하겠다고 하나 행동으로 실천이 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남아있는 유형이다. 문제의 걸면만을 스치는 얘기에 그치고 미결정인 상태로 계속 지내거나 끝없이 이야기만 하고 행동은 없게 된다. 이 방식이 오래가게 되면 행동이 없는 것이 불만요인이 되고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4) 타협형

주고 받음을 통하여 하나의 타협점에 이르는 것이다. 각자가 자신의 손해와 이익을 저울질하고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대화로 해결책을 찾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문제에 따라서는 부부가 균등하

게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 또 조건부 협상으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닌 잠정적 미봉책이 되어 어느 한 쪽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5) 협동형

타협형과 비슷하게 대화를 통하여 해결점을 찾는 방법이나 이 유형은 둘 다 이기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특징이다. 대화를 충분히 나눔으로써 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자발적으로 찾기가 용이해진다.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성급한 결론으로 인한 갈등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더 친밀하게 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3)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법

(1) 갈등의 존재를 인정한다

갈등해결의 출발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행동이나 생각이 나와 다른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배우자는 나와 성별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므로 생각하는 것, 바라는 것이 차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다른 점을 존중함으로써 실망과 좌절, 분노에 의한 감정싸움을 미연에 막을 수 있고 대화를 시작하여 조화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2) 분노 조절을 한다

분노란 사람이 경험하는 자연스런 감정 중의 하나로 기대와 바라는 것이 좌절당할 때 주로 발생한다. 분노 조절은 분노를 무조건 참고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통제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분노 조절

은 상대방 책임이 아닌 자신의 책임이며 내 인격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람마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은 성장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습관화된 것이므로 연습과 훈련을 통해 바람직한 방법으로 바뀔 수 있다.

화가 날 때 다음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해보자. 첫째로 화난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인지를 인식하며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를 잠시 생각한다.

둘째로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 화가 약간 나는 경우에는 복식호흡 등의 깊은 숨쉬기, 숫자세기, 생각 바꾸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화가 심하게 나는 경우는 “쉬었다 얘기하자”고 한 다음 분노조절 방법(“나는 폭력을 쓰는 사람이 되면 안돼”라고 혼자 말하기, 폭력의 결과 상상하기, 산책하기, 음악듣기 등)을 사용하여 물리적 폭력을 막는다.

셋째로 화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자신이 화가 났던 이유와 배경을 설명한다. “난 당신이 ○○○ 하니까, ○○○ 생각이 들어서 속상하고 화가 나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3) 문제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문제중심으로 다룬다

자신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소유권자가 자신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문제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얘기를 시작한다. 이때 한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문제를 확대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상대방을 인신공격하지 않아야 한다. 이 때 배우자는 상대방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해결을 위해 같이 협조하는 것이 도리이다.

(4) 적절한 대화시간을 찾는다

무엇이든지 속전속결로 해결하거나 충동적으로 대화하기보다는 대화계획을 세우고 준비된 대화를 한다. 상황과 시간, 장소, 에너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부가 상의해서 대화계획을 정한다. 장소로는 여러 사람이 있는 번잡한 곳이나

식탁, 침실이나 자녀 앞을 피하고 차분하게 대화할 곳을 정하며 피곤하지 않은 시간으로 계획해야한다. 얼마동안 이야기할지도 정하는 것이 좋다.

(5) 부부간에 대화하는 기본 태도와 기술을 갖춘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진실한 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믿는 태도를 갖춰야하고, 대화하는 기본 기술로서 말하는 기술, 특히 메시지 전달 기술과 경청기술을 갖춰야 한다.

(6)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

의견차이로 대화할 때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방어만 하지 말고 나의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태도를 갖는다.

(7) 갈등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진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서로 바라는 것이나 결론, 해결책을 성급하게 얘기하는 경우 그 배경을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 되기 쉽다. 갈등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즉 각자가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 행동은 어떠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현재의 행동은 어떠한가, 그리고 자신의 계속되는 생각과 감정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8) 소망과 대안을 얘기하고 자신이 노력할 일을 찾는다

부부가 돌아가면서 문제와 관련해서 바라는 것을 얘기한 다음 해결대안을 말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이 노력하고 실천할 사항을 말한다. 이때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보며, 협조적 관계와 두 사람이 같이 잘되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결

대안을 모색한다. 자기중심적인 대안보다 상대방의 소망을 고려한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대방이 바뀌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돕고 노력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대안과 노력방법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9) 행동을 실천한 후 같이 평가한다

약속한 대로 행동을 실천에 옮긴 후 시간을 갖고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한다. 잘 했으면 칭찬해주고 감사를 표현하고, 만일 잘 안됐으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 대화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10) 부부간에 말싸움을 하는 경우는 부부싸움 규칙을 지키고 마무리를 잘한다

부부싸움 규칙이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고함을 치지 말라. 같이 화내지 말라. 싸울 때 상대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약점을 건드리지 말라. 폭력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 비판이나 평가식, 독백식, 책임전가식 대화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는 대화를 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화나면 해가 지기 전에 풀고, 화난 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 성(性)을 싸우는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 등이 있다. 말싸움 후에는 서로 자신의 입장과 행동, 느낌, 원하는 것들을 말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2. 부모자녀간의 갈등해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의 영향을 받으나 세월이 지나 자녀가 독립된 성인이 되면 노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어느 시대나 부모자녀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세대 차가 있으나 변화속도가 빠른 현대사회에서는 부모자녀간에 생리적 차이만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차이,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크고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자녀의 자의식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사춘기부터 표면적으로 나타난다. 부모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도방법도 융통성 있게 변화시켜야 하며 지속적인 애정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의 얘기를 들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집착하기보다는 상호간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와 인격적인 존중, 대화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효' 정신이 퇴색하고 노인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성인자녀가 적극적으로 노부모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노부모도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젊은 세대의 변화하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이해하려는 유연한 자세가 되어야 하고, 계속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가려는 적응노력이 요청된다.

II. 부부간의 효과적인 대화법

모든 인간관계에서 대화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건강하고 효율적인 대화가 꼭 필요하다. 특히 부부관계는 가족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부부간의 건강한 대화는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대화와 애정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대화가 잘 되면 더 친밀해지며 또 애정이 있으면 대화가 잘 된다. 그러나 만약 부부간에 대화가 안되거나 단절 되면 애정이 식고 거리감이 생기며 그러면 더욱 대화하기가 힘들어 부부 사이가 더 소원해지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대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해주며 부부로서 유대감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생활과 부모역할 수행에 필수적 요소가 된다.

그리고 부부간의 대화는 가정의 언어문화를 만들어내며 자녀의 언어사용과

인격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만을 닮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언어사용도 그대로 닮는 것이다. 부모끼리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보고 들으면서 자녀들은 남에게 어떻게 대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지를 직접 배우고 말하고 듣는 방법을 생활로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자녀들의 인격이 바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도 있고 왜곡되고 미숙하게 발전할 수도 있으며, 자녀의 대인관계도 생산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부부간의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준비와 대화기술에 대해 살펴보자.

1. 대화계획과 준비

부부가 같이 의논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또는 배우자와 의견 차가 생겨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를 얘기하려고 할 때는 준비된 상태로 차분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대화 시기와 시간, 장소를 정한다

우발적으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먼저 부부간에 얘기할 시간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장소는 두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정한다.

2) 대화규칙을 정한다

대화규칙이란 대화를 효과적으로 하고 싸움으로 확대되는 것을 미리 막는 장치이다. 이에는 순서 지키기,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지 않기, 쉬는 시간(타입아웃), 규칙확인 등의 장치가 있다. 순서 지키기란 한 사람이 말할 때는 나머지 한 사람은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고 상대방의 얘기가 끝나야 이쪽의 얘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지 않는 규칙은 대화주제를 한가지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다. 쉬는 시간(타입아웃) 장치는 대화를 하다가 지

치거나 화가 나서 싸움이 되는 상황을 미리 막는 것이다. 규칙확인 장치는 대화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중간에 내 말을 가로챌 때 “지금은 내가 얘기할 차례이다. 할 말이 있으면 내 얘기가 끝난 후에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3) 대화소재를 한정시키지 말고 다양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부부들은 자녀나 돈, 가족행사 등의 용무에 관한 얘기와 간단한 얘기를 하는 경향이다. 부부 사이를 더 친밀하게 하는 것은 이외에도 개인적 생각이나 희망, 계획, 자신의 근황과 느낌, 부부사이의 관계, 성생활 등에 대하여 가끔 속마음을 털어놓고 진솔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다.

4) 대화할 때 진실한 마음과 자신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한다

부부간의 대화일수록 진실한 태도와 자신과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의 의견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 대화기술

대화란 서로 말을 주고받아서 정보 전달과 생각과 감정을 나눔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풍성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부부간의 기본적인 인간관계 기술이 대화기술이라 하겠다.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로 되어있다. 차례로 말하기와 듣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말하기 기술(자기 표현방법)

말하기의 본질은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시키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만약 말하기가 잘못되면 정보전달이 부정확하게 되어 말하는 사람의 본래 의도가 오

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긴장과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을 잘 하여 자기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속마음과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1) 말할 때 유의사항

① 말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진정시킨다. 말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함부로 하는 경우 말의 실수가 많고 대인관계에서 부딪칠 일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화가 많이 나는 경우에 그대로 표현하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기 쉬우므로 감정을 진정시킨 다음 말해야 한다.

② 중요한 얘기나 문제를 얘기할 때는 말하기 전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③ 말을 정선하여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부드러운 표현으로 말한다. 솔직하게 말한다해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 특히 부부 사이에 할말이 있고 삼가야 할 말이 있다. 다음의 표현들(비교하는 말, 극단적인 말, 단정적인 말, 인신공격적인 말, 조롱하거나 빈정대는 말, 마음을 읽는 말, 성급한 결론 등)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④ 부부 사이에 사소한 얘기, 일상적인 말, 일에 관한 말, 농담은 물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솔직한 말을 자주 하는 것이 부부상호간의 이해증진에 도움이 된다. 특히 감사와 칭찬, 인정해주는 말은 많이 할수록 좋다.

(2) 말하기의 6가지 기술

말하기 기술에는 다음 6가지가 있으며 이 기술을 가능한 다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된다.

① 자신에 대해 말하기 :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나’를 주어로 말을 한다.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내가 바라는 것은”. “내 기분은” 등으로 표현한다. 만일 ‘당신’을 주어로 얘기하면 듣는 상대방은 비난당한다고 느끼고 잘 듣지 않게 되고 대화가 중단되어 싸움이 되기 쉽다.

② 구체적 사실 묘사하기 : 객관적인 사실로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자신이 보고들은 것을 중심으로 말을 한다. 이때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항상, 늘, 한번도, 절대로” 등의 표현을 하게 되면 듣는 상대방이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우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③ 생각 표현하기 :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 해석, 기대, 예견을 말한다.

④ 감정 나누기 : 자신의 느낌을 말한다.

⑤ 소망 나누기 :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말한다.

⑥ 자신의 행동 말하기 : 자신의 과거행동, 현재의 행동, 미래의 하려는 행동에 대해 말한다.

이상의 말하기 기술을 적용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집안을 정리정돈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왜 그렇게 정리정돈도 못해요?”라고 말하거나 “당신은 너무 게을러서 탈이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자기를 잘 표현하는 것이다. “요즈음 내가 보기에 당신이 보고난 신문이 방안에 펼쳐있으니까 (구체적 사실) 집안이 지저분해 보이고, 청소도 안한 것처럼 되어(생각), 내가 치우는데(과거행동), 신문 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라고 생각되어(생각), 짜증이 나요(감정). 그래서 싸우게 되지요(과거행동). 앞으로 신문을 보면 잘 개어놓으면 좋겠어요(소망). 나도 앞으로는 이런 일로 짜증을 내기보다는 대화법대로 말을 하려고 노력할게요(미래행동)”라고 말한다.

또 하나의 예로 상대방이 집에 늦게 들어와서 기분이 상한 경우 즉각적으로 “왜 매일 늦느냐”며 쏘아붙이지 않고,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구체적 사실) 무슨 일이 생겼나, (생각)걱정이 돼서(감정), 잠을 잘 수 없어요(과거행동), 식구들이 안심하고 잘 수 있도록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늦으면 미리 전화를 해주면 좋겠어요(소망)”라고 말한다.

(3) 연습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말하기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말하기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로 연습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 ①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농사일을 하는 경우
- ② 같이 농사일하고 귀가하여 혼자서 밀린 집안일 하고있는데 배우자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2) 듣기 기술

(1) 듣기 행동과 연습

듣는 것의 본질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며, 상대방을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잘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해야하고 말 내용만이 아니고 얼굴 표정이나 몸짓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남의 말을 경청하게 되면 문제나 말하는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오류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상대방이 계속 말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며, 자신도 충분히 말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 결과 상호간에 이해가 증진되고 친밀감과 신뢰감, 협동심이 더 증진되어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만약 잘 듣지 않게 되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경청하려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바쁘거나 다른 일이 있을 때, 상대방과 의견 차가 있을 때, 화가 날 때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억지로 들어주는 척 하지 말고 솔직히 사정을 얘기하고 언제 시간을 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방의 얘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경청하여야 한다.

다음의 행동은 좋지 않은 듣기 행동들이다. 이런 행동을 피하는 것이 경청에 우선 필요하다.

- ① 다음에 할 말 준비하기
- ② '요점이 뭐예요'라고 말하기
- ③ 주의 기울이지 않기
- ④ 말이나 행동으로 끼어 들기

- ⑤ 중간에 폐쇄 질문이나 “왜”라는 질문 또는 충고나 해결책 제시하기

연습 : 배우자와 자신의 잘 듣지 않는 행동에 대해 적어보시오.

- ① 자신이 잘 듣지 않는 행동 : ()
 ② 배우자의 잘 듣지 않는 행동 : ()

(2) 들을 때의 유의사항

- ① 자신의 관심을 잠깐 접어놓고 배우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
- ②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중간에 나의 마음 문을 닫지 않는다.
- ③ 상대방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
- ④ 미리 판단을 내리거나 평가하거나 상대방이 할 말을 넘겨짚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관심이나 초점을 딴 곳으로 돌리지 않는다.
- ⑥ 내 생각을 덧붙여서 결론을 미리 내리지 않는다.
- ⑦ 상대방이 얘기하는 동안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지 않는다.
- ⑧ 상대방의 말이 부정확한 경우에는 질문하고 계속 이야기를 듣는다.
- ⑨ 말을 듣다가 화가 나거나 부득이한 일이 생길 때는 “잠깐 쉬자”고 제안한다.
- ⑩ 부부가 공평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여야 한다.

(3) 경청기술 4가지

경청기술에는 다음 4가지 기술이 있다.

- ① 주의 집중하여 듣기 : 배우자를 바라보고, 배우자의 입장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자세로 경청한다..
- ② 반응해 주기 : 배우자의 입장에서 속마음을 인정해주는 반응을 한다. 예를 들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었구나!”, “그랬어요”, “아하!”, “응!”이라고 한다.
- ③ 간추려 요약하기 : 할 얘기를 다 했는지 확인한 후 배우자의 말을 간추려 요약한다. 예를 들면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라고 하고 상대방이 없다고 하면 “당신 얘기는 ○○○라는 거지요.”라고 한다.

④ 개방질문하기 :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할 수도 있다. 이때 개방질문을 하고 폐쇄질문이나 “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언제 갈 꺼야?”라고 하지 “지금 갈 꺼야 안갈 꺼야?”라고 묻지 않는다.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지?”라고 물어야지 “왜 그런 일을 했어?”라고 묻지 않는 것이 좋다.

연습 : 상대방의 말을 경청기술을 사용하여 들어보고 경청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의 차이점을 생각해보시오.

(4) 갈등해결 방법 예시

이상의 대화기술을 이용하여 앞에서 배운 갈등해결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가 심해서 귀찮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전 연락 없는 늦은 귀가가 문제라고 해서 갈등을 겪는 부부가 있다. 먼저 아내가 문제의 소유권자가 되어 남편에게 대화를 제의한다. 이번 주말에 저녁 식사 후에 안방에서 30분간 대화하기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화를 하는 것이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말한다.“ 당신이 사전 연락 없이 늦게 귀가하면(구체적 사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가정에 관심이 없고 나에게도 무심하다고 생각되어(생각) 서운하고 화가 나요(감정). 그래서 전화를 하고 잔소리도 해보았지만(과거행동) 당신은 내가 전화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화만 나니까(구체적 사실)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생각) 화가 무척 나고 한편으로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 염려가 돼요(감정)”.

그러자 남편이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그랬었어, 더 할 얘기는 없나?” 그러나 아내가 “없다”고 하자 남편은 “당신 얘기는 내가 연락없이 늦게 귀가하면 염려가 되어 나에게 전화하면 내가 화를 내니까 화가 난다는 것이지?”라고 요약한다. 아내가 “맞아요”라고 한다.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한다 “내가 처음부터 연락도 없이 늦지는 않았지. 내가 늦는다고 전화하면(과거행동) 당신은 어디냐, 언제 오냐, 누구와 함께 있냐

는 등 계속 말하니까(구체적 사실) 당신한테 사사건건 간섭받고 매여 산다고 생각이 들어(생각) 자존심 상하고 화도 나요(감정). 그래서 한동안 전화도 안하고 늦게 귀가하고 그랬는데(과거행동), 당신이 내게 전화를 여러 번하고 화내고 따지니까(구체적 사실) 당신이 나를 조정하려 하고 내 뜻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생각)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고 화도 나서(감정) 전화를 끊었었어(과거행동). 지금은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지(감정)”라고 한다. 이 말에 아내가 인정해주고 남편의 말을 요약한다.

다음 소망을 말하는 단계에서 아내는 “당신이 늦게 올 때 미리 전화를 하고 늦어도 12시 이전에 왔으면 한다”고 하고, 남편은 “내가 늦을 때 계속 전화를 하거나 누구 만나느냐 왜 만나느냐 등 캐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다음 대안과 실천행동을 말하는 단계에서 남편은 “앞으로 늦으면 미리 전화해서 내 상황을 설명하겠고 12시 내로 귀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내는 “내가 먼저 전화해서 묻지 않겠고 당신이 늦는다고 전화하면 알았다고 하겠다”고 하였다. 이들 부부는 약속한 대로 행동으로 실천했는지 그후 평가를 하였는데 둘이 다 잘 하여서 서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Ⅲ. 바람직한 고부관계

1. 바람직한 노후생활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많이 연장되어 70세, 80세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 노후 생활을 잘 보내려면 무엇보다 본인이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고,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어른대접을 받으며, 좋은 친구와 보람을 느낄 만한 소일거리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가정윤리가 약화되고 가족문화가 노인중심에서 자녀중심으로 바뀌어서 노인의 사회적, 가족 내 지위는 낮아지고 발언권은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노인의 사기저하와 우울 증상, 그로 인한 고부갈등과 가정불화, 가족의 심신의 장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에 대부분 자녀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노부부 단둘이 또는 배우자 사별 후 혼자서 거주하는 노인이 많다. 또 도시에 비해 고부가 동거하는 비율도 높아서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더욱 원만한 고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현대 노인의 특성은 4중고의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1) 노인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기 쉽고 자녀들에게 용돈과 생활비를 의지하기 쉽다. 대책으로는 노인 스스로 자신의 노후 삶을 위해서 경제적 대비를 잘 하는 것이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 나라는 자녀 교육비, 혼사 등으로 부모의 헌신적인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결과 노후의 삶을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노인은 극소수이다. 따라서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부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며, 저소득계층을 위해서는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2) 노인은 신체적으로 건강을 잃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기 쉽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을 잃은 노인은 본인도 고통스럽고 자녀와의 관계도 악화되기 쉽다. 대책으로는 스스로 젊을 때부터 음식조절과 운동, 위생 등의 건강관리를 잘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의 건강관리와 질병치료를 사회에서 지원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3)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부모는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나 자녀가 가까이 살지 않고, 가까이 살아도 분주한 생활 속에서 접촉시간이 적어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대책으로는 자녀가 정기적으로 노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노인은 소일거리가 있어야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다. 도시노인에 비해 농촌노인은 평생동안 농사일을 해왔으므로 노후에도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일손이 부족하고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농사일에 보람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대책으로는 이웃과 자녀들이 일손을 덜어주고 노쇠해지면 덜 힘든 농사일을 하거나 전통문화보존 활동이나 종교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하는 것이 좋다.

2. 원만한 고부관계를 위한 실천방법

전통사회에서 고부관계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형태였고, 며느리에게는 인내와 복종이 요구되었다. 전통가족에서 바람직한 며느리의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효행태도로 집약된다. 즉 존경하는 태도로 중요한 일에 자문받기, 성심성의껏 돌보기, 귀가전후에 인사, 가족의 조화유지 태도로 며느리의 희생과 인내에 바탕을 둔 가족화합 조성, 책임감 있는 태도로 질병치료, 용돈, 의식주 생활 충족, 애정과 사랑의 태도로 말동무, 정서적 유대감, 기쁘게 해드림, 동정적 태도로 병약하거나 장애 있는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등의 태도가 권장되었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부부중심의 생활양식으로 변하고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태도가 약화되고, 자기희생에 바탕을 둔 가족화합 태도도 약화되었으며, 책임회피적인 태도, 실리적이고 편의적인 태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고부관계 문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개인간의 문제 외에도 노인문제와 복합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바람직한 고부관계를 위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각각 실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랑 받는 며느리가 되기 위한 실천사항

- (1) 시어머니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친정 어머니처럼 애정을 갖고 대한다.
- (2) 시부모와의 의견차이나 세대 차에 대해 비판하기보다 노인의 특성으로 수용하고 이해한다.
- (3) 웃어른에 대한 예우를 하며 부드럽고 붙임성 있는 태도로 대한다.
- (4) 식사 준비 시 시부모의 식성과 기호를 고려한다.
- (5) 시부모의 생신, 어버이날과 명절 등에는 자상하게 배려하여 뜻 있는 날이 되도록 준비한다.

- (6) 항상 의논하는 태도로 집안생활에 조언을 구한다.
- (7) 집안의 중요한 행사는 계획할 때부터 어른의 의견을 존중한다.
- (8) 시부모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한다.
- (9) 가끔 시어머니와 함께 외출하거나 쇼핑, 외식을 함께 한다.
- (10) 시어머니의 친구나 시가 친척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 (11) 가끔 시어머니에게 용돈이나 간식거리, 선물을 드린다.
- (12) 외출시 반드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한다.
- (13) 친정식구나 친척들에게 시어머니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 (14) 친정과 비교하지 말고 친정자랑을 하지 않는다.
- (15) 고집을 부리거나 즉석에서 화를 내거나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
- (16) 혹시 시어머니가 서운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피고 배려한다.

2)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되기 위한 실천사항

- (1) 며느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흉을 보지 않는다.
- (2) 며느리의 예물과 혼수, 친정 식구들에 대해 험담을 하지 않는다.
- (3) 며느리에 대한 불만은 부드럽게 직접 얘기한다.
- (4) 아들 며느리의 결혼생활과 문제에 참견하지 않는다.
- (5) 아들 며느리가 갈등이 있을 때는 무조건 며느리 편을 들어라.
- (6) 일마다 간섭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고 살림 주도권을 이양한다.
- (7) 지나치게 가풍을 고집하거나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 (8)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며느리와 의논한다.
- (9) 권위 행사를 하거나 대접만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편의에 따라 가사를 분담한다.
- (10) 며느리나 자손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 (11) 딸처럼 애정과 믿음으로 대하고 며느리를 고맙게 생각한다.
- (12) 되도록 며느리를 이해하고 인격을 존중한다.
- (13) 며느리의 생일을 기억하며, 친정식구와의 왕래를 갖도록 허용한다.

- (14) 다른 사람 앞에서 며느리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위신을 세워준다.
- (15) 가정 밖에서 자기만의 일이나 취미생활을 갖는 기회를 가진다.

IV. 건강한 가족 만들기

행복하고 건강하게 가족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결혼생활과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를 지니고 융통성과 책임감, 인내심, 협동성이 있고, 자기반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다. 그리고 적절한 정도의 수입이 있고, 같은 종교활동을 하며 취미활동과 여가활동을 같이 한다. 또한 그들은 효율적인 대화와 갈등해결 기술을 갖고 있고 감사, 칭찬, 격려, 위로, 지지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교환한다. 또 그들은 주위 친척이나 친구, 일, 여가 등과 결혼생활을 잘 조화시켜서 균형을 이룬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부 각자가 정서지능지수(Emotional Quotient)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자신의 감정관리 특히 분노조절을 잘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며,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융통성 있게 자기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남편과 아내는 집안일, 경제, 자녀문제 등을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고 협조적으로 분담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충실해야한다.
3. 남편은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유지가 모든 일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남편이 되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어 귀가시간을 잘 지키고 기념일을 기억하여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아내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수시로 애정표현을 한

다. 아내에게 일정 몫의 경제권을 주며 말과 행동으로 아내의 수고를 인정하고 집안 일을 분담한다. 그리고 본가식구와 아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하고 처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4. 아내는 남편의 수고를 인정하고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며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준다.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하고 정리정돈을 잘 하며, 짜증스런 잔소리를 삼가며 시택에 자발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자기관리와 자기개발을 해서 동반자로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5. 부부는 정확하게 말하고 경청하는 습관을 생활화한다. 그리고 부부간에 의견 차이나 갈등이 있을 때는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차분하게 대화를 한다.

6. 가족원 서로간에 예의 있게 대하고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7. 부부가 함께 취미활동과 여가활동을 하며 가족이 함께 대화하고 즐기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

8. 가족 전체가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동일하게 가지며 가능한 같은 종교를 갖고, 다른 사람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의식과 봉사정신을 실천한다.

9. 부모는 자녀에게 그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자신감을 길러주는 말과 애정표현을 하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흥미와 의욕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제공한다.

화풀이 식으로 아이를 때리거나 손이나 발을 이용하여 때리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는 벌을 서게 하거나 회초리를 쓰고, 아이가 자의식이 생기면 체벌보다 타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똑같은 일로 두 번 야단치지 말고, 최고가 되라

고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친다. 부모의 기호, 취미와 희망하는 자녀 진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자녀의 성적보다는 특기를 발견하고 개발을 격려한다.

10. 아버지는 자녀와 친구처럼 가깝게 지낸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먼저 아침 인사를 하고 식사시간에는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며,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고 자녀가 스스로 판단한 일은 존중하며, 부모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자녀에게 준다.

좋은 부모, 행복한 부부 만들기

정 일 선

경북여성정책개발원

I. 부모, 부부의 길

II. 부모란 자식을 짝사랑하는 사람들

1. 자녀문제에 대한 새로운 발견
2. 세상이 변하듯, 자식도 변한다
3. 사춘기의 자녀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4.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

III. 행복을 만들어 가는 부부

1. 남편과 아내는 다르다
2. 남편과 아내는 이야기도 다르다
3. 난, 이런 말 듣고 싶어요
4. 부부여, 이젠 부부싸움을 하자
5. 부부간의 성, 부부간의 역할
6. 부부여, 대화를 하자

IV. 마무리

좋은 부모, 행복한 부부 만들기

I. 부모, 부부의 길

어부들이 새끼 고래를 잡았다. 엄청 기분이 좋은 날이다. 새끼 고래를 잡아서 귀향을 하면 어미 고래가 배 주위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부들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배 주위를 맴도는 어미 고래를 작살로 찍어 잡는다. 새끼 고래와 어미 고래를 신고 가다보면, 어느새 아빠 고래가 나타나 배를 향해 무차별 돌진해 온다. 그럴 때면 어부들은 아빠 고래가 지칠 때까지 기다린다. 결국 제풀에 지쳐 기진맥진한 아빠 고래를 건져 올리면 그것으로 어부들의 그날 일과는 끝이 난다.

어쩌면 이것이 가족의 모습이고 참된 부모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미친한 동물도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인간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끈끈한 부모애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정말 좋은 아빠인지, 좋은 엄마인지를 생각해 보자. 바쁘다고 자식들을 내팽개치지 않는지.

부부란 무엇인가? 족보상에서 볼 때 부부의 촌수는 영(zero)촌이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헤어지고 나면 아무런 촌수가 없어지고 마는 관계, 그것이 부부이다. 평생을 살아도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남편을 바로 보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부부관계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좋은 의미에서라기보다는 부부간의 문제가 그만큼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좋은 부모가 되고, 행복한 부부 되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한다. 두 모습을 다 갖춘 가정이 그만큼 흔하지 않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했지 않은가.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달라지기 위한 노력을 하자. 그리고 정말 자녀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부부간에는 깨소금이 쏟아지는 그런 선순환의 관계를 만들어 보자. 행복은 먼 곳이 아니라,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II. 부모란 자식을 짝사랑하는 사람들

1. 자녀문제에 대한 새로운 발견

족보를 보면 가계도(家系圖)란 그림을 볼 수 있다. 나의 아버지에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끝없이 연결된 내 핏줄의 역사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가계도이다. 따라서 가계도는 혈연집단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성원에 대한 지표가 된다.

이런 우리의 관습은 자녀문제를 보는 기본시각을 이루어 왔다. 예컨대 자녀, 특히 아들은 가계의 발전, 혹은 계승이란 전통적 시각에서 자녀문제를 여겨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자녀를 더 이상 ‘가족의 문제’, 가계 계승의 과제로만 생각하게 버려두지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가족의 구성원이자, 사회 구성원의 충원이라는 열린 시각에서 가족을 이해하고, 자녀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사회화는 깊은 반성을 필요로 한다.

한편 위와 같은 전통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자녀 문제 이외에 어머니의 과중한 역할로 인한 자녀와의 질적인 상호작용과 기회의 부족,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행동 부족, 텔레비전 시청의 통제와 지도 부족, 부모가 상대적으로 모르는 분야인 PC 게임, 인터넷 활용 등에 대한 갈등, 지적 능력 개발에 편향된 가정 교육, 그리고 부모의 역할과 양육태도, 자녀의 생활습관 지도에 관한 지식 및 기술부족 등도 오늘날의 자녀문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2. 세상이 변하듯, 자식도 변한다

아이를 낳고, 그 얼굴을 들여다 보라. 얼마나 귀여웠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할 각오를 한다. 그런 각오들의 내용은 다양하다. 특히 책가방이 짧은 부모님들의 경우, “아무개야 무럭무럭 자라거라. 내가, 니 하나만은 꼭 공부시킨다. 똥 묻는 뺨스를 파는 한이 있더라도 공부는 시킨다”. 못 배운 것이 한이 된 부모의 공통된 각오. 그러나 똥 묻는 뺨스를 요즘 세상에 누가 산다고.

그렇게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잠자리까지 설치가면서... 애지중지 자식을 키워오지 않았던가. 그런 부모 덕으로 철모르는 어린 새끼들은 정말 엄마 아빠의 소원처럼 무럭무럭 자랐다. 자식들은 자라면서 머리가 굽어졌고 자기만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상을 배우는 속도도 빨라졌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의 말이 진실이고 법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식들이 접촉하는 세상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엄마 아빠는 왠지 구닥다리처럼 느껴지지 시작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판도는 놀랄 만큼 달라졌다.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PC게임과 부드럽고 빠른 타자실력은 부모를 능가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엄마의 수학실력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하물며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입에야.

그렇게 자식들이 커가고,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자식들이 보는 세상은 부모의 수준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부모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키운 녀석인데, 아, 이 녀석이 그래’. 자식은 철새와 같다. 자식은 변하는 존재임을 인정하자.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헌신적 사랑, 아카페적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부모는 영원히 자식을 짝사랑하는 사람임을 명심하자.

3. 사춘기의 자녀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요즘 자녀들의 사춘기가 갈수록 빨라진다고 한다. 좋은 음식, 조기 교육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춘기를 맞은 자녀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로 큰 변화를 겪는다. 먼저 신체의 변화는 매우 뚜렷하다. 이를 우리는 제2차 성장이라고 한다. 남자아이의 경우 성호르몬의 자극으로 음경과 고환을 발육시키고, 성기 주위에 털이 나게 하고, 목소리가 굵어지는 변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여자아이의 경우 성호르몬이 난소에 자극을 주어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젖가슴을 부풀게 하고, 몸매가 아름다워지게 하며, 자궁을 발달시키고, 성기 주위에 털이 나게 한다.

이에 따라 사춘기 청소년들은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 거울을 자주 보게 되고,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 성적 호기심이 강해져, 몰래 여학생의 화장실을 들여다 본다든지, 그런 그림이 나오는 사진을 보게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섹스 사이트를 청소년들이 몰래 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다.

또한 이즈음의 청소년들은 공부하라는 선생님과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몰래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고 한다. 부모나 가족의 보호에서 벗어나 혼자 있고 싶고, 독립하고 싶은 생각도 하게 된다. 감수성이 아주 예민해지고 불안해지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성호르몬의 분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변화가 심한 것이 청소년기의 자녀들이다. 그런 자녀들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부모가 이해해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이러한 자녀의 변화에 대해 엄마 아빠는 부모로서가 아니라 먼저 변화를 겪은 형님, 언니로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당연한 것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방법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부모의 과제일 것이다.

1)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방법(7가지)

첫째,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평행적 대화기술이 필요하다.

셋째, 매니저가 아닌 상담자가 되자

넷째, 연합전선을 펴자
다섯째, 자녀들의 사생활을 인정하자
여섯째, 편지를 쓰자
일곱째,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자

4.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

자식에 대한 이해가 좋은 부모의 전제조건이다. 바람직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자녀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 그렇지만 분명하게 답이 나오는 이론처럼 현실에서는 그렇게 매끄러운 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부모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행동들이 천차만별이고, 동시에 부모들이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일거수 일투족 다 챙길 수 없는 한계, 무엇보다도 부모의 생각과 범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녀들의 노력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의 노력에 한계를 느끼게 하는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원론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모상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른바 부모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녀를 깊이 사랑하되, 절제 있는 진정한 사랑을 주어야 하며, 부모자녀 사이에는 활발하고 따뜻한 관계가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들끼리는 신뢰, 원조, 융합의 원칙을 가지고 몽치도록 자녀를 배려하는 것 등이다.

1)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만들지 말자

청소년기에 이른 자녀들의 신체를 보라. 엄마의 키를 넘은 지는 이미 오래. 1~2년만 더 있으면 아빠의 키도 훌쩍 뛰어 넘을 것이다. 그런 자식에게 부모는 여전히 명령적이고, 강요적 말투뿐이다. “너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돼”라는 식의 말씀은 대화가 아니다. 자식과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다.

경고 또는 위협하지 말라.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녀석,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오늘밤을 새우더라도 150쪽까지 다 읽자. 내일 아침 내가 검사해보고 하지 않았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아버지라면 자식은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공갈 협박범 정도로 생각할지 모른다.

자식에게 욕하고, 헐뜯고, 조롱하는 부모들도 있다. 물론 계모, 계부가 아닌 이상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 부모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겠는가만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때면 연약한 자식들의 어른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부모가 조금 꾸중했다고 해서 우는 아이에게, “야, 이 울보야. 그런 말에 우는 너를 보니 참 한심하구나.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니?”

또한 자식에게 일방적인 비판, 비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너는 그것도 제대로 하나 못하니? 그렇게 신중하지 않아서 나중에 무엇에 쓰겠니? 지금 너는 너무 게을러. 너무 게으르단 말이야”.

2) 이 정도는 되어야 좋은 부모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부모이고 싶다.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지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다. 하지만 진정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다음 열 가지 정도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1)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이 필요하다

부모에 대한 아이의 신뢰감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다. 부모들이 별 생각 없이 던진 말들이 어린 자녀의 마음에는 상처를 줄 수 있다. 말을 안 들으면 다리 밑에 내다 버린다거나, 누구에게 잡아가라고 한다거나 하는 협박이 그 예이다. 안전한 공간, 보호와 사랑, 보살핌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일관성 있는 가정교육, 적당한 기대와 격려가 필요하다.

아이를 남에게 맡기는 경우 가능한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부모가 언제 돌아온다는 것을 아이가 알 수 있게 얘기해 주어야 한다. 안전은 항상 보

장되어야 한다. 안전벨트의 착용은 물론이고 약물이나 독극물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해주며, 교통신호에 대한 교육, 자전거 타기나 수영하는데 필요한 규칙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또한 역시 중요하다. 정기적인 신체적 검사, 예방 주사 등을 위해 병원에 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2) 깨가 쏟아지는 가정을 만들자

화목한 가정에서 아이들은 정서가 안정되고 편안함을 느낀다. 특히 중요한 것이 부부간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다툼, 언쟁, 구타 등은 아이들의 정서를 황폐화시키고 여린 마음에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 그 자체로도 무섭고 두렵지만,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부부싸움은 되도록 아이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하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집을 나가 버리겠다, 죽어버린다, 이혼하자 등의 막말은 하지 않도록 한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집안에 힘든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항상 편안하고 행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모가 짜증을 내거나 늘 화난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다소 힘들더라도 즐겁게 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아이들은 칭찬이란 보약을 먹고 자란다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란다. 아이들이 작은 일이라도 잘했으면 적극적으로 자주 칭찬을 하자. 심부름을 했을 때, 상을 닦을 때 등 칭찬 받을 일을 했을 때 마다 칭찬을 하자. 칭찬은 아낄 이유가 없다. 그 칭찬을 물질로 대신하는 것은 좋지 않다. 어렸을 때부터 황금만능의 사상을 갖게 될 수 있고, 물건이나 돈의 귀중함을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물질보다는 등을 토닥여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등 작은 표현을 자주 하도록 한다. 아이에게 취약했던 부분을 드러내어 강조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다시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 경험에 대한 상처를 입지 않게 된다. 적당한 기대와

격려, 배려 속에서 금지형보다는 권유형으로 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제재가 필요할 때는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4) 항상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자녀가 좋아하고 잘 하는 것과 부족한 것을 보충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아이의 옷과 집안이 더럽혀지는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아이가 물감, 크레용, 진흙의 세계를 탐구하도록 허용해준다. 선물로 리듬악기나 장난감 피리 등을 주어 음악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본다. 또한 아이의 교육에 직접 참여한다. 아이의 선생님을 만나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잘 따라 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부모가 다정하게 설명해주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인 박물관, 도서관, 동물원, 과학관 등에 같이 가는 것도 좋다.

(5) 배워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부모 역할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아기를 낳는 순간 별다른 제약 없이 부모가 되지만 부모의 역할을 잘 알고 수행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 부모는 아이가 성장하는 매 단계마다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지식적 욕구들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욕구를 판단해야 한다.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져 아이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잘 키울 수 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 즉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등 모든 것에 신경 써야 한다.

어릴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 신경을 썼다면 아이가 커나가면 보다 내적인 면에 신경을 써야 한다. 부모는 인생의 선배이자 스승으로 카운슬러가 되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가정과 자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책을 읽는다. 관련 정보지를 한 권 정도 선택해 매달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치단체나 문화센터, 시민단체 등에서 열리는 부모교육에 관한 강좌나 세미나 등에 참가

하면 얻는 것이 많다. 또한 관심 있는 부모들끼리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가치관이 올바르면 자녀도 잘 자란다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의 양육태도, 교육태도, 가치관 등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아이들의 가장 가까운 동일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는 언제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바른 마음과 행동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한다.

가정은 자녀들에게 최초의 학교이고 부모는 자녀의 생애에 있어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가치관의 하나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이다. 자녀들에게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7)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자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어른이 하면 괜찮고 아이가 하면 나쁘다?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기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 특히 반복적인 생활습관을 바로잡아 주려고 할 때면 사사건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늘어놓게 된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때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가 있다. 부모가 같은 실수로 해놓고도 인정하지 않을 때이다.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있다. 엄마는 매일 아이들에게 얘기한다. 강아지를 만지고 나서는 꼭 비누칠을 해서 손을 씻으라고. 개에게 병균이 있고 털이 날려서 건강에 좋지 않으니 손을 씻어야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수긍한다. 그런데 저녁

에 들어온 아버지가 주인을 반기는 강아지를 안아주고는 그냥 들어와 저녁 식탁에 앉는다면 아이들의 눈빛은 달라진다.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고, 슬슬 손 씻는 일을 게을리 하게 된다. 이를 지적 당하면 “아빠도 그러시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라며 입을 삐죽 내밀게 된다. 부모라고 모든 일에 완벽한 것은 아니다.

어쩌면 아이들보다도 어른들이 더 실수 투성이 일수도 있다. 고치지 못한 생활습관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행동, 생각, 선택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럴 때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한다면 잘잘못에 대한 가치관이 더욱 명확해지며 아이는 오히려 부모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아빠랑 너희랑 똑같애?”라고 으박지른다거나 “아빠는 어른이라 괜찮아.”라며 궁색한 변명을 해봤자 아이들은 신뢰하지 않으며 불만만 품을 뿐이다.

(8)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의 신체가 발달하고 지능이 발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가치관의 발달이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있어 확실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아이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배워나가게 된다. 아이들의 가치관 내지 도덕발달은 주위 사람들 특히 엄마, 아빠가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일 때 보다 건전하고 빠르게 발달한다.

아이가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어떤 때는 칭찬을 해주고 어떤 때는 꾸짖는다면 아이는 가치관에 큰 혼란을 일으킨다. 확고한 신념이 없어 행동에 자신감이 없고,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불안해한다. 언제나 변함없는 엄마, 아빠의 온전함, 그리고 분명한 태도로 지속되는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는 아이의 기초적 도덕발달을 촉진시켜 준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좀 더 일찍부터 좋은 행동이나 나쁜 행동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9) 자녀에 대한 사랑을 자주 표현한다

우리 나라 부모들은 그 사랑을 겉으로 표현하는데 서툴다. 자주 안아주고 뽀

뽀해주고, 웃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부모의 사랑을 전해 준다. 아이가 조르는 것을 다 사주고, 아이의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아이들과 자주 잘 놀아주는 것도 아주 좋은 사랑의 표현이다. 아이들에게 매일 책을 읽어주고, 자주 전시회나 공연장에 가는 등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한다. 그리고 서로 몸을 부딪치며 놀아준다. 함께 몸을 부딪치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고 애정이 깊어진다. 서로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이며 레슬링을 하고, 바닥에서 뒹굴고, 잡아당기고 하면서 어느새 아이는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믿음은 아이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심어준다.

(10) 대화를 나누면 문제는 풀린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잘못을 해도 항상 꾸짖고 혼을 내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 좋고 아이의 반감을 살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두자니 아이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아이를 교육시켜야 할지 난감하기도 하다. 이럴 때는 부모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아이와 대화를 나눈다. 편식이 심한 아이에게 매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조금만 더 먹어라’를 외치다 보면 아이는 엄마의 짜증나는 잔소리라고만 여기게 된다.

이럴 때 “니가 편식을 해서 엄마 너무 걱정이 돼. 키도 안 크고, 매일 아프고, 머리도 나빠 질까봐 엄마 너무 너무 속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해 보자. 아이는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맛이 없다든지, 모양이 징그럽다든지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서로간의 이해 속에 절충점이 생긴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싫어하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먹기 싫을 때는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던가 하는 규칙을 함께 정한다. 아이는 스스로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한다.

3) 나는 좋은 부모인가?(자기반성)

다음은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인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부모도 이제는 공부를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시대이다. 공부하지 않고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사람치고 좋은 부모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점수는 우측의 ‘결과란’에 체크된 표시가 많을수록 나쁜 부모이고, 적을수록 좋은 부모가 된다. 체크수가 여섯 개를 넘었다면 정말 문제 있는 부모다. 그 점수는 소위 말하는 과락수준이다. 제발 과락을 받지 않기를 빈다. 만약 과락을 맞은 부모가 있다면 이 글의 처음부터 다시 학습해 주시기 바란다.

체크수가 2개 이하라면 정말 좋은 부모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솔직해 말해서 A급 부모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표가 4대 정도 수준에 머물지 모르겠다. 좋은 부모에 대한 오랜 생각과 경험에서 얻은 예상치이다. 각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란다.

〈표 1〉 좋은 부모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기 반 성	결 과
① 내 생각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② 등교 전이나 식사시간을 잔소리하는데 쓰고 있지는 않는가?	
③ 나의 잘못을 자녀의 탓으로 돌린 적은 없는가?	
④ 자녀가 잘못을 깨달았는데도 되풀이하여 야단친 적은 없는가?	
⑤ 내 기분에 따라 자녀를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⑥ 아이가 힘들어 할 때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조용히 격려해 주는가?	
⑦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⑧ 자녀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는가?	
⑨ 자녀가 이룬 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칭찬하는가?	
⑩ 가끔씩이라도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가?	

4) 좋은 부모는 가정 분위기에서 만들어진다

‘잘 되는 집은 호박을 심어도 수박이 열린다’는 말이 있다. 가풍의 중요성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 생활에서 가풍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가풍을 제대로 지키는 집안은 드물다. 그러나 좋은 가풍을 실천하고 있는 집안은 자식들

은 그 결과도 남다르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다음은 가정 분위기가 교육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례이다.

이른바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다름 밖에 배울 것이 없다.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자녀들은 근심, 염려, 걱정을 배울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조롱하는 투로 말한다면 자녀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자녀들은 부끄러움을 배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의 문제는 처음에는 자녀 본인의 부끄러움이지만 나중에는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전가된다는 점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수치심을 느끼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죄의식을 느끼고, 자녀에 대한 지나친 동정심과 과잉보호를 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은 자기 자신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는 비애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사실이다. 우리 부모들은 경제생활이 다소 여유가 있게 되면서, 그리고 그들의 부모세대보다 더 적은 수의 자녀를 두게 됨에 따라, 자신의 자녀에 대한 관심, 교육적 투자는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솔직한 감정을 표한 주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좋은 부모가 결국은 자녀의 행동을 격려하고, 좋은 귀결을 맺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자녀에 대해 격려가 오가는 가정의 자녀들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들 자녀들은 자신의 행동을 생각한다.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항시 평가하기 때문이다. 시험을 잘못 친 김일동씨의 아들 A는 기분도 그렇고 해서 친구 B와 술자리를 했다. 아직 알코올이 약한 아들 A는 몇 잔술에 취기가 들었다. 결국 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난생 처음 먹은 술로 인해 인근 파출소로 끌고 가는 수모를 당했다.

그때 몸둘 바를 몰라하는 A의 부모는 “애야, 너무 상심하지 마라. 아빠는 너보다 두 살이나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을 저질렀지 않겠니? 다행히 담임선생님이 파출소에서 보증을 서주어 무사히 해결되었거든. 오늘은 그 선생님을 대신해서 우리 아들에게 이런 보증을 서는구나”. 자식의 허물을 이렇게 대범하게 처리해주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다시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겠는가?

〈표 2〉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가정분위기와 그 결과

가 정 분 위 기	교 육 적 결 과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는 가정	자녀들은 다툼을 배운다
두려움과 초조가 있는 가정	자녀들은 염려를 배운다
조롱의 언행이 표현되는 가정	자녀들은 부끄러움을 배운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가정	자녀들은 죄의식을 배운다
동정심과 과잉 보호의 가정	자녀들은 자기 비애를 배운다
격려를 주고받는 가정	자녀들은 자신감을 배운다
관용이 넘치는 가정	자녀들은 인내심을 배운다
칭찬이 표현되는 가정	자녀들은 감사함을 배운다
서로 용납하는 가정	자녀들은 사랑을 배운다

5) 좋은 부모가 어떠냐구요? 바로 이렇지요

좋은 부모의 경험담을 들으면 좋은 부모 되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좋은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다음은 좋은 부모가 되려는 부모를 위해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주부 유은주씨가 딸이 학교에서 겪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1998년 11월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에서 주최한 좋은 부모대회에 출품한 우수사례를 간추린 것이다. 이를 보면 좋은 부모란 ‘자식의 생각을 자녀의 눈높이에서 진지하게 들어주고, 자식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비결이 아닌 가란 생각이 든다.

유은주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 5학년 딸이 담임에게 말도 없이 조퇴하고 왔던 경우를 당하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른다. 유씨는 순간 비록 당황했지만 우선 울먹이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 불공평하게 벌을 받게 됐는데 선생님께서 딸에게 항의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씨는 아이가 조금 진정된 후 잠이 들자 학교에 전화를 걸어 ‘교직생활 30년에 이런 아인 처음 본다’며 흥분해하는 선생님께 양해를 구했다. 한잠 자고 난 아이는 기분이 좀 풀렸던지 “엄마, 선생님도 우리 얘기 다 들어주시러

면 한 반이 스무 명쯤 돼야 할거야. 그런데 내가 한 행동이 그렇게 큰 일이었어요?”하고 묻더라고. 유씨는 ‘이때다’ 생각하고 과밀학급과 잡무로 인한 선생님의 고충 등을 설명해주면서 은근히 아이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다. 그런 다음 학교에 계속 다닐지 결정은 스스로 하라고 했다. 엄마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아이는 제 생각을 글로 써서 다음날 담임께 전달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무조건 아이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아이의 입장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눈높이 대화’가 여러 가지 갈등 해결의 기본인 것 같다는 것이 유은주씨의 경험담이었다.

Ⅲ. 행복을 만들어 가는 부부

1. 남편과 아내는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순전히 생리적, 성적 차이만 생각할지 모른다. 천만에 말씀. 그런 사람이라면 남녀의 차이에 대해 그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남녀의 차이는 심각하다. 그럼에도 몰라서 남녀의 차이를 굳이 묻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남녀의 차이는 많다. 적어도 다음에서 제시한 것처럼 여덟 가지 정도는 차이가 있다.

첫째, 성염색체가 다르다. 아마 남녀간 차이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차이일 것이다. 남편은 XY, 아내는 XX, 우리가 아들 딸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성염색체에 의해 나타난다. 이를 보면 성의 결정은 남편의 염색체가 어떻게 아내의 염색체와 결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예컨대 남편의 X 염색체와 아내의 염색체가 결합하면 딸을 낳고, 남편의 Y 염색체와 아내의 염색체가 결합되면 아들을 낳는 것이다. 결국은 성의 결정방식은 남자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결혼하고 신방을 꾸미고, 합방을 하고... 그래서 허니문베이비가 태어났든, 아님 그보다 좀 늦게 아기를 가졌든 간에 남편과 아내의 성염색체의 조합에 의해 아들 딸이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들은 그런 기본적인 과학을 모르고 지

금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여성들이 딸 낳았다는 구박을 받았던가. 필자는 여성 운동을 하자는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모르면서 당하는 어리석음을 앞으로 겪지 말자는 당부를 정말 하고 싶다. 아들 딸은 남자에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아들을 원하는데 딸을 낳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때문이다.

둘째, 남편과 아내의 신체구조가 다르다. 남자의 피부는 두껍다. 굵은 뼈대와 근육질은 남성을 대표하는 심볼이다. 더구나 여기에 민첩성과 순발력까지 겹치면 남성적 특질은 여성과 완전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을 보라. 여성은 남성과 완벽하게 다르면서 감히 생각도 못하는 여성만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 여성은 허파가 짧다고 한다. 그것이 너무 짧아서 폐활량이 적다고 한다. 기초신진대사량도 적어서 고온에서의 적응성이 남성보다 훨씬 뛰어나다. 표피아래 여성의 지방질을 본적이 있는가? 여성은 지방층이 남성보다 많다. 그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지구력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지 않는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20년전 아시아의 물개로 소문난 조오련 선수가 현해탄을 헤엄쳐 건넜다. 바다에서의 장시간 수영을 이겨내기 위해 체중을 20킬로그램(kg)나 불렀다고 한다. 체중이란 다름아닌 지방질이다. 지방질의 역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이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호르몬이 다르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의 호르몬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라면 여성의 호르몬 반대이어서 수동적이고, 여성을 아름답게, 여성을 여성스럽게 만든다고 한다. 일전, '하리수'라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 젠더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가 성공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와 같은 여성호르몬의 의도적 주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넷째, 사람이 오감을 느끼는 것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고 한다. 남성은 시각이 강하다.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말하는 남성은 누드에 약하고, 여성은 무드에 약하다는 이야기는 남성이 시각기능이 발달해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여성은 청각과 촉각이 발달해 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가 시간이 늦어질 남편이라면 전화 한 통화라도 정답게 아내에게 내어 보라. 그러면 여

성의 놀랄만한 청각이 남편의 고민을 말끔히 씻어줄 것이다. 그런 마당이니, 아내의 침대에 살짝 접근해서 하는 스킨십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으랴.

다섯째, 남자와 여자는 판단력에도 차이가 있다. 별 차이가 다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그렇다는 것이다. 남자는 이성적이다. 그래서 사실적 판단에 중점을 둔다. 여성은 감성적 경향이 짙다. 사실 관계를 중시하기 보다는 직관력에 의존하는 것이다.

여섯째, 상대에 대한 요구사항도 남녀는 차이를 보인다. 남성은 신뢰와 안정을 요구하는 반면, 여성은 남편의 관심과 친밀감을 더 원한다.

일곱째, 이밖에 여성과 남성은 만족감을 느끼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남성은 목적지향적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수 있는 능력배양이 우선이다. 하지만 여성은 자기의 느낌을 남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서 만족을 느낀다. 이처럼 여성과 남성은 성적, 생리적, 정서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처럼 상대를 아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표 3〉 남편과 아내는 뭐가 달라?

차 이	남 편	아 내
성염색체	XY	XX
신 체	두꺼운 피부, 굵은 뼈대, 근육질, 민첩성, 순발력	허파가 짧아 폐활량 적음, 기초신진 대사 낮아 고온 적응성 높음, 표피 아래 지방층 많아 지구력 뛰어남
호 르 몬	테스토스테론(공격적, 적극적)	에스트로겐
오 감	시각(눈을 통해 성적 충동)	청각, 촉각(분위기, 무드)
판 단 력	이성적 경향(사실적 판단)	감성적 경향(직관력)
요구사항	신뢰와 안정	관심과 친밀
움 직 임	자기를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만 족 감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통해	자기의 느낌을 남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

2. 남편과 아내는 이야기도 다르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아주 가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는 쉽지 않다. 왜 일까?

여성의 말과 남성의 말의 액면과 내면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남편은 아내의 말을, 아내는 남편의 말을 100 퍼센트 신뢰할 수 있는 사회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현명한 아내와 남편이라면 상대방의 어색한 표현에서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지, 내가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지는 상대에 대한 관심, 끝없는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를 보면 아내의 말과 속마음, 남편의 말과 속마음이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어떤 오해가 생기는지 알 수 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아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다. 물론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외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다. 그러면 당연히 남편에게 “여보, 우리 오늘 외출까요? 외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맞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이 여성이다. 결국 남편이 속마음도 왜곡되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겉말은 “그건 사실이 아니야. 우리 얼마 전에도 외출을 했잖아”라고 말이다.

이런 경우를 보면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하게 된다. 다만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면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데 부부들이 그렇게 멀고 험한 길을 가면서 고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표 4〉 아내의 속마음, 남편의 속마음

여자의 말	여자의 속마음	남자의 속마음	남자의 말
우리는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과 외출을 하고 싶고, 무엇이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오늘 밖에서 저녁식사 할래요? 함께 외출을 한지도 며칠 됐잖아요.	당신이 그런 사람인줄 몰랐어요. 당신은 게으르고 낭만도 모르고, 그저 따분한 사람이라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우린 지난 주에 외출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잊고 싶어요	내가 내 일과 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도 아실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정말 기분이 엉망이고 당혹스러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소?’라고 내게 물어주고 그냥 가만히 내 이야기에 귀기울여 줄 수 있겠어요? 나는 단지 당신에게 이해받고 싶을 따름이에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마지못해 하고 있어요. 당신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조금도 행복하지 않고 우리 관계도 지겨워요. 나는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게 해줄 더 나은 배우자를 원한다구요.	당신 일이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면 되잖소.
우리 집은 늘 엉망이에요.	오늘은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집안이 엉망이군요. 나는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휴식을 원해요. 대충이라도 좀 치워놓게 거들어 주겠어요?	당신 때문에 집안 꼴이 늘 이 모양이에요.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며 치우면 뭐해요? 당신이 또 금방 어질러 놓을 텐데. 당장 말끔히 청소하세요.	늘 그런 건 아니지.

<자료> : 김양호,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의사소통교육(상지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 1999)

3. 난, 이런 말 듣고 싶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남편 생활 10년이 넘었어도 잘 모르는게 현실. 결과는 놀랍게도 “사랑해요, 여보”가 남편과 아내가 공통으

로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고 했다. 다음부터는 달랐다. 남편은 “당신 밖에 없어요”, “당신만 믿어요”란 말을, 아내는 “당신 멋있어요”, “당신 못 만났음 큰일 났을 거야”.

그런데 듣고 싶은 말들이 그렇게 지고지순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쉽고 상식적인 말들을 함부로, 자주 하지 못하는 우리들 남편과 아내의 무뎌짐이 오히려 어색하다. 노력해서 안될 일이 어디있을까? 남편과 아내가 좀더 노력해서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이 아닐까?

〈표 5〉 남편과 아내가 듣고 싶은 말

남 편	아 내
사랑해요, 여보(공통)	사랑해요, 여보(공통)
당신 밖에 없어요.	당신 멋있어요
당신만 믿어요.	당신 못 만났음 큰일 났을 거야

4. 부부여, 이젠 부부싸움을 하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한다.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물처럼 베어도 베어도 끝없이 이어지고 연결되는 물이 바로 부부싸움임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물론 정도가 지나치면 심각하지 않을 것이 어디있겠는가. 하지만 필자가 말하는 부부싸움이란 생활의 활력소를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의 시귀는 유행가의 가사이다. 김국환의 ‘우리도 접시를 깨뜨리자’는 노랫말이 시인의 시귀 이상으로 정감있게 들려온다. ‘접시를 깨는 것’은 일상의 탈을 벗어던지자는 의미이다. 남편과 여성의 전통적 성 역할에서 벗어나 남편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밥도 짓자는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자~ 그녀에게 시간을 주자
 저야 놀든 쉬든 잠자든 상관 말고
 거울 볼 시간 시간을 주자
 그녀에게도 시간은 필요하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부엌으로 가서 놀자 야항
 그건 바로 내 사랑의 장점
 그녀의 일을 나도 하는 것 필수감각 아니겠어
 그거야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접시 깬다고 세상이 깨어나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뜨리자 접시를 깨뜨리자”
 (「우리도 접시를 깨뜨리자」, 김국환)

어떤 사람들은 부부싸움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른바 어떤 상황에서도 부부싸움은 남편을 위한 것, 아내를 위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이혼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부간에는 적지 않은 부부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폭력의 행사, 혼외관계, 유기,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권위주의적인 남성지배의 유지와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서구의 가족관이 빚어내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권위주의적 가부장제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평등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평등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은 구성원 전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녀를 사회화하는 제도’란 올바른 가족관을 확립해야 한다.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부는 항상 자기발전과 협력을 통해서 새로 전개되는 상황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내의 가사와 농사일로 인한 역할과중과 피로문제, 취미활동 시간의 부족, 부부간의 성격 차이, 노부모 부양에 따른 문제 등도 결국에는 아직까지 가정의 약자로 위치해 있는 여성이 전부 해결해야 할 몫이 될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부부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혼인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장 긴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서로 협조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른바 부부관계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매혹하게 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해야 하며,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며,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는 것이자, 되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건전한 부부관계를 위한 두 사람의 협력방식이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행복한 부부만들기를 위한 코멘트를 이미 오랜전에 남겨 주었다. “사랑 속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되고, 사랑 속에서 스스로 활동하고 사랑을 발전시켜야 한다.” 부부는 사랑보다 앞서서는 존재이고, 동시에 사랑을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더욱 심오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이리라.

5. 부부간의 성, 부부간의 역할

결혼생활의 성이란 자연스런 일이다. 만일 성이란 것이 없다면 결혼이란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성은 결혼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기본적 요소이다. 부부간의 성적 적응이 잘 되려면 부부간에 필요한 모든 다른 요인들이 서로 잘 맞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부간의 성생활은 출산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인성을 결합시키는 창조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부부간이 성생활은 자유스럽고 누구에게서도 방해받지 않아야 할 배타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 부부간의 성생활은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과정이다. 부부간의 성적 적응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한쪽만의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 상화관계의 책임이므로 똑같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부부간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보면, 부부간의 역할에서 방청소, 이불 펴고 개기, 식료품 구입하기, 밥짓기, 설건이, 빨래(세탁), 친척 왕래, 이웃 사귀기, 자녀 교육 등에서 부부간의 역할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는 지역별, 직업별, 연령별, 그리고 학력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

다. 다음 표의 빈칸에 한 번 그대 부부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라.

〈표 6〉 부부간의 역할분담(우리 부부는 어디에 속할까? ✓ 체크하기)

역할의 내용	아내	부부공동	남편
방 청소			
이불 펴고 개기			
식료품 구입			
찬거리 사기			
밥짓기			
설거지			
빨래			
친척 왕래			
이웃 사귀기			
자녀 교육			

다음으로 부부유형에 대해 살펴보자. 결정권과 행동권이란 두 가지 요소를 남편, 아내, 공동처리의 3가지로 구분하여 모두 9가지 경우의 결정 및 행동권을 검출하였다. 이를 보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따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유형이 있고, 남편 혼자 결정하고 부부 공동으로 행동(관리)하는 유형, 아내 혼자 결정하고 행동은 부인 혼자 혹은 공동으로 하는 경우,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행동하거나, 남편혼자 행동하는 유형. 그리고 아내 혼자 결정하고, 남편 혼자 행동하는 유형이 있다.

- A ; 남편 혼자 결정하며 혼자 행동하는 형
- B ; 아내 혼자 결정하며 혼자 행동하는 형
- C ; 남편 혼자 결정하며 부부 공동으로 행동하는 형
- D ; 남편 혼자 결정하며 부부 공동으로 행동하는 형
- E ; 남편 혼자 결정하며 부인 혼자 행동하는 형

- F ; 아내 혼자 결정하며 남편 혼자 행동하는 형
 G ; 공동으로 결정하며 공동으로 행동하는 형
 H ; 공동으로 결정하며 남편 혼자 행동하는 형
 I ; 공동으로 결정하며 아내 혼자 행동하는 형

〈표 7〉 우리 부부는 어떤 유형이지?

가족 \ 결정		결정		
		남편	아내	공동
행동	남편	A형	F형	H형
	아내	E형	B형	I형
	공동	C형	D형	G형

<자료> : 이남기, 여성과 가족관계, 「농촌경제강의」,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1995)

6. 부부여, 대화를 하자

우리는 상대를 모른다. 경상도 말에 이런 우스개가 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하는 말은 단 세 마디. “밥 먹었나, 불 끄라, 자자” 이 세 말이 전부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들 부부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과 느낌을 갖게 되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내가 바라는 소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남편과 우리 관계를 위해서는 어떠한 바램이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각할 필요가 있다.

부부간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전달법’(I-message)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상대로 인해 내가 문제로 느끼는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그 행동이 내게 미친 영향과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분명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예컨대, “당신 왜 이렇게 매일 늦게 들어와요?” 라고 말하지 말자. 오히려 이런 말이 상대에게 더 듣기 좋은 말이 아닐까? “당신이 이번 주 거의 12시 넘어서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내게 무슨 불만이 있는지 생각이 들어 매우 불안하고 걱정스럽네요”라고 말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부

부간 대화술이다.

하지만 부부의 대화가 그렇게 쉽지 않다. 대화하기 어려운 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간에도 깊은 수준에서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많다. 깊은 대화를 하려면 굳은 신뢰심이 필요하다. 서로에게 전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자신을 드러낼 만큼 충분히 신뢰하는가? 다음 표를 보고, 한 번 체크해 보자. 그러면 왜 당신은 상대방과 대화하기 어려운지를 알게 될 것이다.

〈표 8〉 당신이 배우자와 대화하기 어려운 내용은 어떤 것인가?(체크해 봅시다)

가족		시간		성		농사일	
친척		갈등		가치관		집안의 잔일	
자녀		종교		조상		돈	
친구		이웃		결정방법		집·아파트	
대화		건강		상호존중		정신적 성장	

또한 대화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부사이에 대화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12가지 대화거부 사항 중에서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만약 그 결과가 5개 이상까지 체크되었다면 당신은 전문가에 의존해서라도 부부간 대화술을 터득해야 할지도 모른다.

- 1)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 2)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 3) 나를 덜 좋아할까봐 두려워서
- 4)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 5) 희망이 없으므로(말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 6)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질 필요가 없어서
- 7) 단점을 보이게 될까봐 두려워서
- 8) 싫어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 9) 싸움의 불씨가 될까봐 두려워서
- 10) 성 관계를 끊게 될까봐 두려워서
- 11) 나는 항상 지니까
- 12) 배우자가 한번 앙심을 품으면 오래 가기에

IV. 마무리

행복은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다. 부모와 자식관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행복을 누군가 전해 주는 선물쯤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이기주의자가 슬픈 것은 행복을 쟁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기 때문이다. 행복은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타인을 행복하게 할뿐만 아니라, 자신도 행복하게 만든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행위 자체에서 샘솟는 행복의 기운을 감히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좋은 부모가 되고, 행복한 부부를 만드는 비결에 왕도는 없다. 다만 부모는 자식에겐 영원한 봉이자, 자식을 짝사랑하는 존재임을 자각하자. 자식사랑은 내림사랑이지 오름사랑이 아니다. 준 것을 받으려는 사랑은 더 이상 자식사랑이 아님을 명심하자. 다음 시편을 보라. 행복이 무엇인지, 자식과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행복은 뭉게구름, 이 마을 저 마을
가을 하늘 가로질러 석양에 걸려 있네
행복은 만인의 것,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가로 썰 수 없는 것 급하면 더더욱 멀어 지는 것

행복은 백화점의 매상(賣上)품이 아니오
고시합격자에게 주는 부상(副賞)품도 아니며
신이 목자에게 주는 하사(下賜)품도 아니다

오로지 자신이 주조하나 본인도 모르게 형성되는 것

잃어버린 것을 애태우며 한탄하고
이 행복 저 행복 추종에 급할수록
행복은 결코 잡을 수 없는 것.
행복을 잊어라. 인생을 잊어라.

과거에서 탈피하고 내일을 고대 말며
반개라도 감사하고 오늘을 다 할 때
사랑이 모인다. 행복이 안겨온다.
행복은 작은 구슬, 알알이 엮어 보세.
(<http://mks.pe.kr/lub29.htm>)

참 고 문 헌

- 강근만, '행복한 농업인 부부', 「농업경영과 정책」, 농협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2001. 2.
- 김숙중, '화목한 농촌가정생활', 「농업경제」,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1992. 2.
- 김양호,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의사소통교육', 「교양 및 농업일반」, 상지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 1999.12.
- 김정옥, '부부간의 효과적인 대화방법', 「여성농민과 복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2000. 3.
- 박혜인, '농촌가족의 갈등 극복방안', 「생활개선」, 농촌진흥청, 1998.11.
- 보건복지부,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생활」, 1996.12.
- 이남기, '여성과 가족관계', 「농촌경제강의」,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1995.12.
- 최규련, '농촌 가족문제에 따른 상담지도 요령', 「생활환경 가정경영, 식생활」, 농촌진흥청, 1997.11.
- 현은민, '건강한 가족관계',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촌생활」, 안동대학교 농업개발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1999. 8.

감수위원소개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공 및 학위
김 인 호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회장	-
김 종 숙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수	농학 박사
박 민 선	농협대학 여성대학과정 교수	문학 박사
박 양 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식품영양학 박사
서 종 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림부한국여성정책자문회의 위원장	농업경제학 박사
윤 금 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부회장	-
정 무 남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장	농업경제학 박사
조 희 금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가정학 박사

(가나다순...)